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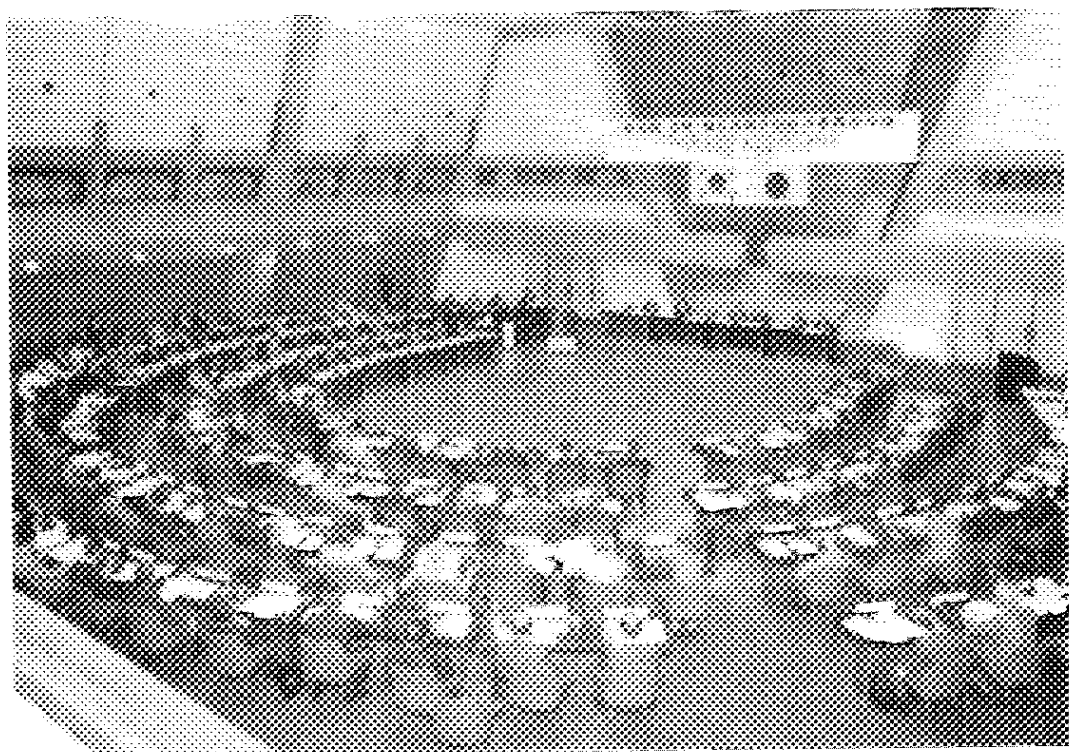
# 第16回 韓日・日韓 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

THE 16TH JOINT CONFERENCE OF  
KOREA-JAPAN & JAPAN-KOREA ECONOMIC COMMITTE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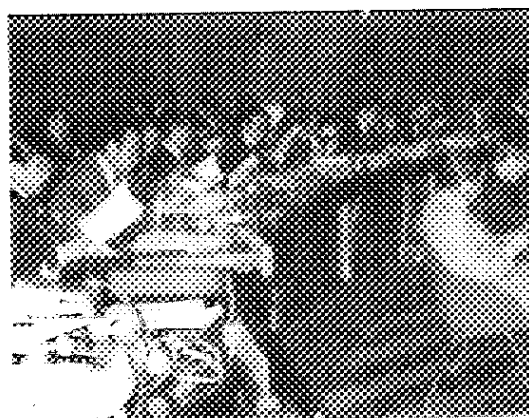
1984. 4. 5 ~ 7. KYOTO, JAPAN

## 報 告 書

韓 日 經 濟 協 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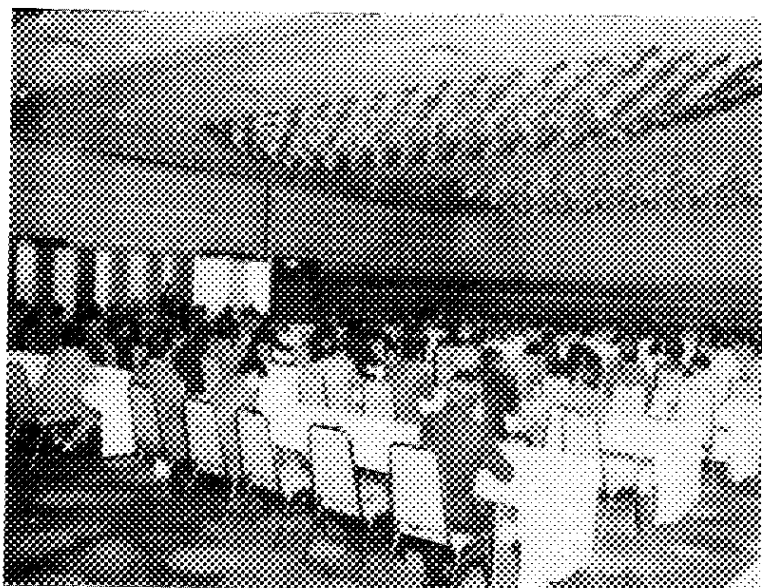
▲ 第16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場 全景（國立京都國際會館 大會議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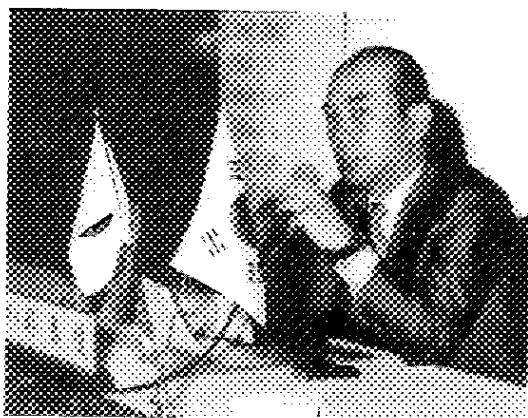
▲ 會議中 參席上 韓國側代表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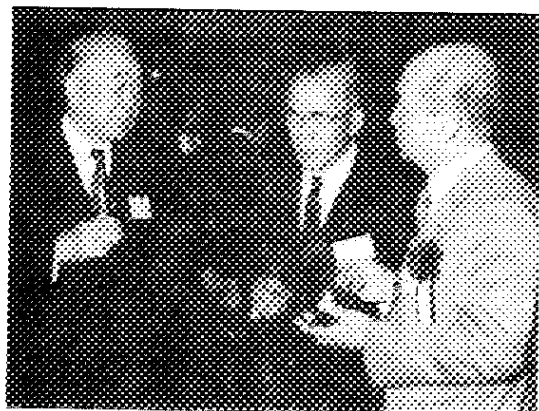
▲ 兩側代表團



▲ 會議 最終日에 特別 記念講演을 하는 坂元義種 京都府立大學教授



▲ 記者會見하는 朴泰俊 團長



◀ 리셉션에 參席한 朴泰俊 韓國側團長, 石井正巳 三井物產(株)取締役副會長, 永田敬生 日立造船(株)代表取締役(右로부터)

## 目次

|                          |    |
|--------------------------|----|
| 1. 會議日程                  | 7  |
| 2. 兩側團長人事                | 9  |
| 가) 韓國側                   | 9  |
| 나) 日本側                   | 14 |
| 3. 致辭 및 祝辭               | 17 |
| 가) 崔慶祿 駐日大韓民國特命全權大使      | 17 |
| 나) 林田悠紀夫 京都府知事           | 19 |
| 4. 經過報告                  | 23 |
| 5. 會議議題                  | 25 |
| 6. 兩側代表團名單               | 27 |
| 가) 韓國側                   | 27 |
| 나) 日本側                   | 32 |
| 7. 基調演說                  | 39 |
| 가) 韓國側：韓日經濟交流의 原點        | 39 |
| 金都亨 國土開發研究院 首席研究員        |    |
| 나) 日本側：情報化社會의 進展과 日韓經濟協力 | 58 |
| 小林大祐 富士通(株) 代表取締役會長      |    |

|  |     |
|--|-----|
| 8. 第5次 經濟社會發展5個年計劃修正內容과 對外開放政策의<br>推進方向 說明 ..... | 68  |
| 金英泰 經濟企劃院 投資審查局長                                 |     |
| 上記 說明에 대한 日本側 質問 .....                           | 91  |
| 竹內 宏 (株)日本長期信用銀行 常務取締役                           |     |
| 上記 質問에 대한 韓國側 答辯 .....                           | 93  |
| 金英泰 經濟企劃院 投資審查局長                                 |     |
| 9. 日本의 自由化政策과 民間의 對應 .....                       | 96  |
| 植田三男 日商岩井(株) 取締役社長                               |     |
| 上記 說明에 대한 韓國側 質問 .....                           | 106 |
| 申泰植 全國經濟人聯合會 專務理事                                |     |
| 上記 質問에 대한 日本側 答辯(1) .....                        | 108 |
| 植田三男 日商岩井(株) 取締役社長                               |     |
| 上記 質問에 대한 日本側 答辯(2) .....                        | 110 |
| 赤澤璋一 日本貿易振興會 理事長                                 |     |
| 10. 各專門委員會 報告事項 .....                            | 114 |
| 가) 第11回 韓日・日韓貿易擴大均衡委員會                           |     |
| 合同會議 經過報告 .....                                  | 114 |
| 나) 第9回 韓日・日韓機械工業協力專門委員會                          |     |
| 合同會議 經過報告 .....                                  | 119 |
| 다) 第4回 韓日・日韓經濟協力長期構想研究 委員會                       |     |
| 合同會議 經過報告 .....                                  | 123 |

|                            |     |
|----------------------------|-----|
| 다) 第2回 韓日・日韓中堅中小企業協力專門 委員會 |     |
| 合同會議 經過報告 .....            | 127 |
| 11. 産業技術協力 .....           | 130 |
| 가) 韓國側提案 .....             | 130 |
| 金啓鎬 中小企業振興公團 理事            |     |
| 日本側 答辯(1) .....            | 134 |
| 永田 敬生 日立造船(株) 代表取締役        |     |
| 日本側 答辯(2) .....            | 137 |
| 三好正也 (社)經濟團體連合會 常務理事       |     |
| 韓國側 補充說明 .....             | 141 |
| 金啓鎬 中小企業振興公團 理事            |     |
| 나) 對韓技術協力の 環境整備에 대하여 ..... | 142 |
| 合田 茂 住友重機工業(株) 取締役社長       |     |
| 韓國側 答辯 .....               | 150 |
| 白 文 韓國綜合技術開發公社 社長          |     |
| 12. 韓日貿易增進 .....           | 157 |
| 가) 韓國側提案(交易擴大均衡) .....     | 157 |
| 李孝益 三益樂器製造(株) 社長           |     |
| 나) 日本側 答辯(1) .....         | 197 |
| 西尾 知 丸紅(株) 專務取締役           |     |
| 日本側 答辯(2) .....            | 200 |
| 野村喜久雄 NICHIMEN(株) 專務取締役    |     |

|                                       |     |
|---------------------------------------|-----|
| 日本側 答辯( 3 )                           | 202 |
| 渡邊禮之 東京商工會議所 中小企業委員長                  |     |
| 日本側 答辯( 4 )                           | 203 |
| 赤澤璋一 日本貿易振興會 理事長                      |     |
| 다) 日本側提案( 駐韓日本商社等의 STATUS 問題 및 課稅問題 ) |     |
|                                       | 206 |
| 鐵屋一夫 伊藤忠商事(株) 副社長                     |     |
| 라) 日本側提案( 輸入多邊化政策 改善 )                | 210 |
| 永峰貞吉 住友商事(株) 專務取締役                    |     |
| 나) 韓國側 答辯                             | 211 |
| 朴魯聖 元伸實業(株) 社長                        |     |
| 13. 海運協力問題                            | 215 |
| 가) 日本側提案                              | 215 |
| 三上良造 日本船主協會 常務理事                      |     |
| 나) 韓國側 答辯                             | 217 |
| 李孟基 大韓海運(株) 社長                        |     |
| 14. 國交正常化 20 周年行事準備委員會 構成 提案          | 219 |
| 崔周善 (社)韓日經濟協會 常勤副會長                   |     |
| 日本側 答辯                                | 220 |
| 大島健司 小野田 CEMENT (株) 取締役社長             |     |

|                  |     |
|------------------|-----|
| 15 . 共同聲明 .....  | 221 |
| 16 . 閉 會 辭 ..... | 226 |
| 가) 韓國側 .....     | 226 |
| 나) 日本側 .....     | 228 |



## 日 程

### 4.5 (木)

11:00 - 12:40 서울 - 大阪 KE724 便

13:00 - 14:00 大阪 - 京都東急HOTEL (專賛 BUS)

15:00 - 16:00 HOTEL - 國立京都國際會館 (BUS)

16:30 開會式 國立京都國際會館 ROOM A

(1) 經過報告：日本側事務局

(2) 兩側團長人事

(3) 致辭 (林田悠紀夫 京都府知事)

(4) 祝辭 (崔慶祿 駐日大韓民國大使)

(5) 兩側團員紹介

(6) 議長選出：規約에 依據 日本側 委員長

(7) 議題採擇

17:00 基調演說

(1) 日本側：情報化社會의 進展과 日韓經濟協力

小林大祐 富士通(株)會長

(2) 韓國側：韓日經濟交流의 原點

(知識・情報産業社會와 世代

交替를 맞아)

金 都 亨 國土開發研究院首席研究員

19:00 - 20:30 Reception ( 韓日共同主催 ) 京都東急HOTEL 葵の間

#### 4.6 ( 金 )

7:30 - 8:30 朝食 ( 京都東急HOTEL ) 韓國側委員全員 , 鞍馬の間

9:00 - 10:00 HOTEL 一國立京都國際會館 ( BUS )

10:00 - 12:00 午前會議 ( 國立京都國際會館 ROOM A )

12:00 - 13:00 午餐 ( 日本側主催 : 國立京都國際會館 SWAN ROOM )

13:00 - 17:00 午後會議

#### 4.7 ( 土 )

8:00 - 9:00 朝食 ( 京都東急HOTEL ) 韓國側委員全員 , 鞍馬の間

8:00 - 9:30 兩側顧問團長團朝食會 및 共同聲明檢討 祇園の間

10:00 - 11:00 記念講演會 : 日韓古代史와京都''

坂元義種 京都府立大學教授

( 京都東急HOTEL 葵の間 )

11:00 - 12:00 共同聲明採擇 및 閉會 , 葵の間

13:00 - 14:00 京都 - 大阪 ( BUS )

15:50 - 17:30 大阪 - 서울 KE604 便

※ 12:00 - 12:30 記者會見 - 會長團 , 鞍馬の間

## 團 長 人 事

韓 日 經 濟 委 員 會

委 員 長 朴 泰 俊

尊敬하는 日高輝團長, 稻山嘉顧問, 京都府知事님과 崔慶祿大使님을 비롯한 顧問님들 그리고 日本代表團 여러분!

本人은 우선 이번 第16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의 開催를 위하여 여러모로 애써 주시고, 또한 우리들 韓國代表團을 따뜻하게 歡迎해 주신데 對하여 日本側代表團 여러분께 韓國側代表團을 代身하여 깊은 謝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둘이켜 보건대 지난 1965 年에 韓日兩國의 國交가 正常화된 以後 벌써 많은 歲月이 흘러, 이제 來年이면 兩國關係가 滿20 年, 즉 成年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두나라 사이에서는 政治, 經濟, 社會, 文化 등 各分野에 걸쳐 相互理解와 交流를 통한 協力이 꾸준히 持續되고 增進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 委員會의 活動에 依한 雙方間의 民間經濟協力이 크나큰 役割을 擔當해 왔다고 믿고 있으며, 이는 본委員會가 1969 年에 發足된 以來 단 한번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合同委員會會議를 거듭하여 온, 그 事實 하나만으로도 如實히 證明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點 이 자리를 빌어 兩側委員 여러분께 感謝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런데 兩國關係가 곧 成年을 맞게 되는 이 時點에서 우리 모

두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은 이제까지의 兩國間經濟協力の 結果를 再照明하는 同時에 앞으로의 協力推進方向이나 方法등을 虛心坦懷한 立場에서 協議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點입니다.

여기서 本人이 強調하고 싶은 것은 兩國間經濟協力이란 恒常 世界經濟의 現實과 未來像을 머리속에 그려가면서 圓滿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韓日兩國間の 經濟協力에만 그치지 않고, 모든 나라들 사이의 經濟協力이란 共同的 利益과 繁榮을 追求하고 享有하면서, 그것이 世界經濟와 人類全體의 幸福에 寄與하는데 그 참된 目的이 있다고 本人은 생각합니다.

이點 特히 韓日 두나라는 歷史적으로나 地理적으로나 가장 密接한 關係를 維持하여 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 있어서는 다가올 太平洋時代의 開幕을 눈앞에 두고 그 어느때보다도 協力과 紐帶를 強化해 나아가야 할 不可分の 새 關係에 立脚한 새 時代를 맞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韓日兩國間 經濟協력이 指向해야 할 길은 너무나도 明白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오늘날 날로 深化一路를 걷고 있는 韓日間 貿易不均衡 問題나 尖端技術移轉協力問題등 우리들 앞에 가로놓여 있는 모든 懸案과 難題를 하루 速히 解決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두나라 經濟人들의 急先務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선 貿易不均衡問題를 놓고 보면 그동안 雙方間の 協議와 努力

에도不拘하고 오히려 韓國의 對日逆調가 늘어나는 趨勢에 있는 것이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므로 이의 時急한 改善, 즉 擴大均衡을 通한 바람직스러운 方向에서 不均衡이 解消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 尖端技術移轉協力問題에 있어서는 지난 第 14 回 및 第 15 回 合同會議에서 세미나 或은 심포지움을 開催하기로 合議한 바에 따라 그동안 몇 차례 實施한 結果, 相互理解가 相當히 깊어졌습니다.

이러한 事實에 비추어 앞으로도 더욱 活性化를 指向하고 또 그 實效를 거두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마디 附屬해 두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말하는 尖端技術의 移轉이란 日本의 企業과 政府 즉 日本國民들이 오랜동안에 걸쳐 많은 投資를 해서 거둔 成果인 尖端技術을 당장 그리고 몽땅 移轉해 달라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點입니다. 또한 여러가지 環境이나 與件때문에 尖端技術의 移轉이나 適用이 어려운 境遇도 있는 것이 事實입니다. 따라서 可能的 分野를 찾아내고 實行에 옮기는 것이 가장 緊要한 課題일 것인 바, 雙方이 좀더 努力하고 協力만 한다면 길은 얼마든지 있게 마련입니다.

이와 같은 相互協力이 實現되었을 때 窮極적으로는 오늘날 地域間的 隔差에서 오는 各種物議, 例컨대 南北問題와 같은 國際紛爭을 事前에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世界經濟의 共同發展에도 크게 寄與하리라고 本人은 믿어 疑心치 않습니다.

兩側代表 여러분!

아까도 잠깐 言及했듯이 國際間的 經濟協力이란 어느 한쪽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서로 相互補完的인 性格을 가지고 함께 發展하고 豐饒를 享有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韓日兩國間的 經濟協력이 世界 모든 나라들 사이의 經濟協力の 하나의 본보기가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바일 것이며, 또한 그렇게 해야만 本委員會가 지난 20年間 기울여 온 努力的 보람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日本側代表團 여러분!

오늘날 貴國의 一角에서는 韓國, 臺灣, 싱가포르등 소위 中進國들의 發展을 日本에 對한 하나의 威脅으로 받아들여 警戒와 牽制를 主張하는 意見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實인즉 이들 나라의 意慾的인 發展에의 努力은 世界의 共榮이라는 觀點에서 決코 日本에 對한 威脅일 수는 없을뿐더러, 오히려 그러한 努力을 激勵하고 協力を 아끼지 않음으로써 世界經濟의 發展과 人類의 共榮을 圖謀하는 것이 先進國으로서, 그리고 같은 아시아國家로서의 日本이 取할 襟度있는 姿勢가 아니겠습니까?

去年的 中曾根日本首相의 訪韓을 契機로 이루어진 韓日兩國間的 새로운 次元에서의 友好協力關係가 2年째를 맞은 오늘의 時點에서 우리 두나라 經濟人들이 갖추어야 할 共同認識은, 어디까지나 誠意 있는 相互協力이야말로 참된 意味에서의 共同利益의 바탕이 된다는

哲學을 가져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實現만 된다면, 우리들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모든 難題 즉 貿易不均衡問題도 尖端技術移轉協力問題도 봄눈 녹듯이 슬슬 풀려 밝은 將來를 豫見케 하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本人이 恒常 強調하였듯이 國民的 基盤위에서의 相互理解 增進과 共同認識의 形成이 무엇보다도 重要하며 이에는 長期的이고도 包括적인 끈기 있는 努力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겠는 바, 그 가운데서도 우리 民間經濟人들이 그 基盤擴充에 앞장서야 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親愛하는 兩側代表團 여러분!

앞으로 3日間 열리는 이번 合同會議에서 아무쪼록 隔意없는 意見交換과 協議를 통해 모든 懸案의 배움이 풀리고 위에서 말한 바, 兩國의 國民的 基盤위에서의 共同認識形成의 밑거름이 됨으로써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가 單純한 民間經濟協力の 窓口役割에 그치지 않고, 雙方國民間的 相互理解와 信賴의 幅을 넓혀 가는 架橋로까지 發展・昇華되는 契機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本人의 懇切한 바램입니다.

끝으로 이번 會議을 準備하시느라고 온갖 勞苦를 아끼지 않으신 日本側代表團 여러분과 特히 日韓經濟協會의 實務者 여러분께 다시 한번 甚深한 謝意를 表하면서 人事말씀으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大端히 感謝합니다.

## 團 長 人 事

日韓經濟委員會

委員長 日高 輝

來賓으로 왕림하신 崔慶祿 駐日韓國大使, 林田 京都府知事, 그리고 韓國側 朴泰俊團長, 各 顧問을 비롯한 團員여러분, 오늘 第16回 日韓・韓日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를 開催함에 있어, 日本側을 代表해 人事를 드리게 된것을 더없는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昨年初 우리나라 나카소네 首相의 貴國訪問을 契機로 「日韓新時代」의 幕이 열렸읍니다만, 이것을 文字 그대로 新時代로서 進정으로 充實된 共存共榮의 關係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經濟, 文化 其他 各方面에 걸친 交流를 深化시켜 가는 더한층의 努力이 새삼 必要하다고 하겠읍니다.

특히, 民間經濟界로서는 韓日兩國이 共히 世界自由貿易體制를 維持, 發展시켜 가는 立場에 있으므로, 資本, 技術에 있어 加一層의 協力을 通해 産業構造의 調整과 改善을 相互協力下에 講究하며, 國際分業으로의 길을 開拓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貴國에서는 貿易을 시작으로해서 順次的으로 自由化體制를 實行한다고 듣고있읍니다만 이것은 全大統領이 전부터 말씀하신 「先進祖國」 實現을 위한 더담돌로서 우리도 크게 期待하고 있는바입니다.

다행하게도 國際經濟 環境은 最近에 와서 요즘 數年間の 沈滯



狀態에서 점차 밝은 징조를 보이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貴國은 昨年에 9.3%라는 대단히 높은 實質經濟 成長을 이룩했고, 더우기 物價는 前年에 비해 거의 變動이 없는 安定된 상태를 維持하고 있다고 듣고있습니다.

이같은 좋은 環境속에서, 韓國은 第5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을 보다 健全한 템포로 推進이 可能하도록 修正하고, 또한 外資導入 政策도 円滑한 運營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改正하는 등 前述한 自由化體制로의 轉換과 함께 政策制度面에 있어서도 積極的으로 대처하고 있는것은 실로 時宜適切한 措置라 생각되어 기쁨을 禁할 수 없습니다.

우리 民間經濟人으로서 「日韓新時代」의 內容을 經濟面에서 어떻게 充實한 것으로 만들어야할까에 關해서 마음을 새롭게 하여 생각해볼 必要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 이제까지 雙方間에 多少의 망설임이나, 誤解, 혹은 思考方式의 차이같은 것이 없었다고는 斷言할 수 없습니다.

例컨대, 우리쪽에서는 技術移轉에 부수적으로 發生하는 事態에 對한 過敏한 反應, 貴國에 있어서는 貿易面の 不均衡에 對한 다소 片務的인 解釋등을 들수있을것 입니다.

이번 民間合同委員會 會議에 있어서는 다시한번 相互理解라는 爭點을 再確認함과 同時에 眞正으로 對等한 同伴者가 되어 서로 손을 맞잡고 世界經濟發展에 貢獻할 수 있는 길을 찾아, 그 具現을 圖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合同委員會 會議는 第 16 回째로, 더우기 兩國의 民間經濟 交流가 시작된 以來 内년에는 25 周年을 맞게되는 이때, 이곳 平安京이었던 京都땅에서 東京 以外에서는 최초로 開催케 되어 여러가지 불편을 끼친것은 아닌지 매우 念慮스럽습니다.

그렇기는 하나 京都를 國都로 정했던 우리나라 第 50 代 桓武天皇(西紀 737 年~806 年)의 生母(다카노니이까사) 되시는 분은 韓國과 因緣이 깊은 분이였다는 기록도 있을 정도로, 옛부터 兩國의 交流가 行해졌던 고장이기도 하므로, 바야흐로 봄의 절정을 맞으려 하는 꽃의 都市를 즐기셨으면 하는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여러가지로 생각한 끝에 日韓 古代史 研究의 權威者인 京都府立大學의 坂元教授에게 依頼하여 이 會의 最終日(7日 10時)에 記念講演會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日韓 兩國의 앞으로의 關係는 무엇보다도 먼저 全大統領의 可及的 訪日을 歡迎하며 兩國關係가 加一層 바람직한 자세가 되도록 念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來年으로 맞이하는 國交正常化 20 周年을 文字 그대로 意義깊은 것으로 삼아, 未來를 向한 그로벌한 展開를 期하고자 합니다.

來日の 全體會議 議題案에 對해서는 暫時뒤에 審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흥금을 터놓은 討議가 이루어져 成果를 거둘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 祝

## 辭

駐 日 大 韓 民 國  
特命全權大使 崔 慶 祿

韓日・日韓 民間合同經濟委員會 委員長, 委員 그리고 經濟界  
貴賓 여러분!

오늘 兩國 民間合同經濟委員會 第十六回 年例會議를 맞이하여  
本人이 東京에서 열린 第十四回 會議에 이어 二年만에 京都에서  
다시 여러분과 對面하여 會議의 成功을 기리는 祝辭를 하게된것  
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本人은 兩國 民間合同經濟委員會가 韓日 兩國民 相互間の 理  
解增進과 兩國間 經濟協力 強化를 爲해 끊임없이 努力하고 있는  
데 對해 깊은 敬意를 表하는 바이며 一衣帶水の 善隣協力關係를  
더욱 敦篤히 해나가기 爲해 이와같이 兩國 經濟界의 指導級 人  
士들이 한자리에 모여 眞摯하게 協議하게된 것을 眞心으로 慶賀  
하는 바입니다.

그간 韓日關係는 昨年年初 나카소네 總理閣下の 訪韓으로 비롯  
된 韓日新時代의 開幕과 더불어 諸般分野에 걸쳐 相互結束 및  
交流가 한층 強化되고 있음은 周知의 事實이며 特히 經濟關係에  
서는 定期閣僚會議를 爲始한 各種會議가 兩國의 官・民間에 頻繁  
히 開催되어 兩國間 經濟協力關係를 더욱 鞏固히 하고 있습니다.

한편 國際面에서는 蘇聯의 無慈悲한 大韓航空機 擊墜事件 및

北傀의 蠻行으로 惹起된 兩軍事件等 一連의 國際的 事件과 東西間 緊張高調라는 險難한 國際情勢 가운데 韓日 兩國의 外交的 紐帶가 加一層 緊密化하고 있으며 또한 레이건大統領의 訪日・訪韓을 契機로 再闡明된바 있는 自由民主主義 守護라는 共同理念과 東北亞의 安定과 繁榮의 達成이라는 共通目標의 追求가운데 韓日 兩國은 唇亡齒寒의 關係에 있음이 그 어느때 보다도 強調되고 있습니다.

지난 數年間 韓國은 對內外的으로 어려운 試鍊과 逆境을 겪었으며 韓半島를 圍繞한 周邊情勢는 東西 兩陳營의 尖銳化 되어가는 對立關係로 한치의 앞도 豫測을 不許하는 不安한 狀態의 連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韓國民은 全斗煥 大統領閣下를 中心으로 굳게 團結하여 이러한 難關을 슬기롭게 克服하여 왔으며 앞서 말씀드린 大韓航空機 墜落事件과 兩軍事件 및 몇차례의 不幸한 國內 經濟金融 事故의 發生에도 不拘하고 이를 슬기롭게 對處하여 이러한 事件들이 물고울 수 있는 極限的인 事態 發生을 排除하였을 뿐만 아니라 高水準의 經濟成長을 이룩하는 努力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韓國政府는 이에 그치지 않고 安定가운데서의 持續的인 成長, 國民의 福祉增進, 國際收支 改善을 통한 外債減少 등을 보다 効率的으로 達成하기 爲하여 第五次 經濟社會發展五個年計劃을 대폭 修正 推進하고 있으며 아울러 86年 아세안 게임 및 88年 서울 올림픽의 成功的인 開催를 爲해 온 國民과 더불어 모든 努力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周知하시는 바와같이 來年은 韓日 國交正常化 20

周年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韓日關係도 이제 그만큼 成長하여 成年이 되려고 하는 즈음에 있어 今後 더욱 알차고 活力있는 關係發展이 期待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關係가 年輪에 걸맞게 順坦히 發展해 오지만은 않았으며 때로는 迂餘曲折을 겪은 것도 事實입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韓日關係는 兩國間에 內在되어 있는 部分的인 問題點들을 肯定的이고 創意的인 姿勢에서 段階的으로 풀어나가는 過程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觀點에서 兩國關係 發展을 阻害하는 障礙要因을 經濟關係를 中心으로 簡單히 言及함으로써 今後의 健全한 關係發展을 爲한 試金石으로 삼고자하는 바입니다.

지난해 韓國의 對日 貿易赤字는 韓國民과 企業家들의 努力에도 不拘하고 29 億弗에 達해 我國 全體 貿易赤字 20 億弗을 크게 上廻하였으며 同時에 累計 赤字幅이 더욱 커지고 있는바 이와같은 一方的인 貿易逆調 現像은 그 主된 原因이 韓日 兩國間の 産業通商 構造上的 隔差에 있다고 할지라도 韓日關係 全般의 健全한 發展을 爲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은 明若觀火한 일일 것입니다. 이 問題는 兩國 政府次元에서의 努力뿐만 아니라 兩國民間 經濟人들 間에 虛心坦懷한 創意的인 意見交換과 誠意있는 協調, 實現可能的 解決方案 摸索努力 등으로 是正되어가야 할 것이라고 本人은 믿고 있습니다.

다음 産業技術 協力問題에 對해 말씀드리면 日本의 一部 企業人들이 短期的 眼目에서 韓國의 産業發展에 對해 지나치게 警戒

를 하고있지 않는가 하는것이 本人의 率直한 見解입니다. 日本 民間企業의 我國에 對한 圓滑한 技術協力 및 供與는 長期的인 觀點에서 볼때 韓日 貿易不均衡의 是正뿐만 아니라 兩國 經濟全 般의 共同發展을 爲해서도 크게 寄與할 것이라는 點에서 關心의 對象이 되고 있습니다.

多幸히 昨年 12月과 今年 2月에 兩國 政府間 實務者間에 産業技術協力 會議가 開催되어 韓國技能工의 日本 研修計劃에 對한 原則的인 合意가 이루어졌읍니다만, 이는 단지 始作에 不過한 것 이며 實際的인 運營과 具體的인 成果는 韓日 民間業界間의 積極 的인 協力如何에 달려있는 만큼 日本 經濟界 여러분들의 아낌없 는 協調를 期待해 마지않는 바입니다.

금번 合同委員會 會議에서는 兩國 經濟界의 指導級 人士들이 兩國 經濟關係에 對해 相互 생각하는 바를 忘憚없이 論議하고 導出된 問題點의 是正과 經濟協力の 活動強化에 關한 充分한 協 議를 함으로써 今後 韓日間의 協力 및 交流強化를 爲한 實質的 인 方案이 講究되는 同時 兩國이 共存共榮 할 수 있는 劃期的 인 契機가 이룩되기를 期待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會議期間中 兩國代表 여러분들의 健勝과 兩國 民間合同 經濟委員會의 無窮한 發展을 祈願하면서 이로써 오늘 韓日・日韓 民間合同 經濟委員會 會議開催에 따른 인사말에 갈음하는 바입니 다.

感謝합니다.

## 祝

## 辭

京 都 府 知 事

林 田 悠 紀 夫

오늘 第 16 回 日韓・韓日民間合同經濟委員會 開會式에 초대되어 祝辭을 드릴 機會를 얻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會議는 每年 東京과 서울에서 번갈아 개최되어 왔으나 금년은 이곳 京都에서 열리게 되어 이처럼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신데 對해 깊이 감사드리는 同時에 特히, 멀리 韓國으로부터 오신 여러분들에게 眞心으로 환영의 뜻을 表하는 바입니다.

京都는 千年以上 日本의 首都로서 繁榮하고, 옛부터 韓國과의 交流도 活潑했기에, 그런 만큼, 기나긴 歷史속에서 生成된 文化的, 歷史的 遺産이 豊富하며, 수백년 동안이나 축적된 技術을 살린 西陣織, 清水燒, 友禪染 등의 傳統產業이 維持, 發展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精密機械와 эл렉트로닉스 등의 尖端產業이 발달하여 日本에서도 獨自의인 地位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周知하시는 바와 같이 오래 끌었던 世界的인 不況도 昨年부터 徐徐히 수습되기 시작해서 世界貿易의 回復, 擴大가 期待되고 있습니다만, 同時에 國際關係는 多樣化하고, 여진히 保護貿易主義 등 각가지 問題點도 남아있기 때문에 世界經濟의 活性化를 위해서도 國際的인 協調가 무엇보다도 重要한 課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情勢下에서도 現在 韓國에서는 積極的인 開放政策이 추진되고 있으며, 來年の IMF 總會, 1986 年の 아시안게임, 1988 年 서

올림픽을 앞두고, 더 한층의 비약을 지향하여 매진하고 계십니다.

작년 1월 우리나라의 나카소네 首相이 訪韓하여 日韓頂上會談이 實現된 것은 아직 記憶에 새로운 바 있으며, 그때 發表된 共同聲明은 兩國의 産業技術協力 擴大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聲明의 精神을 바탕으로 兩國이 官民 兩레벨의 交流를 加一層 深化시켜 相互理解를 돈독히 함으로써, 兩國의 發展을 도모하고 또한 東아시아, 나아가서는 世界經濟의 活性化를 위한 基盤을 공고히 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兩國間에는 長時間에 걸쳐서 착실히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는 問題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로서 未來를 向해 兩國이 友好關係를 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會議에서 기탄없고 活潑한 意見交換을 통해 建設적인 解決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그러한 뜻에서도, 熱意를 갖고 兩國間の 經濟交流를 위해 진력하시는 崔大使님, 朴團長님, 日高團長님 그리고 日韓 兩國代表團 여러분의 努力에 깊은 敬意를 표하는 바입니다.

길고 추운 겨울도 다가고 歷史와 傳統의 古都 이곳 京都에도 새싹이 움트는 계절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京都의 봄을 만끽하시기 바라며, 이번 會議가 많은 성과를 거두기를 축원하면서 저의 祝辭로 대신하겠습니다.



## 經 過 報 告

昨年 4 月, 서울에서 開催된 第 15 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에서의 合意事項의 推進狀況 및 兩側 委員會의 그동안의 活動狀況을 報告드리겠습니다.

먼저 各 專門委員會 活動狀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第 11 回 韓日・日韓貿易擴大均衡委員會 合同會議는 昨年 10 月 新瀉市에서,

第 9 回 韓日・日韓機械工業協力專門委員會 合同會議는 昨年 4 月 濟州市에서,

第 4 回 韓日・日韓經濟協力長期構想研究委員會 合同會議는 昨年 9 月 서울에서,

그리고 第 2 回 韓日・日韓中堅・中小企業協力專門委員會 合同會議는 今年 3 月 서울에서,

各各 開催되었습니다.

以上 4 個專門委員會의 活動에 關한 內容은 내일 全體會議에서 各 委員會의 日本側委員長이 報告드리겠습니다.

다음 第 15 回 合同委員會 會議에서 合意된 事項等の FOLLOW-UP 狀況의 概要에 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尖端技術移轉을 促進하기 위해, 이를 支援하기 위한 窓口로서 日本側은 日韓經濟協會, 韓國側은 韓日經濟協會가 各各 擔當하기로 確定되고, 昨年 9 月부터 韓國側으로부터 約 20 件의 技術移轉

要請이 있었습니다. 日本側은 이러한 要請을 日本側의 企業 내지는 機關에 알선, 그 回答을 韓國側에 보냈습니다.

또 日本의 尖端技術現況을 紹介하기 위해, 昨年 10 月에 「産業用로봇」, 今年 1 月에는 「컴퓨터를 利用한 印刷技術」에 關한 세미나를 韓日・日韓兩經濟協會 主催로 서울에서 開催했습니다만, 4 月 以後에도 계속해서 이러한 種類의 세미나를 開催할 豫定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韓國技術者・技能工의 日本內研修에 關해서는, 兩側委員會가 關係當局等에 積極的으로 折衝한 結果, 昨年 5 月の 政府베이스 貿易會議 以後 韓國中小企業의 技術者研修를 받아들일 것에 原則的으로 合意하고, 現在 研修計劃의 最終的인 確定段階에 들어가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빠르면 今年 가을부터 日本側 民間企業에서 研修가 實施될 것으로 豫想됩니다.

貿易關係에 있어서의 兩國側의 提案에 關해서는, 日本側은 韓國側이 要望한 關稅・非關稅上の 緩化措置等에 關해, 韓國側은 日本側이 要望한 在韓商社 STATUS, 課稅改善等에 關해 各各 關係當局에 傳達하고 善處를 要請했으며, 第 15 回 合同委員會 會議에서 論議된 貿易不均衡 是正을 위한 地域別 對韓購買使節團을 派遣할 것에 合意한 事項을 계속 推進하여 왔으며 今年中 實現이 可能하도록 努力하고 있습니다.

또한 韓國側은 日本側으로부터 要請이 있었던 海運協力에 關해서도, 그 內容을 政府 및 關係團體에 傳達했습니다.

以上으로 經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 議

## 題

### 1. 日本의 自由化政策과 民間의 對應：日本側 說明

植田三男 日商岩井(株) 社長

### 2. 韓國의 第5次 經濟社會發展5個年計劃 修正內容과 開放體制：

韓國側 說明

金 英 泰 經濟企劃院 投資審查局長

### 3. 各 委員會 報告

- (1) 第11回 韓日・日韓貿易擴大均衡委員會 合同會議
- (2) 第9回 韓日・日韓機械工業協力專門委員會 合同會議
- (3) 第4回 韓日・日韓經濟協力長期構想研究委員會 合同會議
- (4) 第2回 韓日・日韓中堅・中小企業協力專門委員會 合同會議

### 4. 日本의 對韓技術協力에 關하여

#### A. 韓國側 提案

- (1) 技能工・技術者 訓練
- (2) 技術協力實務委員會 構成

日本側 答辯

#### B. 日本側 提案

對韓技術協力の 環境整備에 關하여

韓國側 答辯

5. 貿易増進

A. 韓國側 要請

- (1) 貿易擴大均衡協力에 對한 韓國側 要請
- (2) 大型購買使節團 派韓要請 ( SITRA 開催時 )

日本側 答辯

B. 日本側 要請

- (1) 在韓商社 STATUS 와 韓國의 輸入多邊化에 關하여
- (2) 在韓 日本企業에 對한 課稅에 關하여 :

韓國側 答辯

6. 海運協力에 關하여 :

日本側 提案

韓國側 答辯

7. 國交正常化 20 周年 行事を 위한 準備委員會 設置 :

韓國側 提案 및 日本側 答辯

# 韓國側 代表者 名單

(가나다順)

|     | 姓 | 名               | 團體／會社職位 | 團體／會社名      |
|-----|---|-----------------|---------|-------------|
| 顧問  | 柳 | 琦 諄             | 會長      | 中小企業協同組合中央會 |
|     |   | RYU KI JUNG     |         |             |
| "   | 鄭 | 壽 昌             | 會長      | 大韓商工會議所     |
|     |   | CHUNG SOO CHANG |         |             |
| "   | 鄭 | 周 永             | 會長      | 全國經濟人聯合會    |
|     |   | CHUNG JU YUNG   |         |             |
| 團長  | 朴 | 泰 俊             | 會長      | 韓日經濟協會      |
|     |   | PARK TAE JOON   | 會長      | 浦項綜合製鐵(株)   |
| 副團長 | 朴 | 龍 學             | 副會長     | 韓日經濟協會      |
|     |   | PARK YONG HAK   | 副會長     | (株)大 茂      |
| "   | 李 | 孟 基             | 副會長     | 韓日經濟協會      |
|     |   | LEE MAENG KEE   | 副會長     | 大韓海運(株)     |
| "   | 鄭 | 世 永             | 副會長     | 韓日經濟協會      |
|     |   | CHUNG SE YUNG   | 副會長     | 現代自動車(株)    |
| "   | 鄭 | 寅 旭             | 副會長     | 韓日經濟協會      |
|     |   | CHUNG IN WOOK   | 副會長     | 江原產菜(株)     |
| "   | 趙 | 重 勳             | 副會長     | 韓日經濟協會      |
|     |   | CHO CHOONG HOON | 副會長     | (株)大韓航空     |
| 團員  | 姜 | 信 雨             | 會長      | 浦項商工會議所     |
|     |   | KANG SHIN WOO   |         |             |

|     | 姓    | 名           | 團體／會社職位      | 團 體／會 社 名   |
|-----|------|-------------|--------------|-------------|
| 團 員 | 姜    | 信 浩         | 會 長          | 東亞製藥(株)     |
|     | KANG | SHIN HO     |              |             |
| "   | 姜    | 晉 求         | 社 長          | 三星半導體通信(株)  |
|     | KANG | JIN KU      |              |             |
| "   | 桂    | 鳳 赫         | 副 會 長        | 韓國貿易協會      |
|     | KAY  | BONG HYUK   |              |             |
| "   | 權    | 載 斗         | 副 社 長        | 高麗製鋼(株)     |
|     | KWON | JAE DOO     |              |             |
| "   | 金    | 珪 中         | 會 長          | (株) 京 紡     |
|     | KIM  | KAK CHOONG  |              |             |
| "   | 金    | 啓 鎬         | 理 事          | 中小企業振興公團    |
|     | KIM  | KE HO       |              |             |
| "   | 金    | 光 英         | 理 事 局 長      | 大韓商事仲裁院     |
|     | KIM  | KWANG YOUNG |              |             |
| "   | 金    | 都 亨         | 首席研究員        | 國土開發研究院     |
|     | KIM  | DO HYUNG    |              |             |
| "   | 金    | 斗 河         | 社 長          | 三華化成(株)     |
|     | KIM  | DOO HA      |              |             |
| "   | 金    | 善 根         | 社 長          | 亞細亞綜合金融(株)  |
|     | KIM  | SUN KEUN    |              |             |
| "   | 金    | 壽 根         | 社 長          | 大成酸素(株)     |
|     | KIM  | SOO KEUN    |              |             |
| "   | 金    | 仁 得         | 會 長          | 東洋物産(株)     |
|     | KIM  | IN DEUK     |              |             |
| "   | 金    | 正           | 日本駐在事務<br>所長 | 韓國產業經濟技術研究院 |
|     | KIM  | JUNG        |              |             |
| "   | 金    | 周 南         | 會 長          | 韓國機械工業振興會   |
|     | KIM  | JOO NAM     |              |             |

|     | 姓                | 名   | 團體／會社職位 | 團 體／會 社 名  |
|-----|------------------|-----|---------|------------|
| 團 員 | 金                | 昌 星 | 社 長     | (株) 全 紡    |
|     | KIM CHANG SUNG   |     |         |            |
| "   | 閔                | 錫 源 | 會 長     | 正友開發(株)    |
|     | MIN SUK WON      |     |         |            |
| "   | 朴                | 魯 聖 | 社 長     | (株)元伸實業    |
|     | PARK RO SUNG     |     |         |            |
| "   | 朴                | 相 鎬 | 副 社 長   | (株)리키金星商事  |
|     | PARK SANG HO     |     |         |            |
| "   | 朴                | 銖 得 | 副 社 長   | (株)振盛레이컨   |
|     | PARK SU DEUK     |     |         |            |
| "   | 朴                | 承 復 | 社 長     | 샘표食品工業(株)  |
|     | PARK SEUNG BOK   |     |         |            |
| "   | 朴                | 正 雄 | 理 事     | (株)大 農     |
|     | PARK CHUNG WOONG |     |         |            |
| "   | 白                | 文   | 社 長     | 韓國綜合技術開發公社 |
|     | PAIK MOON        |     |         |            |
| "   | 白                | 亨 一 | 理 事     | 韓國纖維產業聯合會  |
|     | PAIK HYUNG IL    |     |         |            |
| "   | 徐                | 廷 翰 | 社 長     | 韓國合金鐵工業(株) |
|     | SUH CHUNG HAN    |     |         |            |
| "   | 孫                | 烈 鎬 | 社 長     | 東洋錫鋁工業(株)  |
|     | SOHN YUL HO      |     |         |            |
| "   | 孫                | 弼 榮 | 日本駐在所長  | 韓國產業銀行     |
|     | SOHN PILL YOUNG  |     |         |            |
| "   | 申                | 奉 植 | 專 務     | 全國經濟人聯合會   |
|     | SHIN BONG SHIK   |     |         |            |
| "   | 安                | 秉 華 | 社 長     | 東進製鋼(株)    |
|     | AHN BYONG WHA    |     |         |            |

|     | 姓     | 名          | 團體／會社職位 | 團 體 / 會 社 名   |
|-----|-------|------------|---------|---------------|
| 團 員 | 嚴     | 彬          | 會 長     | 三美綜合特殊鋼(株)    |
|     | UM    | BIN        |         |               |
| "   | 禹     | 榮 泰        | 理 事     | 三星物產(株)       |
|     | WOO   | YOUNG TAE  |         |               |
| "   | 柳     | 續 佑        | 會 長     | 豐山金屬工業(株)     |
|     | RYU   | CHAN U     |         |               |
| "   | 尹     | 相 俊        | 會 長     | 韓國鋼管(株)       |
|     | YUN   | SANG JOON  |         |               |
| "   | 尹     | 在 植        | 專 務     | 韓國染色工業協同組合聯合會 |
|     | YOON  | JAE SCHIK  |         |               |
| "   | 李     | 爽 熙        | 會 長     | 大字自動車(株)      |
|     | RHEE  | SUK HI     |         |               |
| "   | 李     | 鍾 壽        | 社 長     | 서울鑄鐵工業(株)     |
|     | LEE   | JONG SOO   |         |               |
| "   | 李     | 柱 範        | 社 長     | (株) 雙 龍       |
|     | LEE   | CHOU BOM   |         |               |
| "   | 李     | 竣 鎔        | 社 長     | 大林產業(株)       |
|     | LEE   | JOON YONG  |         |               |
| "   | 李     | 春 林        | 會 長     | 現代重工業(株)      |
|     | LEE   | CHOON LIM  |         |               |
| "   | 李     | 會 林        | 會 長     | 東洋化學工業(株)     |
|     | LEE   | HOI RIM    |         |               |
| "   | 李     | 孝 益        | 社 長     | 三益樂器製造(株)     |
|     | LEE   | HYO ICK    |         |               |
| "   | 李     | 勳 東        | 會 長     | 朝鮮耐火化學工業(株)   |
|     | LEE   | HOON DONG  |         |               |
| "   | 張     | 炳 贊        | 社 長     | 利川電機工業(株)     |
|     | CHANG | BYUNG CHAN |         |               |



|     | 姓 名                      | 團體／會社職位 | 團 體 ／ 會 社 名 |
|-----|--------------------------|---------|-------------|
| 團 員 | 全 九 百<br>JEON KOO BAIK   | 會 長     | (株) 釜鐵化學    |
| "   | 全 在 球<br>CHUN JAE KU     | 常 任 顧 問 | 大韓凌濞公社      |
| "   | 趙 哲 行<br>CHO CHUL HENG   | 常 務     | 現代綜合商事(株)   |
| "   | 車 有 培<br>CHAR YOO BAE    | 常 任 顧 問 | 럭키金星그룹      |
| "   | 崔 光 政<br>CHOI KWANG JUNG | 副 會 長   | 韓國電子工業振興會   |
| "   | 崔 周 善<br>CHOI CHOO SUN   | 副 會 長   | 韓日經濟協會      |
|     | 崔 鍾 煥<br>CHOI CHONG WHAN | 會 長     | 三煥企業(株)     |
| 幹 事 | 申 德 鉉<br>SHIN DUK HYUN   | 理 事     | 韓日經濟協會      |
| "   | 洪 潤 植<br>HONG YUN SHIK   | 企 劃 委 員 | 韓日經濟協會      |
| "   | 李 奉 柱<br>LEE BONG JOO    | 調 查 役   | 韓國貿易協會      |
| "   | 許 南 整<br>HUH NAM JUNG    | 課 長     | 韓日經濟協會      |
| "   | 尹 乙 順<br>YUN YEUL SOON   | 社 員     | 韓日經濟協會      |

## 日 本 代 表 団 名 簿

|     |                  |                  |                                  |
|-----|------------------|------------------|----------------------------------|
| 顧問  | 稲 山<br>INAYAMA   | 嘉 寛<br>YOSHIHIRO | 日韓経済委員会顧問<br>(社)経済団体連合会会長        |
| 顧問  | 安 藤<br>ANDO      | 豊 祿<br>TOYOROKU  | 日韓経済委員会顧問<br>小野田 CEMENT ㈱相談役     |
| 顧問  | 赤 澤<br>AKAZAWA   | 璋 一<br>SHOICHI   | 日韓経済委員会顧問<br>日本貿易振興会理事長          |
| 団 長 | 日 高<br>HIDAKA    | 輝<br>TERU        | 日韓経済委員会委員長<br>山一証券㈱相談役           |
| 副団長 | 大 島<br>OHSHIMA   | 健 司<br>KENJI     | 日韓経済委員会副委員長<br>小野田 CEMENT ㈱取締役社長 |
| 副団長 | 五 島<br>GOTO      | 昇<br>NOBORU      | 日韓経済委員会副委員長<br>東京急行電鉄㈱取締役社長      |
| 団 員 | 永 田<br>NAGATA    | 敬 生<br>TAKAO     | 日立造船㈱代表取締役                       |
| 団 員 | 梅 田<br>UMEDA     | 善 司<br>ZENJI     | 川崎重工業㈱取締役会長                      |
| 団 員 | 小 林<br>KOBAYASHI | 大 祐<br>TAIYU     | 富士通㈱代表取締役会長                      |

|     |                 |                  |                                 |
|-----|-----------------|------------------|---------------------------------|
| 団 員 | 富 永<br>TOMINAGA | 鐵 男<br>TETSUO    | ㈱東京食取締役会長                       |
| 団 員 | 能 村<br>NOHMURA  | 龍 太 郎<br>RYOTARO | 太陽工業㈱取締役会長                      |
| 団 員 | 植 田<br>UEDA     | 三 男<br>MITSUO    | 日商岩井㈱取締役社長                      |
| 団 員 | 阿 部<br>ABE      | 栄 夫<br>HIDEO     | 富士電機製造㈱取締役社長                    |
| 団 員 | 増 田<br>MASUDA   | 元 一<br>MOTOICHI  | 国際電信電話㈱取締役社長                    |
| 団 員 | 合 田<br>GODA     | 茂<br>SHIGERU     | 住友重機械工業㈱取締役社長                   |
| 団 員 | 秋 田<br>AKITA    | 兼 三<br>KENZO     | 日韓経済協力長期構想研委員長<br>㈱第一HOTEL取締役社長 |
| 団 員 | 石 井<br>ISHII    | 正 巳<br>MASAMI    | 三井物産㈱取締役副会長                     |
| 団 員 | 長<br>CHO        | 亨<br>TORU        | 東洋 ENGINEERING 取締役副             |
| 団 員 | 瀬 島<br>SEJIMA   | 龍 三<br>RYUZO     | 伊藤忠商事㈱相談役                       |
| 団 員 | 鉄 谷<br>TETSUYA  | 一 夫<br>ICHIO     | 伊藤忠商事㈱取締役副社長                    |
| 団 員 | 長 村<br>NAGAMURA | 登 志 雄<br>TOSHIO  | ㈱東京銀行取締役副頭取                     |
| 団 員 | 湍 川<br>URAKAWA  | 清 人<br>KIYOTO    | 日韓機械工業協力委委員長<br>石川島播磨重工業㈱常任顧問   |

|    |                  |                  |                                      |
|----|------------------|------------------|--------------------------------------|
| 団員 | 京 本<br>KYOMOTO   | 善 治<br>ZENJI     | 日韓貿易拡大均衡委委員長<br>（財）日本貿易会専務理事         |
| 団員 | 渡 邊<br>WATANABE  | 禮 之<br>YOSHIYUKI | 日韓中堅・中小企業協力委委員長<br>東京商工会議所中小企業委員会委員長 |
| 団員 | 小 谷<br>KOTANI    | 隆 一<br>RYUICHI   | 京都商工会議所副会頭<br>イセト紙工協取締役社長            |
| 団員 | 古 川<br>FURUKAWA  | 敏 一<br>TOSHIICHI | 京都商工会議所副会頭<br>古川勘協取締役社長              |
| 団員 | 山 形<br>YAMAGATA  | 栄 治<br>EIJI      | 新日本製鉄協専務取締役                          |
| 団員 | 荒 瀬<br>ARASE     | 晃 二<br>KOJI      | 三井造船協専務取締役                           |
| 団員 | 永 峰<br>NAGAMINE  | 貞 吉<br>SADAYOSHI | 住友商事協専務取締役                           |
| 団員 | 吉 元<br>YOSHIMOTO | 利 彦<br>TOSHIHIKO | 協神戸製鋼所専務取締役                          |
| 団員 | 西 尾<br>NISHIO    | 知<br>SATORU      | 丸紅協専務取締役                             |
| 団員 | 野 村<br>NOMURA    | 喜 久 雄<br>KIKUO   | NICHIMEN 協専務取締役                      |
| 団員 | 村 中<br>MURANAKA  | 嘉 直<br>YOSHINAO  | 大倉商事協専務取締役                           |
| 団員 | 杉 原<br>SUGIHARA  | 俊 一<br>SHUNICHI  | 川鉄商事協専務取締役                           |
| 団員 | 藤 塚<br>FUJITSUKA | 亮 策<br>RYOSAKU   | 三菱重工業協常務取締役<br>機械事業本部長               |
| 団員 | 山 田<br>YAMADA    | 泰 三<br>TAIZO     | 三菱商事常務取締役                            |

|     |                   |                    |                                      |
|-----|-------------------|--------------------|--------------------------------------|
| 団 員 | 武 藤<br>MUTO       | 稱 一 郎<br>SHOICHIRO | (株)TOMEN 常務取締役                       |
| 団 員 | 大 永<br>OHNAGA     | 勇 作<br>YUUSAKU     | 富士通(株)常務取締役                          |
| 団 員 | 辻<br>TSUJI        | 和 三 郎<br>WASABURO  | 日本輸出入銀行理事                            |
| 団 員 | 望 月<br>MOCHIZUKI  | 嘉 幸<br>YOSHIYUKI   | (株)日本興業銀行常務取締役                       |
| 団 員 | 竹 内<br>TAKEUCHI   | 宏<br>HIROSHI       | (株)日本長期信用銀行常務取締役                     |
| 団 員 | 岩 井<br>IWAI       | 靖<br>YASUSHI       | ORIENT LEASE(株)常務取締役                 |
| 団 員 | 河 井<br>KAWAI      | 雅<br>MASASHI       | (株)KDD ENGINEERING & CONSULTING 常務理事 |
| 団 員 | 宇 田 川<br>UDAGAWA  | 浩 佑<br>HIROSUKE    | 山一証券(株)取締役国際本部<br>副本部長               |
| 団 員 | 面 川<br>OMOKAWA    | 安 之<br>YASUYUKI    | 兼松江商(株)取締役                           |
| 団 員 | 三 松<br>MITSUMATSU | 奎 作<br>KEISAKU     | (株)日本興業銀行取締役                         |
| 団 員 | 永 利<br>NAGATOSHI  | 久 志<br>HISASHI     | 東京急行電鉄取締役政策室長                        |
| 団 員 | 三 好<br>MIYOSHI    | 正 也<br>MASAYA      | (社)経済団体連合会常務理事                       |
| 団 員 | 瀧<br>TAKI         | 隆 明<br>TAKAAKI     | 東京商工会議所常務理事<br>日本商工会議所参与             |
| 団 員 | 功 力<br>KUNUGI     | 喜 久 男<br>KIKUO     | (社)日本貿易会常務理事                         |

|     |            |           |                               |
|-----|------------|-----------|-------------------------------|
| 団 員 | 三 上        | 良 造       | (社)日本船主協会常務理事                 |
|     | MIKAMI     | RYOZO     |                               |
| 団 員 | 牧 田        | 孝 二 郎     | 三菱電機㈱理事海外事業本部<br>副本部長         |
|     | MAKITA     | KOJIRO    |                               |
| 団 員 | 信 藤        | 純 生       | 日立造船㈱理事社長室副室長                 |
|     | NOBUTO     | SUMIO     |                               |
| 団 員 | 八 木        | 芳 樹       | 三菱重工業㈱機械事業本部事業<br>本部長代理       |
|     | YAGI       | YOSHIKI   |                               |
| 団 員 | 染 谷        | 真 一       | 川崎重工業㈱市場開発室<br>海外開発部長         |
|     | SOMEYA     | SHINICHI  |                               |
| 団 員 | 森          | 紀 二       | ㈱第一HOTEL企画部部長                 |
|     | MORI       | MOTOJI    |                               |
| 団 員 | 中 川        | 和 次       | ㈱東京銀行国際企画部長                   |
|     | NAKAGAWA   | KAZUTSUGU |                               |
| 団 員 | 榊 原        | 三 郎       | 日商岩井㈱海外業務部<br>ASIA大洋州室長       |
|     | SAKAKIBARA | SABURO    |                               |
| 団 員 | 山 崎        | 瑋         | 三井物産㈱海外業務部アジア室長               |
|     | YAMASAKI   | AKIRA     |                               |
| 団 員 | 榊          | 美 温       | 石川島播磨重工業㈱輸出営業本部<br>国際業務グループ部長 |
|     | SAKAKI     | YOSHITADA |                               |
| 団 員 | 北 井        | 俊 夫       | 豊田通商㈱ SEOUL 支店長               |
|     | KITAI      | TOSHIO    |                               |
| 団 員 | 木 戸        | 健 二       | 大倉商事㈱第一鉄鋼貿易部次長                |
|     | KIDO       | KENJI     |                               |
| 団 員 | 庄 野        | 正 則       | 大阪商船三井船舶㈱定航一部<br>副部長          |
|     | SHONO      | MASANORI  |                               |
| 団 員 | 大 浦        | 邦 義       | 京都商工会議所国際部長                   |
|     | OHURA      | KUNIYOSHI |                               |

|    |           |          |                         |
|----|-----------|----------|-------------------------|
| 団員 | 杉 本       | 道 夫      | 大阪商工会議所国際部長             |
|    | SUGIMOTO  | MICHIO   |                         |
| 団員 | 桜 井       | 泰        | ㈱経済団体連合会経済協力部部長         |
|    | SAKURAI   | YASUSHI  |                         |
| 団員 | 古 澤       | 實        | ㈱日本貿易会企画部長              |
|    | FURUSAWA  | MINORU   |                         |
| 団員 | 石 井       | 満        | 日本商工会議所経済協力部長           |
|    | ISHII     | MITSURU  |                         |
| 団員 | 福 島       | 昌 治      | 三菱重工業㈱社長室海外部<br>部長代理    |
|    | FUKUSHIMA | MASAHARU |                         |
| 団員 | 奥 原       | 芳 夫      | ㈱日立製作所国際事業本部<br>渉外部部長代理 |
|    | OKUHARA   | YOSHIO   |                         |
| 団員 | 波 多 野     | 千 之      | ㈱日本長期信用銀行調査部<br>主任部員    |
|    | HATANO    | CHIYUKI  |                         |
| 団員 | 峯         | 和 男      | ㈱富士銀行秘書室長代理             |
|    | MINE      | KAZUO    |                         |
| 団員 | 小 山       | 要        | 東京芝浦電気㈱国際部課長            |
|    | KOYAMA    | KANAME   |                         |
| 団員 | 安 西       | 正 昭      | ㈱三井銀行国際部アジア課長           |
|    | ANZAI     | MASAAKI  |                         |
| 随員 | 久 保       | 恭 一      | 東京急行電鉄㈱政策室主査            |
|    | KUBO      | KYOICHI  |                         |
| 随員 | 波 戸       | 覚        | 東京急行電鉄㈱政策室副参事           |
|    | HATO      | SATORU   |                         |
| 随員 | 久 保 木     | 一 政      | 三菱商事業務部アジアチーム           |
|    | KUBOKI    | KAZUMASA |                         |

|     |           |            |                      |
|-----|-----------|------------|----------------------|
| 事務局 | 高橋        | 栄一         | 日韓経済協会事務局長           |
|     | TAKAHASHI | EIICHI     |                      |
| "   | 太田        | 元          | 日経済団体連合会経済協力部<br>調査役 |
|     | OHTA      | HAJIME     |                      |
| "   | 中島        | 慶之助        | 日韓経済協会参与             |
|     | NAKAJIMA  | KEINOSUKE  |                      |
| "   | 林         | 芳典         | 日韓経済協会専務理事付          |
|     | HAYASHI   | YOSHINORI  |                      |
| 事務局 | 木村        | 宏和         | 日韓経済協会調査弘報室長         |
|     | KIMURA    | HIROKAZU   |                      |
| "   | 阿部        | 好秀         | 日韓経済協会経理課長           |
|     | ABE       | YOSHIIHIDE |                      |
| "   | 真下        | 仁志         | 京都商工会議所国際部           |
|     | MASHIMO   | HITOSHI    |                      |
| "   | 小島        | 孝夫         | 日日本貿易会企画部            |
|     | KOJIMA    | TAKAO      |                      |



## 〈基調演說〉

### 韓日經濟交流의 原點

— 知識・情報産業社會와 世代交替를 맞아 —

國土開發研究院

首席研究員 金都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日韓經濟委員會의 日高 輝委員長 日本側 代表團, 그리고 韓日經濟委員會의 朴泰俊委員長을 비롯한 韓國側 代表여러분.

오늘 日本人의 故都인 京都에서 開催되는 第16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에서, 日本에서 공부한 經濟學徒의 한 사람으로서, 兩國間의 交流에 관한 몇 가지 平素의 생각을 말씀드릴 機會를 얻게 된 것을 크나큰 榮光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昨年까지 世界經濟는 石油危機를 契機로 停滯를 계속했지만, 高金利政策의 美國이 回復으로 轉換되었고, 유럽 역시 活氣를 되찾았으며, 日本도 減量經營의 어려운 時期를 克服하고 드디어 景氣가 回復되었습니다. 그 밖에 一部 開發途上國이 累積債務때문에 모처럼의 開發努力의 成果가 擧揚되지 못하고 現在까지의 開發戰略을 再檢討하지 않으면 안될 狀況下에서, NICS라 불리워지는 몇몇 東아시아와 東南아시아의 發展이 두드러지게 對照的인 눈으로 注目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各國의 經濟環境은 相異하지만, 몇몇 나라를 除外하면, 絶對貧困國은 없어져가고 있으며, 從來의 工業社會는 急速度로 情報化가 進展되고 있습니다. 이와 同時에 이

러한 社會에 사는 사람들은 따지기를 좋아하며 理論만 캐려 들고, 모든 것을 相對的인 尺度로 재려고 합니다.

21 世紀를 앞두고 國際經濟社會의 安定的인 發展을 위한 兩國의 役割은 점점 커지고, 既存의 國際社會 및 相互依存關係에 대한 影響도 큼니다. 여기서 본인은 여전히 保護貿易의 障壁이 높은 가운데 兩國間的 相互信賴와 友情을 確認하고, 더욱더 굳건히 하고자 念願하고 있습니다.

## I. 世代間的 調和와 國際交流

韓國은 日本과 마찬가지로 資源이 不足할 뿐 아니라 技術水準이 낮고, 相對的으로 너무 많은 人口를 扶養하고 있으며, 그리고 生活水準을 높이기 위해서는 國民經濟環境에 있어서 對外依存度를 높이는 方法을 취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1960 年代 부터 70 年代 中半에 걸친 勞動集約的 輸出主導型의 工業化에 의해, 產業・貿易構造는 高度化하고, 慢性的인 失業과 絶對的인 貧困은 解消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에 滿足하지 않고 國際競爭力의 向上, 經濟的自主性的 確立, 그리고 福祉社會의 基礎確立을 위해, 重化學工業化的 意慾에 불탔습니다.

그러나 不幸하게도 資源制約化的 世界經濟의 停滯와 國內의 技能・技術者の 不足때문에, 巨視經濟運營을 軌道修正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物價安定下에서의 着實한 生産性向上에 의해서만이 實質輸出이 增大하고, 國民經濟의 質的인 向上이 可能하다고 하는

國民的合意에 達했던 것 입니다. 後發利益이라고 하는 것도 그  
것을 享有하기 위해서는, 머리로 論理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  
라, 스스로 비지땀을 흘리면서 經驗을 쌓아가는 것이 重要합니다.  
그 동안에 이웃나라의 여러분에게 對抗意識을 갖고, 같은 잘못은  
反復하지 않겠다고 必死的으로 해 왔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  
다. 그 덕분에 中進國, 先發途上國 또는 NICS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中進國의 追擊, 다른 한편으로는  
經濟格差論이 있어, 國際分業의 向方은 文字 그대로 不確實합니다.  
그러나, 國境을 넘어가는 財貨, 서비스가운데는 그 나라의 技術은  
유감없이 體化되고, 最終消費者의 嚴格한 눈초리도 피할 수 없습  
니다. 兩國間의 品質格差는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여러분들  
께서는 생각하고 계시지 않는지요?

最近의 研究(「日韓總合生産性研究」 日本生産性本部, 1981. 7)  
를 살펴보더라도, 政治不安, 技術레벨의 水準, 市場의 狹小, 反日感情等을 指摘하면서도, 賃金이 相對的으로 싸다는 點과 優秀한 勞  
動力을 理由로, 日本企業의 50%以上이 韓國과의 垂直的인 分業  
내지는 이에 水平的인 方式을 加味한 形態의 國際分業을 希望하  
고 계십니다. 확실히 몇년 前과 比較해보면 어려운 狀況에 처  
해 있으며, 韓國市場에 있어서의 魅力은 적어졌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韓國企業의 60%以上이 日本의 Borrowed Technology 를  
必要로 하고 있습니다. 日本의 境遇, 大企業이, 韓國의 境遇에는  
中小企業이 보다 많이 國際分業을 希望하고 있다는 點으로, 이와  
같은 兩國의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對應姿勢의 差異는, 兩國間과

兩國內의 競爭條件과 技術吸收能力의 差異를 反映하는 것으로서, 興味깊은 現象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 마디로 얘기해서, 日本의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慎重하신데 比해서, 우리 쪽은 積極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바야흐로 戰後世代는 總人口의 70%, 國交正常化의 해에 태어나서, 今年度에 待望의 大學에 進學하는 젊은이는 30%를 占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젊은 世代가 부모들이 겪은 고생을 모르고 자랐다는 것은 틀림없는 事實이지만, 情報社會에 익숙해진 탓인지 모든 일에 대단히 敏感하고 多樣하며 合理的인 價値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人口와 就業構造의 高齡化와 서비스化가 進行되는 가운데 安定的인 成長을 圖謀하기 위해서는, 社會保障을 包含한 國民經濟의 運營 및 國際經濟에서의 役割에 관해서, 젊은 世代와 既成世代間의 日常對話가 重要하다고 생각합니다. 政府의 保護의 惠澤을 받으며, 인플레이에 젖은 經營體質로서는 젊은이들의 活力을 불러 일으키지 못하며, 兩國의 經濟交流의 方式도 이러한 젊은 世代가 納得할 수 있는 方向으로 해 나가는 것이, 지금의 우리들에게 부과된 課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觀點에서 以下 經濟交流의 몇 가지 側面에 관해 살펴 보고자 합니다.

## II. 貿易의 擴大均衡

韓日國交正常化에 앞서 日本經濟調查協會와 韓國生産性本部가 實施했던, 兩國間의 經濟協力에 관한 20年前的의 提案에 귀를 기울

러 보기로 합시다.

「……兩國은 貿易의 擴大均衡을 指向해야 한다. 이 目標을 達成하기 위해서……日本側은……1次產品의 輸入을 擴大……, 水産物에 關係서는 輸入制限을 大幅 緩和하고,……韓國側은……纖維製品 其他 他工業製品의 對日輸出擴大를 圖謀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日本으로부터의 商業借款・民間投資 또는 技術協力을 크게 活用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最近 日本의 經濟企劃廳 經濟研究所의 共同研究(「日本을 둘러싼 國際的인 産業・貿易構造分析을 위한 産業・貿易모델의 開發과 應用」, 1982年)에서, 다음 事項이 明白해져 있습니다.

첫째, <表 1>에서 알 수 있듯이, 輸入 10% 增加가 相對國의 輸出에 미치는 效果를, 韓國・日本・美國의 3個國을 對比해 보면, 日本과 韓國은, 美國과 比較해 볼 때 商品貿易의 依存도가 함께 크고, 相對적으로는 韓國의 對美依存도가 日本에 비해 커진다는 점입니다. 이것으로 第3國市場에 있어서의 韓日競爭關係를 論하는 것은 너무도 短見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한 나라의 貿易構造가 高度化하기 위해서는, 먼저 輸出의 規模보다는 그 安定性이 維持될 必要性이 있으며, 이는 短期的으로는 不可能합니다. 그런 뜻에서 日本은 이미 輸出市場의 多邊化를 꾀하고, 美國 및 歐洲市場에 있어서 安定된 シェア를 維持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表 1〉 輸入 10 % 増加 및 輸出價格低下의 效果 (%)

|                      |    | 韓國        | 日本        | 美國        |                           |    | 韓國          | 日本   |
|----------------------|----|-----------|-----------|-----------|---------------------------|----|-------------|------|
| (1) 輸入<br>10 %<br>増加 | 韓國 | -         | 0.4 ~ 0.7 | 0.1 ~ 0.2 | (2) 輸出<br>價格<br>10%<br>低下 | 韓國 | 20.3 ~ 37.2 | -0.7 |
|                      | 日本 | 2.5 ~ 3.3 | -         | 1         |                           | 日本 | -9.0        | 9.8  |
|                      | 美國 | 2.0 ~ 5.5 | 2.5 ~ 3.4 | -         |                           |    |             |      |

두번째로, 輸出의 低下가 相對國의 輸出에 미치는 負의 效果를 兩國間에 對比해 보면, 同一한 輸出價格의 低下라 할지라도 韓國의 輸出減少率은 日本과 比較해 볼 때 대단히 크다는 점입니다. 이 境遇에 韓國의 輸出은 伸張되더라도 規模가 작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輸出쇄어에는 影響을 끼치지 못하며 日本의 輸出減少率은 다른 나라에 비해 크지만, 輸入에 대한 影響은 적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輸出價格의 低下는, 兩國의 産業・貿易構造와 國際社會의 變化라는 점에서 보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세번째로, 日本의 關稅引下는, 輕工業中心의 輸出構造를 가진 나라에서는 有利하게, 機械工業의 境遇에는 逆으로 不利하게 作用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韓國의 輸出構造가 高度化하면, 兩國의 貿易擴大均衡에 미치는 負의 效果는 커집니다. 오히려 日本國內物價의 引下에 의한 國內市場擴大를 통해서 日本經濟의 퍼포먼스를 高揚시켜서, 第3國市場에 있어서의 競爭은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兩國의 産業・技術・貿易構造로 생각해 볼 때,

貿易擴大均衡을 위해서는 日本의 輸入增加(10% 輸入增加 → 韓國의 輸出 2.8% 增加)가 가장 바람직한 政策手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長期的으로는 日本의 市場經濟의 메카니즘이 보다 効率的으로 作用하게도 됩니다. 이 境遇 一時的인 生産・雇傭의 減少는 避할 수 없겠습니다만, 産業調整과 財政・金融政策의 有効한 運用에 의해, 市場開放의 効果는 加一層 強해진다고 생각됩니다. 特히, 財政・金融政策의 實行에 있어서는, 過剩流動性期에 보여졌던 것처럼, 인플레이를 진정시키는데 급급해서 過度한 緊縮政策을 實施함으로써 円貨強勢를 招來한다고 하는 歷史的인 敎訓을 살릴 必要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以上, 극히 單純한 假定에 바탕을 둔 모델풀이로 貿易擴大均衡의 方法을 모색해 보았으나, 同모델은, 兩國에서의 供給制約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韓國의 供給制約이 있다고 한다면 日本으로 부터의 모처럼의 輸入增加가 있더라도 GDP의 增大에는 이어지지 않고, 短期的으로는 國內物價의 上昇(價格調整), 長期的으로는 輸入增大(數量調整)에 의해서, 國內物價는 安定된다 해도 自給率은 低下되고, 貿易不均衡은 또다시 擴大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現在와 같은 國際分業體制下에서는, 單純한 市場開放과 換率調整이라는 需要사이드의 政策手段은, 兩國의 貿易擴大와 經濟交流의 長期安定化에는 有益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技術移轉은, 韓國의 供給制約을 緩和해가면서, 韓國市場의 能率을 提高하고, 技術分業體制를 이루는, 보다 積極的

인 政策手段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Ⅲ. 産業技術體系의 確立과 技術移轉

最近, 부머랭 효과라는 用語가 流行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最初로 말하기 시작한 분은 아마 가벼운 기분에서였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逆부머랭이라는 말도 있을 것이므로, 그다지 크게 問題될 것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流行이라는 것은 부서운 것입니다. 이같은 非科學的인 流行語때문에, 兩國의 交流는 相當히 妨害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70年代 初期까지의 韓國의 高度成長過程에서는 日本으로부터 들어온 資本・技術이 日本의 機械設備, 中間財, 原資材를 中心으로 한 輸出과 結合되게 되었고, 또한 韓國의 輸出도 늘었습니다. 그때문에 韓國側에는 貿易不均衡과의 關聯問題로 既存의 資本・技術 패권에 對한 甚한 反撥이 있었던 것도 事實입니다. 그러나, 資本・技術導入과 關聯이 있는 個別企業의 境遇는 日本으로부터의 輸入要因으로서 交流上的 特別한 關係를 들고 있는 것에 反해, 關聯이 없는 企業은 品質과 價格을 들고 있습니다. 이같은 個別企業의 主張은 尊重되어야 하며, 逆으로 輸入先의 多角化를 꾀한다는 것은 合理的인 對應이라고는 생각할수 없습니다. 化學・金屬・機械・電氣・電子等の 業種은 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獨白的인 技術을 開發하기 위해 우선 앞으로



의 産業構造의 變化를 豫測하여 거기에 適合한 技術을 가려내고, 또 開發의 優先順位를 정한다고 하는 가장 基本的인 作業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開發理論에는 適正技術의 選擇問題가 곧잘 登場합니다만, 實際問題로서는 容易한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國際間 移轉이라고 하게 되면 相對國의 産業構造의 變化까지 考慮하지 않을수 없는 만큼, 더더욱 어렵게 된다는 것입니다. 適正技術의 選定이라고 하면, 일른 勞動集約的인 것을 想定하기 쉽습니다만, 그것은 人口가 過多하며 資源이 豊富한 開發途上國이나, 또는 그와 비슷한 狀態에 있는 나라에서는 그것이 適正할 것입니다. 우리같이 이미 勞動過剩經濟로부터 不足經濟로의 轉換을 目前에 두고 있는 데다, 資源이 不足한 經濟에 있어서는 附加價值가 높은 省資源・省에너지의 尖端技術分野를 選擇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輕薄短小의 附加價值가 높은 新商品은 곧 企業家の 好寄心を 刺激하게 됩니다. 最近, 尖端技術의 移轉을 둘러싸고 兩國間에 議論이 紛紛하게 行해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애초부터 無謀한 議論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한마디로 尖端技術이라고 해도 低級한 것에서부터 高級한 것까지 있기 때문에 尖端機械, 그것도 既存의 機械에 比해 部品數가 많고, LSI 와 같은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가 導入되어야 비로소 機能을 發揮하는 것입니다. 그같은 尖端産業의 境遇, 半導體素材의 加工精度가 絶對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工作機械의 加工精度를 보았을 때, 尖端産業分野에 있어서의 兩國의 技術分業體系는 저절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要컨대, 獨白的인 技術水準을 올바르게 評價하여 兩國은 그에 冷靜히 對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最近, 우리나라의 專門家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技術水準은 同分野의 日本에 비해 절반 程度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第1次 5 個年計劃以後 20年 걸려 겨우 이룰수 있었던 것입니다. <表 2>의 結果는 앞으로의 우리들의 技術分業體制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不充分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日本의 産業技術構造가 明示的이 아니라는 것과, 工業化社會에서 知識・情報産業社會로의 移行과 더불어 從來와 같은 産業・商品分類로는 技術體系가 分明해지지 않는다는 따위의 問題點이 있습니다. 여기에 든 技術分野는 調査對象企業이 企業內에서 開發할 수 있는 것, 技術導入料등 때문에 外國으로부터의 導入이 不可能한 것, 거기에도 現在의 技術水準으로는 吸收할 수 없는 것은 모두 除外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 分野는, 現在의 産業構造下에서 前後로 미칠 波及效果가 크다고 생각되는 核心産業이고, 그 技術을 獨白的인 것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 關聯産業에 對한 日本의 技術移轉이 必要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1978 年の 技術導入에 關한 第1次 自由化以後, 1982 年の 第4次 自由化까지, 通信, 化學纖維, 電子機器, 食品關聯의 技術導入이 2~4 倍 늘어, 契約期間이 長期的이 되는 한편, 導入先도 多樣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日本에 對한 技術依存度는 每年 높아져 왔습니다(1982 年の 總導入件數 308 件中 53.3%), 이 事實은

〈表 2〉 韓國의 技術開發 要因(1983 年 現在)

| 部 門                           | 前 後 方<br>波 及 効 果 | 經 濟 性 | 技術水準<br>(日本=100.0) | 分野數 |
|-------------------------------|------------------|-------|--------------------|-----|
| 1. 半 導 體 · 컴 퓨 터              | 3.60             | 3.39  | 54.2               | 9   |
| 2. 시 스템 產 業                   | 3.56             | 3.15  | 45.4               | 16  |
| 3. 精 密 化 學 工 業                | 3.75             | 3.67  | 53.7               | 10  |
| 4. 纖 維 · 高 分 子 工 業            | 3.38             | 3.14  | 52.7               | 11  |
| 5. 機 械 工 業 高 度 化              | 3.50             | 2.91  | 48.9               | 15  |
| 6. 索 材 工 業                    | 3.75             | 3.31  | 54.0               | 13  |
| 7. 生 物 工 業                    | 3.93             | 3.54  | 49.4               | 8   |
| 8. 에너지 및 自然利用                 | 3.66             | 3.21  | 54.7               | 10  |
| 9. 建設 · 環境 · 플랜트<br>엔 지 니 어 링 | 3.63             | 3.61  | 55.1               | 8   |
|                               | 3.64             | 3.33  | 52.0               |     |

資料：韓國產業技術振興協會「核心據點產業技術導出에 關한 研究」

(1983.2)에서 筆者作成

註：1) 統計的有意度 推定은 하지 않았음.

日本の 改良技術이 現在의 우리들 技術水準으로 吸收가 可能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境遇 導入한 技術을 基礎로 應用·改良한다는 開發體制가 有利하게 作用하기 위해서는 民間企業間的 競爭이 前提가 되기 때문에, 兩國은 다음 事項을 早速히 實行해야 합니다.

(1) 民間技術移轉에 즈음해서는 製造技術뿐만 아니라, 研究開發,

管理, 經營에 對해서도 充分한 事前調査와 協議를 通해 가장 適切한 것을 選擇할 것

(2) 相對國 및 第3國市場에 있어서의 情報交換 및 商談을 有 効하게 進展시키기 爲해, 支社(店)에 對한 大幅的인 權限의 委讓

(3) 日本의 直接投資의 積極的인 參加와, 開發途上國에 對한 開發프로젝트의 두나라間 또는 세나라間的 共同開發

(4) 兩國에 있어서의 技術情報센터 設置

(5) 技術分業體制에 關한 基本研究

日本의 境遇, 研究費와 特許出願數가 每年 增加함과 同時에, 科學技術的 知識의 生産効率は 年率 0.59 퍼센트 (1965 ~ 1980)로 上昇하고 있는데 反해, 先進諸國의 그것은 오히려 低下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技術의 스톡이 낮은 段階에서는 플로우로서의 生産의 効率が 커지는 것이 當然할지도 모르지만, 現在와 같은 趨勢로는 現在의 技術貿易의 輸入超過가 解消되는 것은 時間問題라고 생각됩니다. 그뒤에 對備하기 爲해서도, 技術移轉에는 現在까지 以上으로 積極的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IV. 効率的인 人的 交流

技術의 對外依存度を 낮추고, 技術導入의 自主性を 維持하기 爲해서는, 技能・技術者의 海外研修・留學과, 在外科學者를 招請하여

企業內에서 技術蓄積機構를 內臟하는 것이 緊要합니다. 그 境遇, 現在와 같은 研究開發組織上의 物的・人的 構成의 언밸런스는 早速히 是正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結局, 物的 技術導入의 對日依存도가 높은데도 不拘하고, 人的 交流는 그다지 合理的으로 行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982年 現在, 韓國의 研究機器(購入價格 5,000 달러 以上)의 地域別 構成을 보면, 日本이 36.0%, 美國이 21.2%로 되어 있습니다. 大學과 企業에 있어서의 日本의 相對的인 比重은 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物的 組織에 反해서, 人的 構成은 非對稱的입니다. 國內의 主要國策研究機關에 있어서의 海外學位(碩士・博士) 取得者의 地域別 構成을 보면, 1984年 2月 現在, 政府主導의 技術發展의 產室이라고도 말할수 있는 5個 研究機關, 290名の 海外學

〈表 3〉 研究機關의 地域別 構成(1982)

(%)

|     |               | 研究機關  | 大學    | 企業    |
|-----|---------------|-------|-------|-------|
| 合 計 | 8,647 (100.0) | 1,223 | 3,737 | 3,687 |
| 日 本 | 3,116 (36.0)  | 420   | 1,216 | 1,480 |
| 美 國 | 1,831 (21.2)  | 481   | 668   | 682   |
| 其 他 | 3,700 (42.9)  | 322   | 1,853 | 1,525 |

資料：「技術移轉」서울(1984. 2).

位 取得者中, 75.9 %가 美國인데 反해, 日本은 不過 5 % 未滿에 지나지 않습니다. 美國과 日本의 吸收能力(研究者數와 研究費 總額으로 나타내면, 1980 年 現在, 美國이 64 萬 3,500 名으로, 13 兆 8,640 億圓, 日本이 30 萬 2,600 名으로 4 兆 6,840 億圓)의 隔差는, 計算에 넣지 않더라도 커다란 差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表 4〉 主要研究機關의 海外學位 取得者分布

(%)

| 研 究 機 關 名     | 合 計            | 美 國           | 日 本         | 其 他          |
|---------------|----------------|---------------|-------------|--------------|
| 韓 國 科 學 技 術 院 | 193            | 145           | 7           | 41           |
| 韓國産業經濟技術研究院   | 22             | 15            | 2           | 5            |
| 韓國農村經濟研究院     | 16             | 10            | 2           | 4            |
| 韓國開發研究院       | 35             | 35            | -           | -            |
| 國土開發研究院       | 24             | 15            | 3           | 6            |
| 合 計           | 290<br>(100.0) | 220<br>(75.9) | 14<br>(4.8) | 56<br>(19.3) |

그들 海外로부터 들어온 研究員에는, 1968 年부터 시작되었던 政府에 의한 海外科學者 誘致計劃에 根據한 誘致對象者가 많이 包  
 含되어 있습니다만, 그들 誘致對象者의 國別構成을 봐도 日本은  
 少數이고,在日科學者가 一時的으로 招請된 케이스도 全無입니다. 그  
 것은, 民間企業에 의한 科學者 誘致와 高級人力の 構成에 對해서  
 도 같은 事實을 말할수 있습니다.

〈表 5〉

政府海外科學者誘致對象者分布

(人)

|            |     | 1968~'80 | '81 | '82 | '83 | 合 計 |
|------------|-----|----------|-----|-----|-----|-----|
| 永 久<br>誘 致 | 美 國 | 212      | 20  | 32  | 54  | 318 |
|            | 日 本 | 6        | 3   | 2   | 3   | 14  |
|            | 其 他 | 57       | 9   | 3   | 4   | 82  |
|            | 小 計 | 275      | 32  | 37  | 61  | 405 |
| 一 時<br>誘 致 | 美 國 | 260      | 39  | 53  | 54  | 406 |
|            | 日 本 | -        | -   | -   | -   | -   |
|            | 其 他 | 17       | 4   | 3   | 2   | 26  |
|            | 小 計 | 277      | 43  | 56  | 56  | 432 |
| 合 計        |     | 552      | 75  | 93  | 117 | 837 |

資料：科學技術處 人力開發課

以上과 같이 海外留學에 의한 高級技術의 供給을 美國에 크게 依存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事實은, 戰後, 日本留學이 正式으로 認定된 것이 國交正常化 以後라는 量的 要因(〈表 6〉 參照)뿐만 아니라, 젊은 世代의 留學先의 選擇, 나아가서는 라이프·타임의 配分에 影響을 미치는 여러가지 質的 要因을 反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表 6〉

海外留學生 地域別分布(1982.6)

(%)

|   |   |     |                |
|---|---|-----|----------------|
| 日 | 本 |     | 1,406 (7.7)    |
| 關 | 東 | 958 |                |
| 大 | 阪 | 199 |                |
| 其 | 他 | 249 |                |
| 美 | 國 |     | 11,736 (64.5)  |
| 其 | 他 |     | 5,057 (27.8)   |
|   |   |     | 18,199 (100.0) |

資料：文敎部 在外國民敎育課

確實히, 政府베이스로는 日本의 文部省의 國費留學生이 每年 40 ~ 50 名 程度 日本으로 留學을 가는 代身에, 조금씩이긴 하지만, 日本으로부터도 韓國에 留學을 오고 있습니다. 文部省의 國費留學制度는, 다른 先進國에서는 그다지 흔히 볼수 있는 것은 아니며, 現地에서 自費에서 國費로 바꾸는 數까지 合해 보면, 同制度는 韓國에 있어서 充分히 活用될 만한 것입니다. 또 韓國政府에 의한 研修도 1982 年 以後 盛行하게 되었습니다(〈表 7〉 參照).

그러나, 이것은 學位課程보다는 技術研修가 大部分입니다. 그런 意味에서 民間企業에 의한 研修도 마찬가지로이며, 主로 프로젝트·베이스에 의한 短期的이라는 點이 特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技術人力의 供給體系 不均衡은,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産業技術體系와 그 國際協力體系가 分明하게



〈表 7〉

政府關係研修者分布

|         | 美 國      | 日 本      | 其 他     | 計         |
|---------|----------|----------|---------|-----------|
| 1 9 8 1 | 61 (50)  | 10 (10)  | 31 (21) | 102 ( 81) |
| 8 2     | 62 ( 8)  | 37 (32)  | 34 ( 4) | 133 ( 44) |
| 8 3     | 69 (19)  | 57 (56)  | 25 (16) | 151 ( 91) |
| 計       | 192 (77) | 104 (98) | 90 (41) | 386 (216) |

資料：科學技術處 人力開發課

註：1) 科學技術處 所管分에 限함.

2) ( ) 內는 技術研修者數.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과, 日本에 對한 올바른 認識이 缺如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現象은, 兩國間の 貿易擴大와 技術移轉뿐만 아니라, 兩國의 經濟發展을 크게 沮害하는 要因입니다. 앞으로, 우리들은 젊은 世代의 行動樣式을 銳利하게 注視하면서, 다음의 事實을 吟味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것은 즉, 兩國의 젊은 世代뿐 아니라 既成世代도 相對國에서 배우고, 거기서 活躍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생각이 들게끔 大學, 企業 및 社會環境을 整備함으로써 兩國의 唯一한 保有資源인 人的 資源의 效率을 보다 높게하기 위한 것입니다.

- (1) 研修・留學生을 받아들이는 것을 擴充하는데만 머물 것이 아니라 兩國政府는 研究・留學生의 選拔, 教育, 事後管理에 關해서 民間企業과 協調하여, 對象者의 具體的인 研修目標의 設定과 進陟狀況을 隨時로 체크할 것.

- (2) 日本側은 大學, 研究機關, 企業內에 있어서 對象者의 屬性에 關해서 嚴密히 分析하고 나서, 一般教育和 特殊訓練의 보다 効率的인 教育프로그램의 編成에 힘쓸 것.
- (3) 日本側은 大企業보다는 中小企業, 首都圈보다는 地方으로 받아들이는 機關의 分散을 促하여, 地方의 時代에 맞는 人的 交流를 進展시킬 것.
- (4) 韓國側은, 特히 民間企業베이스의 研修를 契機로, 다른 競爭企業으로의 移動이 없도록 함으로써, 企業間的 信賴와 企業內的 技術蓄積을 促할 것.

우리는, 20 年前的의 韓日國交正常化 當時와 같은 工業社會가 아니라, 知識・情報社會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兩國은 隣接國이라고는 해도 하루라도 커뮤니케이션이 없으면 相互間에 孤立된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습니다. 兩國間에 現在 特別한 懸案이 없다고 할수있는 때일수록 美日에서 볼수 있는 貿易摩擦과 같은 것을 事前에 豫防하기 위하여 相對의 意志를 서로 確認하여, 技能的인 水平的 分業圈의 確立을 目標로 힘차게 前進해야겠습니다.

最近, 日本의 大學에는 우리나라에서 건너간 젊은층의 數가 顯著하게 增加되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모두 가까운 將來에, 어떠한 形態로든 兩國交流를 위한 橋梁的인 役割을 해야할 俊才들입니다. 所期의 成果를 거두기 위해서는 相互間에 文化에 對한 認識을 깊게 하며, 세미나나 小集團活動을 “日本的”인 特殊性만이 아닌 普遍的 合理性을 함께 追求하는 場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자기 子息에게 對하는 것같은 따뜻한 마음으로 맞아들여,

嚴하게 鍛練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兩國經濟界 여러분의 健闘를 빌면서, 저의 基調演說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時間, 傾聽해 주셔서 大端히 感謝합니다.

〈 基調演說 〉

情報化社會의 進展과 韓日經濟協力

富 士 通 (株)  
取締役會長 小林大祐

방금 紹介받은 富士通의 小林입니다.

우연히 經團連의 情報處理 懇談會의 委員長을 맡고있는 關係로 이런 大端히 榮譽스러운 基調演說을 하게 된것을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情報化社會라는 것에 對해서는 매일 新聞에서 여러가지로 報道되지 않는 날이 없을 程度이기 때문에 이미 充分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이 情報化 社會의 代表的인 테마로서 뉴미디어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CATV, 이것은 以前부터 있던 것입니다만, 最近 特히 雙方向이라던가 또는 光화이버케이블이 나와 지금까지의 有線TV보다는 將來 좀더 進展된 雙方向TV가 생길것이라거나 또는 여러가지 홈쇼핑, 기타 利用價值가 大端히 크다는 點에서 各 方面으로부터 關心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都市型 CATV, 또는 僻地에는 從來에도 있었던 有線TV만큼이나 大端한 關心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가까운 將來에 이러한 關心이 集中될 것인만큼 多少의 時間은 걸릴지도 모르지만 社會에 定着되어 갈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비데오 텍스라는 말이 流行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普通の

電話回線에 家庭에 있는 TV를 連結하여, 畫面을 通한 새로운 여러가지 必要한 情報을 알수있는 서비스 입니다. 東京에서는 試驗的으로 行해지고 있으며 準備가 거의 이루어져서 今年 11月 부터 正式서비스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도 提供되는 情報가 받아들이는 쪽에서 정말로 有効하다고 認定되면 더욱 發展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使用한 然後에 向後的 努力如何에 달린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電子會議와 같이 그 高速情報回線의 兩端에 會議室을 設置하고 그 會議室에 TV等을 裝置하여, 마치 같은 場所에서 하는 것 같이 會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電電公社가 試驗的으로 하고 있고, 또 얼마전에는 國際的인 會議가 衛星回線을 通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것이 아직 試驗段階이기는 합니다만, 이것은 가까운 將來에는 相當히 便利하게 쓰이는 時代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이런것들은 앞으로 오랜동안의 試驗期間, 特히 소프트웨어의 努力, 거듭되는 努力에 의해 利用하는 측의 價値가 自身들이 支拂하는 料金이나, 그밖의 것과의 均衡이 이루어져서 有効하게 되면 많이 普及되리라 생각합니다. 有効하다고 認定되어 普及이 시작되기까지의 忍耐라고 할까요, 相當한 資金을 投資해 두지 않으면, 그러한 時代가 繼續되는 것은 아닐까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將來에 對한 밝은 期待를 가지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다른 하나의 部門은 지금 바야흐로 大端한 熱氣를 띠고있는 OA 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高度成長時代라고 하는 것은 工場을 無人化하거나 自動化해서 生産性이 20%, 30%라는 程度로 大端한 生産性を 올려 成果를 내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어느 程度限界에 到達해 있습니다.

오피스의 管理, 즉 事務의 경우, 이 分野의 生産性이 美國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만, 겨우 한자리숫자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것을 急速하게 지금까지의 生産性, 오토메이션에 의한 生産성과 같이 오피스의 관리를 좀더 便利하게 하여 生産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半導體 技術의 進歩에 의해 컴퓨터가 굉장히 싸고 다루기 쉽게 되었습니다. 이 퍼스컴이라는 말을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처음에는 어린아이들의 장난용이라든가 그런 意味에서 불리우고 있었으나, 最近 2-3年동안 各企業에서 事務를 보고있는 한사람 한사람이 그 퍼스널 컴퓨터를 使用하여 事務를 効率化하는데 利用하게 되었습니다. 즉, 그 퍼스널 컴퓨터를 메인컴퓨터에 連結하여 시스템으로서의 効率을 올려 急速히 普及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2-3年前부터 美國의 IDC라는 豫測을 專門적으로 하는 會社에서는, 1986년에는 그러한 小型컴퓨터市場이 汎用的 지금까지의 大型, 中型 컴퓨터 마케트보다는 커질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나도 설마하고 생각했었습니다만 昨年頃부터 IBM이 퍼스널 컴퓨터에 積極적으로 나서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시스템으로서의, 企業안에서의 시스템으로서 퍼스널 컴퓨터도 오피스에 導入하리라는 展望이 있습니다.

日本에 있어서도 그러한 流行이 急速히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들의 豫測이 어긋나 製品이 需要를 뒤따르지 못하여 커다란 騷動이 昨年 1年동안 反復되었습니다만, 今後 이 分野가 相當히 伸張되어 갈것으로 생각됩니다.

팩시밀리라든지 事務用 電子機器가 많이 普及되고 있습니다. 또 워드프로세서와 같이 지금까지 日本人이 서툴렀던 키를 두드려서 文章을 쓴다는 것에 對해, 키를 두드려서 日本語文章이 可能하다는, 이것이 아주 取扱하기 쉽고 깨끗하며, 또 컴퓨터안에도 테이터로서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企業안에서 通信回線으로 連結하여 하나의 企業안에 여러가지 그러한 컴퓨터, 小型컴퓨터에서 大型컴퓨터까지를, 또 電話回線도 디지털화한 電話交換機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有効하게 쓴다고 하는 것이 流行하기 시작하여 이것이 local area network, 즉 LAN이라고 합니다만, 그러한 形態로 지금 東京에서 20層以上 程度の 커다란 빌딩안에서 流行하고 있어, 企業은 그 빌딩안에 光화이버케이블을 끌어들여 그 光화이버케이블에 지금 말씀드린 小型컴퓨터, 大型컴퓨터 또는 通信機를 連結시켜서 從來에는 文書로 情報交換하던 것을 컴퓨터안에서만 處理하여, 종이를 오피스에서 없애려는, 이것은 若干 極端的이지만 그러한 方向으로 急速하게 進展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방아쇠가 되어 지금까지 電話回線이란 것은 電電公社 또는 國際電電公社가 서비스를 해왔으나, 지금 말씀드린 企業內的 local area network가 他企業과의 사이의 local area network 끼리를 連結해 가려고 한다든지,

業種이 다른 分野 사이에서 進歩를 없애고 컴퓨터만으로 決濟해  
가려고 하는 강한 要望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全國을 그런式  
으로 network 를 連結시키는 것이 可能하다면 國際的인 面에서도  
그렇게 될수는 없겠는가 하는 大端히 강한 말하자면 하나의 革  
命과도 같은, 지금까지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需要가 생  
겨나서 郵政省, 通產省 등의 努力에 의해 이번 國會의 電電公社  
의 民營化와 同時에 民間도 通信事業에 參與할 수 있고, 또 그  
回線을 빌려 누구라도 서로 連結하여 便利한 시스템을 組織할수  
있다는 대단히 便利한 法律이 이번 國會에 提出될 것으로 豫想  
됩니다. 이것이 通過되면 그러한 面에서의 相當한 事務의 管理,  
이것이 굉장한 變革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한 形態로  
시스템을 提供하는 네트워크를 만들거나, 거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를 提供한다는 것이 實은 이제부터가 重要하다고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10年이나 前부터 지금 말씀드린것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러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企業, 會社가 사람이  
不足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日本에서도  
그런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모으느냐 하는  
것이 지금 큰 問題가 되고 있는데, 저도 그런일에 關係하고 있  
는 사람의 하나로 사람모으기에 苦心하고 있습니다. 地方大學이  
있는 어떤 地域에 소프트웨어會社를 만들어, 家庭에서 떠나기 어  
려운 地方에 살고있는 사람을 募集하여 소프트웨어의 서포트를  
받기위한 會社를 20個社 程度, 매달 여기저기에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時代가 되어 有能하고 着實하게 소프트웨어에 임하려는 사



람들, 이들이 앞으로 社會에서 必要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極端的인 애기로 어느 大學教授는 이처럼 오토메이션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要컨대 便利하게 모든것이 될수있는 時代가 된다면, 便利하게 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를 많이 提供해야 되므로 全人類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매달려도 모자랄 程度로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無限하기 때문에 可能한 것만 해나가자는 식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問題가 情報化社會의 進展에 따라 深刻化되어 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經濟의 소프트化라는 것이 流行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資料를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1977年, 美國에 있어서의 情報經濟라는 것을 細密하게 調査하여 整理한 것이 있습니다.

1980年代에는, 情報業 지금 말씀드린 소프트웨어에 關한 사람의 수요말입니다만 全體 일하는 사람의 50%에 가까운 사람이 이 일에 關係하게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農業에 從事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것이 이제 美國에서도 거의 4% 程度로 적어졌고 이들이 美國의 食糧需給을 꾸려나갈 뿐만 아니라 美國 輸出品의 상당한 部分을 農業이 지탱하고 있을 程度로 機械化, 合理化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情報關係라고 하는 것은 機械化가 굉장히 어려워져 역시 사람손에 의한 部分이 아직 많아 굉장히 많은 人員을 必要로 하고 있는데 日本의 境遇도 第2圖에 나와 있듯이 美國과 같은 傾向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企業안에서도 블루칼라, 즉 直接 作業에 從事하는 從業員은 해가 감에 따라 줄고있고 頭腦勞動者의 比率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소프트웨어, 高度情報化社會의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어찌할 수 없는 時代가 된다는, 이에 關係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져 갈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오늘까지 韓國과 日本과의 技術協力이라는 面에서 오랫동안 여러가지를 생각해 왔읍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韓國에서는 상당히 教育이 普及되고 있고 大學도 좋은 大學이 많으며 거기에는 優秀한 學生이 있다고, 더구나 그 사람들이 일하는 職場이라는 것이 日本에 比해 比較的 적다고 들었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소프트웨어 分野에서 일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韓國政府와 議論해서 파콤코리아라는 會社를 만들어 소프트웨어의 開發을 시작하여 이미 10年이나 되었읍니다. 韓國에서의 basic soft ware, 이것은 機械에 密接하게 關聯된 소프트웨어 입니다. 또하나 다른 소프트웨어란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라 해서, 製鐵業이라면 製鐵을 위해 컴퓨터를 움직이기 위한 소프트웨어가 됩니다만, 그러한 利用價值와는 關係없이 컴퓨터의 하드웨어를—이것은 이미 상당히 全自動的으로 作動합니다만—入力を 넣으면 척척 움직여 計算을 하고 프린트아웃을 하는 굉장히 高度의 自動化機械입니다. 그것은 소프트웨어로 움직이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basic soft ware 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에 쓸 것인가에 關係없이 基本的으로 決定되는 것입니다. 그 分野를 FKL에서 하고 있고 그 實績은 3P에 나와 있습니다. 韓國統計로 全體 basic soft ware 開發額의 約 50 % 程度를 이 FKL에서 만 들고 있는데 이것은 全額을 日本에서 輸入하고 있습니다. 이런

式으로 해왔는데 상당히 有能하고 熱心하며 熱心인 사람들만의 集團입니다. 昨年이었던가 再昨年이었던가 이 委員會에서, 日韓自動 翻譯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決定되어서 現在 그 作業을 FKL 과 富士通에서 實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資料의 4P에 나와 있습니다만 韓國語와 日本語는 상당히 비슷한 點이 많아서, 日本語의 自動翻譯機를 지금 日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應用하는 것만으로 日韓 또는 韓日 自動翻譯이 可能하게 되어 86년에는 全部 完成될 豫定입니다.

지금 實驗을 해보일 程度の 基本的인 部分은 이미 完成되어 이것은 지난번 서울에서 선을 보였읍니다만 앞으로 本格的인 製作에 들어갈 豫定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퍼스널 컴퓨터를 앞으로 오피스에서 많이 使用할 것입니다만, 이것을 한글文字로 使用할 수 있으면 컴퓨터에 對한 親密感이 더해갈 것입니다. 韓國版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FKL에서 製作中에 있으며 올해中에 供給될 것입니다. 퍼스널 컴퓨터가 한글文字로 入出力을 할 수 있으면 韓國에서 事務用으로 使用하는 境遇, 상당히 친해지기 쉽고 편리하게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소프트웨어 開發에 適性이 맞는 분들이 韓國에는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分野는 日本과 競争하는 境遇는 없습니다. 日本側에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일에 從事하는 사람의 손이 不足합니다. 오피스 오토메이션이 점점 進展되어가는 요 2-3年後에는 그런 面에서의 소프트웨어 開發에 일손이 不足할 것입니다. 이런 面에서 韓國사람들이 協力해 주시게 되

면 가까운 將來에 韓國에서 日本의 오피스오토메이션과 같은 狀況이 일어날 것이라고 想像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面에서는 지금 日本도 韓國도 모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퍼스널컴퓨터 혹은 거기에 必要한 프린터라거나 디스크등, 附屬機器는 美國에 많이 輸出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제 日本과 韓國의 技術差는 그다지 없는 것으로 생각하며 오히려 그러한 面에서는 혹은 競争할 可能性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소프트웨어面에서 말하자면 日本이 韓國에서 사거나 혹은 日本의 것을 韓國이 購入하는 境遇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各各 需要에 맞게 提供하는 것이 앞으로 日本이나 韓國은 말할것도 없이 세계의 重要한 問題가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第5世代 컴퓨터, 이것을 日本에서는 지금 舉國的인 내셔널 프로젝트로 하고 있습니다만, 使用하기 쉬운 컴퓨터란 것을 目標로 모두 努力하고 있습니다. 使用하기 쉽게 만드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그런 形態로 組立해가는 것인데 그러한 舞臺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事實은 매우 重要한 것입니다. 저희들 關係會社에 無人工場을 하고 있는 로봇工場이 있는데, 이것을 完全히 움직이기 위한 소프트웨어는 많은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만들어서 그런 無人工場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舞臺뒤에서는 대단히 화려하게 無人工場이라고 하면서 舞臺뒤에서는 이를 위해 눈에 띄지않는 많은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로 苦心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오토메이션 혹은 오피스 오토메이션도 그렇겠지만 점점 世上이 便利하게 된다는 것은 그러한 便利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져야 비로소 可能한 것입니다.

니다. 앞으로 소프트웨어란 것은 대단히 큰 問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게도 없지만 만들어도 通信回線으로 보내면 瞬間적으로 어디라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情報의 소프트웨어라는 特色있는 것입니다. 環境이 좋은곳에 그러한 사람들을 모아 智慧를 發揮시켜 그런것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要是 環境이 좋은곳에 사람을 모아가지고 일하게 하는 것이 特色이며 場所는 어디라도 좋습니다. 그런 世上이 되어가기 때문에 꼭 韓國에서 우리도 協力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에 對한 今後의 開發에 對해서 關心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提案을 하면서 저의 얘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傾聽해 주셔서 感謝합니다.

# 第 5 次 經濟社會發展 5 個年計劃 修正內容과 對外開放政策의 推進方向

經濟企劃院 投資審查局長

金 英 泰

- I. 轉換期 韓國經濟와 5 次計劃의 修正
- II. 修正計劃의 基本課題
- III. 部門別 主要重點實踐課題
  - 1. 經濟安定基調의 定着
  - 2. 國際收支의 改善과 自力成長의 實現
  - 3. 技術革新과 產業能率의 向上
  - 4. 社會開發의 擴充
- IV. 對外開放政策의 推進
- V. 結 言

## I. 轉換期 韓國經濟와 五次計劃의 修正

經濟企劃院 投資審查局長입니다.

오늘 第 16 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에 參席하여  
兩國의 著名하신 企業家 여러분을 모시고 第五次 經濟社會發展  
五個年計劃修正을 中心으로 韓國經濟의 政策方向에 對해 말씀드  
리게 된 것을 無限한 榮光으로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最近 몇年間 韓國經濟는 60年代初 經濟發展을 始作한 以後 가장 어렵고 重要的 時期를 經驗하였습니다. 2次 石油波動과 이에 따른 世界景氣不況 以外에도 韓國은 政治的 變革에 따른 社會的 不安과 80年 米穀의 大凶作 등 對內外的으로 여러가지 試鍊이 同時에 밀어 닥침으로서 國民經濟 全體를 매우 危險한 地境에 몰아 넣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試鍊의 渦中에서도 韓國經濟는 過去에도 그러했듯이 能動的으로 問題를 解決하려는 몇가지 重要的 政策的인 轉換을 推進하였습니다.

첫째로, 모든 政策의 優先順位를 物價安定에 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過去 高度成長의 遺産인 인플레이의 累積은 國民經濟의 國際競爭力 弱화를 招來하여 우리의 經濟成長을 主導하는 輸出 餘力を 減少시켜 國際收支를 惡化시켰을 뿐 아니라 國內貯蓄能力을 蠶食하여 自力成長의 基盤을 弱化시키고 對外負債를 累増시키는 가장 根本的인 要因으로 作用하였습니다. 또한 높은 物價上昇은 所得分配 構造를 惡化시키고 資源配分の 歪曲을 가져와 全般的인 經濟의 效率을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이와같은 인플레이의 惡循環을 斷絶시키고 經濟安定의 기틀을 잡아가기 爲한 努力이 經濟政策의 最優先課題로 推進되어 通貨·財政, 金利, 賃金 등 經濟全般에 걸쳐 物價安定에 對한 努力을 總 集中하였습니다.

過去 거의 年平均 30 ~ 40 %에 達하던 通貨供給을 大幅縮小하여 83 년에는 15 %로 縮小하는등 緊縮政策을 強力히 推進하였습니다. 또한 政府의 財政運用에 있어서도 經常支出에 對한 統制를 強化하기 爲하여 「제로 베이스」 豫算制度를 導入하고 公企業의 經營合理化를 積極推進함으로써 總財政收支赤字를 GNP 對比 81 年の 4.7 %에서 83 년에는 1.6 %로 減少시켰습니다. 1980 年 20 %以上이던 貸出金利도 數次에 걸친 引下로 10 %水準에 머물게 되었으며 이 外에도 勞動者の 賃金引上 自制를 誘導하고 政府의 穀物收買價 引上을 安定的 水準에서 維持하는등 物價安定을 爲한 政策的 推進이 모든 分野에서 繼續되어 오고 있습니다.

둘째로, 過去 政府가 主導하여 오던 經濟運用方式을 民間의 自律과 競爭에 바탕을 둔 經濟運用方式으로 轉換하려는 努力을 始作한 點입니다. 우리가 經濟開發을 始作하였던 開發初期段階에서는 政府主導方式이 効率的인 機能을 發揮했음니다만, 이제는 急激한 變化에 迅速히 對處하고, 多元化된 國民欲求에 効率的으로 對應하는대는 아무래도 限界가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이러한 見地에서 自律과 競爭의 擴散努力의 一環으로 1981 年 市中銀行의 民營化를 始作으로 하여 金融機關에 對한 各種 統制를 과감히 縮小하는 한편 短資會社 및 信用金庫등의 設立擴大를 通하여 金融機關의 競爭體制를 導入하는 등 金融의



自律化를 積極 推進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民間經濟活動에 對한 不必要한 認許可 事項을 없애고 特定產業에 對한 支援등 政府의 直接的 關與를 縮小하는 制度的 改善에도 努力하였습니다. 이러한 一連의 自律化 움직임은 通行禁止 解除, 海外旅行 自律化, 學生校服 自律化등 社會全般에 걸친 自律화와 脈絡을 함께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經濟 各分野에 公正한 競爭秩序를 擴散시켜 나가기 爲한 公正去來制度가 施行되어 獨寡占 弊害防止와 消費者 保護를 爲한 制度的인 裝置를 強化하였고 產業支援制度도 過去의 產業別 支援에서 人力 및 技術開發과 같은 機能別 投資活動에 對한 支援으로 轉換하게 되었습니다.

세째로, 競爭促進을 통한 產業體質強化를 爲하여 對外開放을 積極 推進하기 始作하였습니다. 우리나라 產業은 그동안 發展의 初期段階에서 不可避한 資本・技術등 여러가지 構造的 취약점 때문에 政府의 支援은 물론 對外로부터 保護를 받아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國內市場이 狹小하여 一部分을 除外하고는 國內企業間의 競爭體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與件下에서는 企業은 技術開發이나 生産性向上보다는 保護에 安住하려는 경향을 보이기 쉬우며 이것이 우리 經濟의 國際競爭力을 提高해 나가는데 重要的 障害要素가 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러한 觀點에서 80年代 들어와서 韓國經濟는 貿

易의 自由化를 繼續 擴大해 왔을뿐만 아니라 關稅, 外國人投資, 技術導入, 資本市場등 一連의 對外關係 政策을 開放의 方向으로 再整備하였던 것입니다. 이 部分에 對하여는 뒤에 보다 仔細히 說明드리고자 합니다.

이와같은 經濟構造 調整을 爲한 여러가지 政策의 轉換을 着實하게 推進해 나간 한편, 國際經濟與件도 當初豫想보다는 韓國經濟에 有利하게 好轉되었습니다. 石油을 비롯한 國際原資材 價格이 安定勢를 보이고 先進國의 景氣回復도 豫想보다 앞당겨 지고 있습니다. 特히 當初 每年 10%씩 上昇할 것으로 豫測하였던 油價가 83년에는 오히려 15%가 減少하였는데 이러한 油價의 安定은 全體輸入額의 20%以上을 原油導入에 쓰고있는 우리經濟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結果 五次計劃이 樹立되어 推進되기 始作한後 지난 2年間 韓國經濟는 매우 滿足스러운 發展을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80년에 마이너스 成長을 보였던 經濟成長率이 81년부터 서서히 回復되어 82년에 5.6%, 83년에는 9.3%로서 77年以來 第一높은 成長을 이룩하였습니다.

物價에 있어서도 從來 두자리數의 上昇率이 82년에는 5%以內로 安定되고 83년에는 都賣物價 基準으로 오히려 前年에 比하여 下落하였습니다. 物價의 下落은 처음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國際收支도 輸出增大와 原油등 國際原資材 價格의 安定으로 81년에 46億弗에 달했던 赤字가 83년에는 16億弗

까지 縮小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經濟發展의 實績과 經濟與件의 變化는 當初 5次5個年 計劃에서 豫測하였던 것과는 너무나도 큰 差異를 나타내었습니다.

中長期 計劃은 일단 作成되면 一部與件이 바뀔때마다 修正하는 것 보다는 主要目標와 事業은 執行過程에서 그때그때의 與件變化를 反映하되 開發計劃이 갖고있는 基本精神을 一貫性있게 推進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번의 境遇 對內外 經濟與件의 變化가 너무 크기 때문에 不可避하게 計劃 全般을 再點檢하여 앞으로의 經濟運用方式을 再定立함으로서 남은 期間동안 國民經濟를 보다 效率的으로 運用하고자 한 것입니다.

## Ⅱ. 修正計劃의 基本課題

至今까지 말씀드린것이 計劃을 修正하게 된 背景입니다.

이제부터 修正計劃의 內容에 對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修正計劃은 過去의 다른 計劃들과는 달리 原計劃期間中에 作成하는 것이므로 數量的인 目標設定보다는 構造調整과 各種制度改善에 重點을 두었고 問題接近에 있어서도 宣言的인 側面보다는 우리 現實에 비추어 計劃期間中에 實現해야 하고 또 實踐할 수 있는 政策代案을 發展시키고자 한 점이 그 特徵

이라 하셨습니다.

따라서 修正計劃에서는 먼저 原計劃에서 提示되었던 基本方向과 最近 一聯의 轉換期 調整政策을 再檢討하여 '80 年代中盤까지의 對內外 與件變化和 새로운 經濟社會的 要請에 副應한 基本政策課題를 設定하였습니다. 이들은

첫째, 經濟安定基調의 定着

둘째, 國際收支의 均衡과 自力成長의 實現

셋째, 技術革新과 產業能率의 向上

넷째, 國土의 均衡發展과 生活環境改善

다섯째, 社會開發의 擴充

여섯째, 政府機能의 定立과 行政의 効率化등 입니다.

이러한 政策的 課題와 더불어 經濟成長은 當初計劃과 비슷한 水準인 年 7 ~ 8 %의 成長率 目標을 設定하였으나 物價는 對內外 不安要因이 常存해 있더라도 그 동안의 安定基調定着을 土臺로 都賣物價基準 年 0 ~ 1 % 水準에서 더욱 安定시키고 國際收支均衡도 86 年으로 앞당기도록 目標을 設定하였습니다.

### Ⅲ. 部門別 主要重點實踐課題

다음은 이러한 主要重點課題를 中心으로 이불 어떻게 實踐해 나가려고 하는가 하는 具體적인 政策方向에 對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1. 經濟安定基調의 定着

먼저 말씀드릴것은 經濟安定基調의 定着입니다. 이 課題는 計劃期間中 가장 큰 政策的 力點이 두어질 部門입니다.

이를 爲하여는 무엇보다도 金融 및 財政政策등 總需要管理가 安定的으로 運營되어야 하는것이 絶對적으로 必要합니다.

먼저 金融部門에서는 總通貨增加率을 計劃期間中 年 12 % 水準 增加內에서 抑制토록 할것입니다. 이를 過去와 比較할때는 아주 緊縮的인 運用이지만 物價安定과 實質經濟成長率을 勘案하면 適正한 通貨供給水準이라 할 수 있습니다.

勿論 年 12 % 內에서의 通貨量增加로는 國際收支 改善에 따라 豫想되는 海外部門에서의 通貨增加要因을 勘案할때 國內與信의 縮小運用이 不可避할 것으로 보이나 最近 急速히 發展하고 있는 第2金融圈과 直接金融市場을 活性化 함으로써 産業資金의 供給을 圓滑하게 할것입니다.

財政部門도 金融部門에서와 같이 緊縮적으로 運用될것입니다. 過去 財政部門에서의 通貨增發은 「인플레이」의 큰 要因이 되었으며 民間部門에서의 資金供給을 위축시킨 原因이 되었습니다. 財政收支赤字를 86年까지 解消하기 爲하여 政府支出의 抑制, 糧穀基金등 財政赤字要因을 果敢히 縮小시키고 公企業의 經營合理化 및 企業성이 강한 公企業의 民間移讓등 劃期的인 政策轉換을 하여 나갈 計劃입니다.

今年度 一般會計를 前年度水準으로 凍結한것도 이러한 脈絡

에서 理解될 수 있을 것입니다.

以上과 같은 需要管理와 더불어 供給管理 側面에도 힘을 기울여 輸入과 備蓄擴大를 通해 物資供給能力을 增大하고 特別히 農産物에 있어서는 流通構造改善을 通해 流通費用을 줄여나갈 計劃입니다.

이와 아울러 物品의 安全 및 品質管理를 強化하여 消費者被害를 事前에 防止하는등 消費者保護施策을 強化하여 消費者의 權益의 保護뿐만 아니라 消費者의 市場監視機能을 提高시킴으로써 生産者의 品質向上과 原價節減努力을 促進시켜 物價安定과 競爭力向上에 이바지하도록 할것입니다.

## 2. 國際收支의 改善과 自力成長의 實現

다음은 國際收支均衡을 이룩하여 自力成長의 基盤을 構築하는 課題에 對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原計劃과 比較할때 이번의 修正計劃이 갖고있는 두드러진 特徵中の 하나가 經濟成長을 뒷받침하는 投資財源을 '86年까지는 모두 國內貯蓄으로 調達한다는 目標을 設定하고 있는點입니다.

年平均 45萬名씩 늘어나는 勞動人口를 吸收하기 위한 適正成長率을 7~8%로 設定하고 있으므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는 投資水準이 GNP의 約30% 水準에 達하여야 하며 이를 모두 國內貯蓄으로 充當하는 경우 國內貯蓄率은 똑같은 水準으로 提高되어야 하는것입니다.

國內貯蓄率 30 %水準은 現在의 水準이 24 %程度임을 생각할때 意慾的인 目標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現在 國內物價가 劃期的으로 安定되어 國內貯蓄與件이 最近에 많이 好轉되고 있고 앞으로도 物價安定을 持續해 나가며 貯蓄手段을 積極 開發한다면 이러한 目標은 達成可能하리라고 생각합니다.

國內貯蓄에 依하여 投資財源을 調達한다는 것을 國際收支 側面에서 보면 國際收支를 均衡시켜 外債의 增加를 抑制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國內貯蓄에 의해 投資財源이 完全히 調達된다는것은 우리 經濟가 對外的으로 資源을 導入할 必要가 없다는 것과는 區分이 되어야 할 것이고, 繼續的으로 開放化, 國際化에 따라 빌리고 빌려주는 關係가 擴大되는 過程에서 純概念的으로 볼때 均衡을 이룬다는 것으로 理解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國際收支를 改善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輸出을 持續적으로 늘여가는 일이며 이는 우리 經濟의 成長을 뒷받침하는 原動力이기도 한것입니다.

우리에게 現在 주어진 國際貿易環境은 日本이 工業化의 基盤을 다졌던 60年代와 比較할때 매우 어려운 實情입니다. 이러한 國際環境 속에서 輸出을 늘여나가기 위하여는 우리의 産業을 比較優位の 立場에서 國際競爭力 爲主로 改編해 나가는 努力이 絶對的으로 必要합니다.

現在 造船・鐵鋼等 極히 몇몇 部門에서 우리 商品이 國際競爭力이 있다고 하지만 全般的으로 볼때 우리나라 輸出商

品은 技術水準이 未洽하여 國際競爭力을 提高하기 위해서는 改善할 點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産業技術革新에 政策的 重點이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國際收支 改善을 爲하여는 輸出增大와 더불어 輸入을 줄이는것도 重要합니다.

이를 위하여 에너지 史料等 主要輸入原資材의 節約에 重點을 둘것입니다. 에너지 節約施策을 強化하여 産業部門뿐만 아니라 住宅, 交通部門까지 擴散하고 飼料 輸入節減을 爲하여도 經濟性 있는 草地造成을 擴大하고 代替飼料를 開發하는等 節約努力을 強化할 것입니다.

이와같이 國際收支를 앞당겨 改善하게 됨으로써 對外債務도 86 年에 가서는 當初計劃 645 億弗보다 171 億弗이 減少된 474 億弗 水準으로 縮小될 展望이며 元利金 償還率도 14 % 水準을 維持할것으로 展望되어 外債問題는 크게 問題가 되지 않을것으로 展望됩니다.

### 3. 技術革新과 産業能率의 向上

다음에 重要的 課題는 技術革新과 産業能率의 提高를 通하여 우리의 産業體質을 國際競爭力爲主로 強化하는 問題입니다.

우리의 産業은 그동안 빠른 工業化를 이룩해오는 過程에서 規模面에서는 크게 擴大된 反面, 構造的으로는 여러가지 脆



弱點을 갖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와 過保護속에서 生成된 企業體質의 弱化, 技術水準의 全般的 低水準, 部品中小企業의 落後問題, 經濟力集中과 獨寡占의 弊害 등이 그 代表的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推進할 產業政策은 다음 몇가지 점에 重點을 둘것입니다.

우선먼저, 對內競爭의 促進과 對外競爭의 積極導入으로 產業에 있어서의 競爭與件을 造成하므로서 企業으로하여금 技術開發投資나 生産性向上에 注力하도록 誘導해 가는것이 될것입니다.

둘째로, 우리產業이 現在 後發開途國의 追擊, 新興工業國家間의 競爭, 先進國의 技術保護 등의 周邊與件에 能動的으로 對處하면서 產業構造를 高度化하고 國際競爭力을 提高하기爲하여는 科學技術의 發展이 必須的입니다. 따라서 科學技術發展이 產業發展의 關鍵이 된다는 認識下에 技術開發 誘因政策을 補強하여 民間의 技術開發投資를 活性化하고 政府部門의 投資도 本格的으로 擴大하는등 集中的인 政策的 努力을 傾注해 나갈 것입니다.

세째로, 產業의 底邊을 形成하고 있는 中小企業의 發展은 健實한 產業構造形成에 基本이 될뿐만 아니라 지난 70年代의 重化學工業에 集中되었던 많은 投資의 効率性を 높혀나가기爲해서도 部品工業을 中心으로한 中小企業의 育成은 매우 重要한 問題입니다.

中小企業의 育成에 있어서는 이들 産業이 지니고있는 基本的인 脆弱點 즉 資金, 技術 等の 構造的인 隘路要因을 漸進的으로 解消해 나가면서 下都給上의 公正去來를 強化하여 中小企業의 領域을 保護하는 한편 大企業과의 보다 緊密한 協助體제도 造成해 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産業政策運用方式도 轉換하고자 합니다. 産業政策樹立過程에서 民間의 參與를 擴大하기 위하여 日本의 産業構造審議會와 類似한 機構를 設置運營하는等 民間의 政策參與機會를 넓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産業別, 業種別로 選擇的으로 하여왔던 政府의 産業支援도 機能別支援으로 改編하고, 支援期間에 있어서도 이것이 永久化되었던 弊端을 없애기 위하여 앞으로는 限時的인 支援으로 바꾸어 나감으로써 政府支援의 機會均等과 競爭의 基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4. 社會開發의 擴充

人口의 繼續的인 增加와 都市化, 그리고 所得水準의 向上에 따라 國民의 基本需要는 量的으로 擴大되고 質 높은 生活便益에 對한 要求가 增大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社會開發에 對한 投資는 相對的으로 未洽하여, 成長의 果實을 享有하려는 國民의 期待에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 實情입니다.

이와함께 그동안의 急速한 成長을 通해 絶對的인 貧困은 많이 解消되었으나 所得分配의 相對的 不均衡問題가 새로운 國民的 關心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社會開發問題

는 이제 우리가 當面하고 있는 가장 重要한 課題中の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問題들이 改善되지 않고 繼續 累積되게 되면 우리의 發展潛在力도 弱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國民福祉를 向上시키기 위한 基本前提는 雇傭增大와 物價의 安定입니다.

왜냐하면 經濟成長이 잘 되지 않고 失業이 늘어간다면 物價가 安定되지 않아 低所得層에 대한 生活에 相對적으로 더 負擔을 주는 狀況下에서는 國民福祉를 생각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修正計劃에서 가장 力點을 두고 있는 物價安定과 適正成長을 통한 雇傭增大는 國民福祉增大의 全般的인 基盤을 造成해 줄 것입니다. 社會開發部門에 있어서 教育和 保健部門이 社會參與의 機會均等を 保障하는 가장 基本的인 條件이기 때문에 가장 力點을 두고 있습니다.

教育機會를 擴大하기 爲하여 島嶼 및 僻地等 經濟적으로 어려운 地域에 對해서는 '86 年까지 中學校 義務教育을 實施하고 低所得層 子女에 對한 授業料支援 및 職業訓練도 더욱 擴大해 나갈 것입니다.

保健部門에 對해서는 現在 醫療保險이 實施되고 있지 않는 農村地域에 政策的 力點을 두어 政府의 1次 醫療서비스를 強化하고 現在 實施하고 있는 農漁村地域 醫療保險 示範事

業을 通하여 保險制度 定着을 爲한 基盤을 造成해 나갈것  
입니다.

人口가 漸次 老齡化되고 核家族化됨에 따라 老後生活을 保  
障할 수 있는 國民福祉年金制度의 必要性이 漸增되고 있음  
니다.

지난 73年 制定 以後 그 實施가 延期되고 있는 現行 國  
民福祉年金制度는 우리 能力에 비추어 볼때 過多한 財政負  
擔을 必要로 하고 있기 때문에 86年까지 우리 實情에 맞  
는 制度로 改編하는 研究를 集中할 것입니다.

이밖에도 우리 經濟社會가 안고있는 低所得層解消, 住宅 및  
上水道, 公害問題等 政府가 主導的으로 解決해 나갈 課題가  
있는데 이러한 部門에 對한 投資는 우리의 負擔能力을 考  
慮하면서 漸進的으로 擴大해 나갈 計劃입니다.

#### IV. 對外開放政策의 推進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第2次石油波動의 餘波가 韓國  
經濟에 밀어 닳쳤을때 韓國經濟는 일찌기 經驗하지 못하였던  
몹시 어려운 試鍊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試鍊期를 거치면서  
우리 自體內에서 우리의 經濟運用方式에 對한 깊은 自省이 일  
어나게 되었습니다.

石油資源이 없는 거의 같은 與件下에서 石油波動을 겪었음에  
도 不拘하고 日本은 勿論 競爭國인 臺灣, 싱가포르 등과 比

較할 때 衝擊을 吸收하는 能力에서 우리 經濟가 이들 보다 뒤떨어졌던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示唆해 주었습니다. 그러한 自省中의 하나가 對內指向的인 國內產業에 對한 過保護問題였습니다.

우리 나라는 賦存資源이 없는 國家로서 必然的으로 對外指向的인 輸出主導의 開發戰略을 追求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爲하여는 輸出產業이든 內需產業이든 產業全體가 國際競爭力을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產業體質을 갖추어야 石油波動과 같은 衝擊이 와도 이를 自體內에서 吸收하는 能力을 發揮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우리 經濟가 對外競爭導入을 爲한 開放經濟를 追求하게 된 것은 이러한 脈絡에서 理解될 수 있는 것입니다. 勿論 우리의 經濟規模가 커지고 따라서 輸入市場으로서의 國際的地位가 높아지고 아울러 우리의 輸出規模도 大幅擴大되어 外國으로 부터 國內市場 開放壓力이 增大된것이 對外開放政策을 推進하게 된 背景의 하나가 된 것도 事實입니다.

對外開放 問題에서 가장 基本的인 것은 貿易自由化 입니다. 5次5個年 計劃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86년까지 輸入을 先進國 水準으로 開放하려는 目標은 修正計劃에서도 아무런 變動이 없습니다. 輸入自由化率을 이미 81년에 74.7 %에서 83년에는 80.4 %로 提高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輸入自由化를 目標대로 원활히 推進하고 反面에 業界에 주는 衝擊을 緩和하기

위하여 86년까지의 輸入自由化 豫示制 作業을 작년 下半期부터 推進해 왔으며, 現在 거의 完了段階에 있어 早晚間 公式的으로 發表될 豫定입니다.

이번 豫示制 作業은 88년의 輸入自由化率을 一部 農水産物을 除外한 거의 모든 工産品을 開放하는 95 %水準까지 提高시킨다는 目標아래 推進되어, 5次計劃이 끝나는 '86년에는 輸入自由化率이 91.6 %까지 높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輸入自由化推進과 더불어 關稅率도 漸進的으로 引下하여 現在의 高稅率保護體系에서 低稅率競爭體制로 轉換함으로써 輸入自由化의 實効性を 提高시킴과 同時に 産業間, 品目間 均衡된 稅率體制를 維持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政府는 이미 昨年에 關稅制度를 全面改編한바 있습니다. 改編의 主要內容을 보면, 平均關稅率 水準을 大幅 引下하여 83年 23.7 %에서 84年 21.9 % 88年 18.1 %로 引下할 豫定입니다.

현재 0 %에서 100 % (暫定 150 %)까지 複雑多岐하게 홀어져 있는 關稅率도 20 % 中心稅率로 漸進的으로 收斂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從前 關稅率 20 % 對象品目이 全體의 29.6 %에서 '84년에는 41.9 %로 '88년까지는 61.8 %까지 擴大시켜 産業間 物品間에 稅率格差를 縮小시켜 産業間保護率을 均等하게 함으로써 産業의 公正競爭與件을 造成할 것입니다.

또한 關稅率을 一時에 大幅變更할 경우의 國內産業에 주는 衝擊

을 最小化하고 産業의 適應期間을 賦與하고자 '84 年부터 '88 年까지 5 年間에 걸친 關稅率豫示法律制를 導入하였습니다.

다음은 外國人 投資 및 技術導入에 對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우리의 外國人投資導入政策을 보면 投資業種은 물론 投資規模 및 投資比率에 對한 制限을 하는등 外國人投資에 對해 消極的인 面이 있었던 것이 事實입니다. 이렇게 된 理由에는 國內市場이 閉鎖되어 있어 그동안 大部分의 外國人 投資가 주로 國內市場에 進出하려는 手段에 그 目的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外國人投資의 効率性에 對한 否定的 認識이 많았던 것도 事實이며 또한 不足한 外資는 外國人投資外에 借款導入으로 容易하게 調達할 수 있었던 데 그 原因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貿易의 自由化가 推進됨에 따라 國內市場을 積極的으로 開放함에 따라 國內市場 保護의 必要性은 없어지게 되고 現在의 外國人 投資의 世界的인 趨勢가 尖端技術을 發판으로 開途國의 좋은 投資環境을 活用하려는 傾向을 보이고 있어 이의 積極的인 誘致는 國內企業을 刺戟하고 우리 産業의 高度化에 크게 寄與하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政府는 이미 작년에 外資導入法을 全面 改正하여 外國人 投資 誘致를 活性化하기 위한 制度를 整備한 바 있습니다.

外國人 投資許容 對象을 從來의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으로 바꾸어서 外國人 投資가 禁止 또는 制限되

는 業種만을 미리 選定 告示하고 그 以外的 業種에 對하여는 外國人投資를 自由化하는 反面에, 從來에 모든 外國人投資家에게 自動的으로 賦與하였던 租稅惠澤은 이번 改定에서는 國際收支의 改善에 顯저히 이바지하는 事業이나 高度技術 또는 大規模資本을 수반하는 事業等 國民經濟發展에 크게 寄與하는 業種에 限해서만 限定的으로 賦與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租稅惠澤의 內容에 있어서도 從前에는 劃一的으로 5年間 100%, 그後 3年間 50%를 免除해 주던 것을 이번에는 5年間 100% 免除 또는 100% 特別償却中에서 選擇토록 하는 代身에 租稅惠澤期間은 自由로히 選定토록 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節次도 大幅 簡素化하여 制限業種이 아니고 投資比率이 50% 未滿이며 租稅惠澤을 받지 않는 境遇라면 一定規模(約 200 萬弗) 以下の 事業에 對해서는 特別한 事由가 없는 限 自動認可토록 하므로써 認可에 따른 從來의 여러가지 不便을 없애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外國人投資에 對한 規制를 없애서 原則的으로 投資의 比率은 當事者間の 合意에 依하도록 하되 50% 以上인 境遇에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自動認可가 아닌 關係部署의 具體的인 檢討를 通하여 認可토록 하는 認可節次上에 있어서의 差異만을 두었습니다.

外國人投資와 마찬가지로 外國으로 부터의 技術導入 節次도 크게 自由化 하였습니다. 그동안 政府의 認可對象이 되었던 技術導入을 앞으로는 申告制로 轉換하여 20日 以內에 政府의



補完 및 調整 要求가 없을 境遇에는 自動적으로 受理된 것으로 看做되도록 制度的인 轉換을 하였습니다.

技術導入에 對하여는 外國人投資와는 달리 繼續하여 5 年間に 걸친 租稅減免 惠澤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한나라 經濟의 完全한 開放化를 이룩하려면 그 나라의 金融 또는 資本市場이 國際化되어야 하고 資本 및 外換去來가 自律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貿易去來의 自由化가 初期段階에 있고 外國投資에 대한 全面的인 開放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資本自由化의 必須要件인 國內物價 및 換率의 安定등이 그동안 많이 改善되었다고 하나 아직도 完全한 安定基盤을 構築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現在의 與件에서는 당장 資本自由化를 本格的으로 推進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81 年부터 資本市場의 對外開放에 對備하여 그 基本方向을 設定하고 이에따라 對外開放을 受容하기 爲한 準備作業을 着實히 遂行하여 왔습니다.

81 年 韓國의 投資信託株式會社들로 하여금 3,000 萬弗 規模의 外國人 投資 收益證券을 發行한 바 있으며 今年 下半期에는 그동안 推進되어 오던 5,000 萬弗 規模의 「Korea Fund」 設立問題를 매듭지을 豫定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野村」證券會社等 4 個의 日本證券會社의 서울 事務所 設置를 許可한 바 있고 또

한 外國證券會社의 國內證券會社와의 部分的인 合作投資 許容 方針도 이미 밝힌바 있습니다.

앞으로의 資本自由化 問題는 앞에서 말씀드린 國內外 經濟與 件의 推移를 보아가면서 漸進的으로 보다 擴大해 나갈 것 입니다.

## V. 結 言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韓國經濟는 지난 2~3年間 우리 經濟史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轉換期를 거치면서 그동안의 成長過程에서 派生된 構造的인 問題들에 對하여 効率的인 政策對應을 하므로써 이제 2次石油波動的의 衝擊을 어느程度 完全히 吸收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成果는 아직 初步的인 段階에 지나지 않으며 構造調整을 完成해 가는데에는 아직도 많은 問題와 挑戰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物價問題만 하더라도 國際原資材 價格이 다시 上昇할 憂慮가 있고 國際金融市場도 不安할 뿐만 아니라 對內的으로도 인플레이 期待 必理가 아직도 남아있는 實情입니다.

開放政策 역시 이를 推進하는데 있어서는 이에 따른 苦痛과 社會的 摩擦을 効率的으로 克服해야 하는 課題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全般的으로 볼 때 現在 우리가 갖고 있는 構造的 問題를 解決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持續的인 經濟發展과 새로운

跳躍을 이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들 課題들은 우리 모두가 國民的 努力을 集中하여 時間이 걸리더라도 着實하게 하나하나 解決해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여기에 參席하신 企業人 여러분들은 企業活動을 通하여 實質的으로 韓國經濟를 이끌어 가는 분들입니다.

우리 經濟가 當面하고 있는 課題들은 여러분의 積極的인 參與와 役割을 期待하고 있습니다.

日本 企業人 여러분들도 그동안 兩國의 經濟協力을 通해 우리의 經濟發展에 많이 寄與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韓國經濟가 發展하는데 많은 協調를 해 줄 것으로 期待해 마지 않습니다.

짧은 時間에 修正計劃과 우리의 開放政策 內容을 詳細히 說明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要約說明하는 것으로 끝내는 點을 아쉽게 생각하며 說明이 充分하지 않거나 궁금한 事項에 對해서는 質問으로 補充하고자 합니다.

感謝합니다.

# 原計劃과 修正計劃과의 比較

|                            | 單 位         | ' 8 3 |       | ' 8 6 |       |
|----------------------------|-------------|-------|-------|-------|-------|
|                            |             | 當 初   | 修 正   | 當 初   | 修 正   |
| 國 民 總 生 產                  | '80 年價格, 兆원 | 43.2  | 45.6  | 53.7  | 56.6  |
|                            | // , 億弗     | 708   | 750   | 900   | 931   |
| 經 濟 成 長 率                  | %           | 7.5   | 9.3   | 7.5   | 7.5   |
| 1 人 當 國 民 總 生 產            | '80 年價格, 千원 | 1,082 | 1,141 | 1,283 | 1,353 |
|                            | // , 弗      | 1,773 | 1,877 | 2,170 | 2,226 |
| 失 業 率                      | %           | 4.3   | 4.1   | 4.0   | 3.8   |
| 國民總生產換價指數<br>( G N P Def.) | 上 昇 率 %     | 11.0  | 2.8   | 9.5   | 2.0   |
| 商 品 輸 出                    | 經 常, 億 弗    | 305   | 232   | 530   | 357   |
| // 輸 入                     | //          | 342   | 248   | 555   | 351   |
| 經 常 收 支                    | //          | - 44  | - 16  | - 36  | 4     |
| 對 外 債 務 殘 額                | //          | 457   | 406   | 645   | 474   |
| 對 外 純 債 務 殘 額              | //          | 347   | 305   | 459   | 329   |
| 總 投 資 率                    | %           | 31.1  | 26.8  | 32.5  | 29.3  |
| 國 內 貯 蓄 率                  | //          | 25.7  | 24.2  | 29.6  | 28.6  |
| 海 外 貯 蓄 率                  | //          | 5.4   | 2.9   | 2.9   | 0.2   |

## 第 5 次計劃修正內容과 對外開放政策 推進方向 說明에 對한 日本側 質問

(株)日本長期信用銀行  
常務取締役 竹內 宏

조금전 金局長님으로부터 대단히 정중하고 훌륭한 5次計劃 修正  
內容에 對한 報告를 받아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最近, 韓國經濟를 살펴보면, 9 % 以上の 成長에다 더우기 物價가  
거의 오르지 않고 經常收支의 赤字가 縮小되어, 실로 훌륭한 經濟  
라 감탄하고 있습니다.

向後, 韓國의 經濟나 對外開放政策을 생각해본다면 그 point 는 역  
시 經常收支가 어떻게 될까 하는 점입니다.

즉, 經常收支를 可能的 바란스를 維持하면서, 對外開放政策을 推進해  
나가기 위해서는, 貯蓄率을 維持해 나가야 하는것이 하나의 課題  
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는 生産과 直結될수있는 質 높은 投資로 誘導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貴國의 經濟는 대단히 潛在 成長力이 높으며, 그러한 經濟라고  
한다면, 設備가 擴大되어감과 同時에 住宅投資, 넓은 意味로는 建  
設投資等과 같이 우선 當장에는 生産과 直結되지 않는 그러한 投  
資가 왕성해져서 결국 經常收支赤字가 擴大될 위험이 있을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質問은, 貴國으로서는 質높은 投資를 誘導하기 위한 어떤 政策을 갖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國內를 自由化 해갈 경우 成長力이 높은 經濟라고 한다면, 經常收支에 주름이 갈 염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 5次計劃에는 그런 염려가 없을것으로 생각될 정도로 훌륭한計劃입니다만, 노파심에서 이 質높은 投資를 誘導해가기 위한 政策을 여쭙고 싶습니다.

## 日本側 質問에 對한 答辯

經 濟 企 劃 院  
投資審査局長 金英泰

아주 重要한 점을 指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가장 걱정하는것 중의 하나가 방금 指摘해 주신 바와 같이 貯蓄水準을 어떻게 維持해 나가며 동시에 貯蓄된 資源을 여하히 效率的인 生産으로 連結시켜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82년부터 韓國經濟는 回復期에 접어들었다고 할수 있습니다만 回復期 初期의 內容을 살펴보면, 상당히 우려되는 점이 많았습니다.

즉 '82年度에 5.6% 成長했다고는 하지만 成長內容을 보면, 指摘하신대로 주로 住宅을 비롯한 社會間接資本에 대한 投資가 成長을 主導했다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

또한 最近에 不動產을 비롯한 奢侈性 消費가 크게 늘어난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난 '83年 下半期 以後, 우리 經濟는 그러한 社會間接資本이나 住宅에 의한 成長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던 輸出에 의해 그 成長이 主導되고 있다는 點입니다.

또한 投資部門도, 年初의 調査에 의할것 같으면, 지난 1.2年間の 不況期 속에서 企業들은 상당히 投資를 망설였으나, 조금 전에 說明드린 바와같이 物價의 안정에 힘입어 稼動率도 80%水準으로 提高되고 있습니다.

'80년 만해도 60%水準에 머물렀던것이 지금은 80%以上으로 稼

動率이 提高됨에 따라 企業投資 活動도 活潑해 지고 있으므로,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期待하는 바는,

앞으로의 成長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製造業 成長이 주류를 이룰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貯蓄의 增大뿐만 아니라, 投資의 配分도 重要하며, 政府가 金融自律化를 積極的으로 推進한 것도 그러한 理由에서라 하겠습니다.

現在 企業도 從來의 間接金融에서 直接金融으로, 그 投資財源을 第2 金融圈에서 조달하는등 經濟與件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가장 基本的인 問題 즉 貯蓄을 어떻게 動員하느냐 하는 問題입니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는 인플레이 心理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동안 物價安定을 시키는데 있어서도 그러한 인플레이 期待心理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低物價時代가 3년제로 접어들면서 政府나 國民, 企業 모두가 低物價體制에 適應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最近의 國內 貯蓄을 보면 급속도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판단으로는 그동안의 인플레이 심리가 어느정도 鎮靜되어 점차 貯蓄이 증대되는게 아닌가 합니다.

또한 現在 일본이나 대만의 貯蓄水準과 比較해 보더라도 우리가 달성하려는 30%의 貯蓄率은 그다지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東洋 3國은 어느 意味에서 비슷한 文化環境과 生



活態度를 갖고 있기 때문에 現在 우리 政府가 推進하고 있는 貯蓄手段의 개발이라든가 政策的 補完을 충실히 해 나간다면 그러한 貯蓄動員은 可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초 修正計劃을 作成했을때도 國際收支 均衡을 維持하면서 物價를 잡는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最近의 國際收支 推移를 보더라도 물론 輸入開放化 政策 推進에 따라 일부의 輸入은 促進되는 要因도 있으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輸入自由化 促進과 더불어 原油節約과 最近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대체사료개발 등을 통해서 輸入사이드에서 절약노력을 強化한다면, 國際收支均衡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장 큰 問題는 貯蓄을 어떻게 달성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또 貯蓄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物價安定에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政府가 추진하는대로 物價安定만 이룩된다면 國內 貯蓄問題와 國際收支均衡問題는 기필코 달성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日本の 自由化 政策과 民間의 對應

日 商 岩 井 株 式 會 社  
取締役 社長 植 田 三 男

방금 소개받은 日商岩井의 植田입니다.

오늘 韓日經濟會議에서 스피치의 機會를 갖게 된데 대해 朴泰俊團長을 비롯한 列席하신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의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테마는 日本의 自由化 政策과 民間對應이지만 오랫동안 貿易에 종사해온 저로서는 體驗에 의한 私見等과 함께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뒤이어 韓國의 自由化 政策에 대한 상세한 說明이 있을것으로 듣고 있어 貴國이 門戶開放에 거는 熱意의 정도를 통감함과 同時に 이 自由化는 貴國이 先進國으로서의 第一步를 내딛는데 匹할 수 없는 과정이며, 이러한 어려운 시련의 극복이 貴國에 빛나는 장래를 약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日本の 自由化 政策의 歷史를 되돌아 보면 크게 두가지의 起伏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제 1 시기는 무역과 資本의 획기적인 自由化가 계속된 1960年代입니다.

제 2 시기는 歐美와 경제마찰이 심각화 함에 따라 日本의 商品・서비스市場의 개방, 더욱 金融市場의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1980

年입니다.

1960年代는 後發國 日本이 歐美先進國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데  
에 최저한의 必要條件을 갖추기 위한 自由化였으며 量的인 自由  
化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최근의 自由化는 저희 나라가 세계 一割國家로서의  
責務를 다하기 위한 것으로, 어느 쪽이나 하면 質的인 面에서의  
自由化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먼저 1960年代의 自由化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의 自由化는 60年의 前半이 주로 무역의 自由化였으며 후  
반은 資本自由化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종래의 폐쇄적  
온실적인 환경이 소멸하는 것으로써 오늘날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國民間에는 위기감이 높아졌던 것입니다.

당시 매스컴은 이러한 모습을 幕末 鎖國의 꿈을 깬 黑船의 이  
름을 빌려 海外로부터의 貿易自由化 요구를 第一의 黑船襲來, 資本  
自由化 要求를 第二黑船 襲來로 表現했던것을 저의 腦裡에는 아  
직도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結果的으로, 60年代의 自由化는 日本 경제에 큰 混亂  
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973年까지의 高度成長을 이룩하게  
한 刺戟劑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自由化의 경위를 말씀드리면 1959年 가을의 GATT東京총회에서  
貿易自由化率이 40%정도에 머물고 있던 日本은 美國을 비롯한  
先進諸國으로부터 自由化 공세를 받게 된것입니다.

세계의 대세는 벌써 日本貿易의 패쇄성을 許容않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政府는 60年6月 「貿易・外貨 自由化 計劃大綱」을 결정, 적극적으로 貿易自由化를 촉진하는 뜻을 内外에 선언했습니다.

더우기 61年9月에는 「貿易・外貨 自由化 促進計劃」이 결정되어 62年10月까지는 90%라고 하는 自由化率을 設定하여 商品別 自由化 스케줄을 明示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貿易自由化는 착실히 進展, 예를 들어 62年4月에는 종래 포지티브 리스트方式이었던 自由化品目表를 原則自由, 非自由化品目만을 예거하는 네가티브 리스트方式으로 轉換하였으며, 同年 10月에는 特殊사정으로 自由化率은 88%였지만 거의 예정한 대로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965년에 自由化率은 90%를 넘어섬과 함께 가장 自由化가 어렵다고 했던 完成車의 自由化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第1次の 무역 자유화는 완료된 것입니다만 그동안 63년에는 GATT 11條國에의 加入, 64년에는 IMF 8條國에의 加入, OECD에도 가맹하는 등 名實 俱히 先進國이 된 것입니다.

이후 무역 자유화는 64년에 開始된 케네디·라운드를 무대로 關稅의 대폭적인 引下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貿易自由化 대신 사람들의 關心이 쏠린 곳이 資本自由化였습니다.

좀더 具體的으로 말씀드리면 日本에의 直接投資・外國企業의 進出 문제입니다. 資本力, 技術力에 있어서 앞선 外國企業에 의한 日本

企業의 合併, 日本市場의 獨占을 걱정하는 가운데 1967년 제1차 自由化로부터 시작, 73년의 제5차에 걸쳐 5회의 자본자유화가 단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서 企業新設일때 外資比率 50%까지 自動認可를 100%自動認可로 하는 소위 自由化業種의 범위를 점차 擴大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최종단계에서는 100%自由化를 原則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農林水産業, 石油業, 皮革, 同 제품제조업을 要個別審査業種, 鑛業을 50% 自由化業種, 전자계산기, 의약품등 17個業種에 대해서는 2~3년의 유예기간뒤 100% 自由化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경과에 의해 日本은 70年代初까지 일단 무역 및 자본자유화를 完了하여 先進國의 一員으로서 체면을 갖추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무역자유화에도 不拘하고 生産品의 大量流入에 의한 日本의 競爭企業의 도산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資本自由化에 의한 日本企業의 도태도 없었습니다.

無事히 自由化의 파도를 이겨 이를 成長의 양식으로 한 原因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는 그 原因의 하나로 民間企業의 對應이 좋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첫째, 内外經濟環境이 自由化를 促進하는데 극히 유리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60年代는 세계경제 全體가 黃金時代로 불리워 진것처럼 눈부신 成長을 계속했으며 그 가운데서도 日本經濟의 急成長은 기적이라고

까지 말하여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東洋의 작은市場인 日本에 대한 歐美 企業의 판매 활동・進出意慾은 自由化되었다고 하지만 그렇게 높지 않았으리라고 推測되고 있습니다.

더욱 맞서 싸울 日本企業은 1950 年代 후반부터의 投資붐에 의한 급속한 設備近代化, 大型化를 달성하여 對等한 分野를 擴大한 것도 原因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번째 지적되고 있는點은 실제로 自由化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時間을 들여 단계적으로 실시했다는 사실입니다.

타임・스케줄을 明示한뒤 단계적인 自由化의 실시는 民間企業에 對應의 여유를 주어 困難을 회피함이 効果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너무도 점진적이라는데 대한 海外로부터의 비판을 받은것은 사실입니다.

세번째 日本企業의 自助努力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이 難局을 克服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原因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것입니다. 당시 일본의 企業은 國際競爭力을 기르기 위해 合理化・近代化를 단행하여 더욱 自己資本의 充實과 이에 따른 體力배양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經營努力은 항상 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지만 自由化를 계기로 加一層 注力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좀더 具體的으로 말씀드리면 大型設備投資에 의한 大量生産體制의 확립, 新技術의 導入, 開發, 企業合併에 의한 經營체질의 強化, 生産의 통합과 再配置, 生産의 特화와 전문화가 이루어 진것입니다.

예를 들면 當時 國際競爭力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업종으로 보았던 自動車産業에 있어서는 各社 모두 大量生産方式에 의한 코스트 삭감을 기대하여 계속 設備投資를 하여 왔읍니다. 엔진, 디자인 등의 면에서도 改良에 노력하였읍니다.

또 60年代初부터 日本에서는 一種의 集中化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時間이 감에 따라 大型合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읍니다.

64년의 三菱重工業의 合併, 66년 日産自動車와 프린스自動車, 70년 八幡製鐵과 富士製鐵등이 그 典型的인 예이지만 저희 商社 업계에서도 國際化에 對應하기 위한 많은 合併, 再編成이 이루어졌읍니다.

合併에 의한 企業規模의 확대가 新日本製鐵에 있어서 연속주조法의 도입을 가능하게 한등 여러가지 면에서 日本 企業의 國際競爭力 強化에 기여했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섬유산업의 生産工場의 再配置, 效率的 통합, 中小企業의 特定品目에의 特化등도 合理化의 일환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편 全産業分野에 있어서 中小企業群의 강력한 發展이 또한 國際競爭力 強化로 이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日本은 貿易 및 資本의 自由化를 天時, 地利를 얻어 여가에 自助努力을 기울여 克服하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최근의 自由化에 대하여 간단히 현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難關을 돌파하여 高成長을 유지한 日本은 國際競爭力이 높아짐에

따라 통상적인 國際收支의 黒字에 直面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歐美先進國과의 경제・통상마찰이 深刻化되어 이에 따라 自由化가 새로운 進展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당초 섬유・철강・TV・自動車등 개별상품의 輸出急増에 대한 비판이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81년 5월 對美自動車輸出自律規制에 합의한 이후 對日批判의 대상은 日本의 상품・서비스등의 輸入 및 金融資本市場으로 옮겨져 복합마찰化 된 것입니다.

먼저 日本의 상품 및 서비스市場의 폐쇄성이 문제가 되어 批判 받은點은 日本의 關稅뿐만 아니라 輸入節次, 各種檢査基準, 流通機構, 商慣習, 言語文化등 非關稅 障壁이 存在하고 있으며, 市場接近이 어렵다는것 등이었습니다.

실제로 日本의 諸制度, 절차 가운데는 不合理한 점, 번잡한 점이 있음은 사실이며 이를 고치는 것에 인식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의 批判의 대부분은 日本 실정에 대한 認識不足 퍼선헌 법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日本의 무역업자가 보았을 때 무엇보다도 歐美의 輸出 努力이 充分치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日本은 企業間の 競争이 심하고 소비자의 外産選好가 강한 나라이며 각 商品에 대한 니즈에 맞는 輸出努力이 있으면 충분히 參與가 가능한 市場이라고 보겠습니다. 실제로 外國商品으로써 日本에서 높은 마케트 쉐어를 확보하고 있는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日本으로서도 可能한 限 日本市場을 開放하여 諸外國이 日本市場에 接近하기 쉽게 조치해야할 必要가 있음은 말씀드릴것도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抬頭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를 눌러 自由貿易體制의 유지 強化에 의한 世界經濟의 再活性化를 이룩하자는 現代 國際的 課題에 기여하기 위해서 입니다. 세계무역의 擴大均衡,自由貿易의 維持 강화에 의해 하루빨리 日本도 歐美선진국과의 통상마찰을 해소하여 調和있는 경제 통상관계의 회복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러한 基本的 視點에서 日本은 數次나누어 市場開放政策을 실행하여 왔읍니다.

먼저 第1次 市場開放이 1981년 12월 1일 발표되었읍니다. 그 중요한 內容은

- ① 輸入檢査節次의 改善
- ② 東京라운드의 關稅率段階的引下措置의 早期實施
- ③ 殘存輸入의 완화

등이 었읍니다.

이어서 82년 5월 第2彈이 결정되었읍니다. 제2탄은 수입검사·통관절차 개선 및 關稅率의 引下, 殘存輸入制限 緩化에 덧붙여 서비스 무역의 自由化, 유통기구 비지네스慣行의 改善, 수입담배, 정부 調達의 직접화등 폭넓은 市場開放措置가 포함된 것이었읍니다.

또 83년 1월 제2탄과 거의 같은 項目에 대해 한층더 改善을 하기위한 제3탄이 발표되었읍니다.

이상의 조치에 따라 日本市場은 殘存輸入制限과 關稅에 대해서는 歐美水準 또는 歐美이상으로 開放的이게 되었습니다.

또 非關稅 障壁에 대해서도 적어도 制度上 外國產品과 日本產品사이의 差別은 없어져 소위 外國產品에 대한 內國民 대우가 이루어졌습니다.

더욱 制度나 시스템自體가 國際的으로 봐서 극단적인 不合理한 케이스는 적어졌다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存在하고 있다고 해도 苦情處理體制를 充實히 해서 改善을 위한 루트가 確立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市場開放은 歐美와의 通商마찰과 관련하여 실시된것이기 때문에 貴國을 비롯한 東南아시아 각국에 대한 배려가 빠져 있다는 批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勿論 日本으로서도 歐美편중의 市場開放은 의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실정조사 및 對策을 檢討中인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昨年末부터 歐美와의 경제마찰은 金融・資本市場을 둘러싼 문제로 焦點이 옮겨진 것은 여러분도 이미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日本으로서도 國際貿易과 똑같이 國際金融・國際通貨面에서도 應分の 責務를 해야할 必要가 있다는 觀點에서 金融・資本市場의 自由化・國際化에 肯定的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약간의 前進을 보고 있습니다만, 金利의 自由化, 円의 國際化 金融퍼시리티의 擴大등에 앞으로 改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最近 一聯의 自由化政策 가운데 日本民

間企業에는 지난날과 같은 深刻한 위기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國策으로 추진하고 있는 自由化政策에 대해 적극적으로 協力하는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商社도 外國產品 수입을 위해 한층 더 國內마케팅을 강화함과 함께 輸入미션에의 參加, 貴國에 대해서는 1980년 제 자신이 團長으로 參加했습니다. 또 제품수입 확대를 위한 비지네스 컨설턴트등을 통해 市場開放에 協力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유있는 對應이 可能하게 된것도 오랜 경영노력의 結果입니다만, 특히 60年代의 어려웠던 自由化 가운데 國際競爭力 강화를 위한 自助努力이 크게 기여한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날 日本企業은 日本市場이 점점 開放되는 가운데 있어 經營基盤을 넓게 國際市場에서 구하는 多國籍化, 國際企業化를 指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自由貿易體制의 유지·강화에 貴國의 自由化가 크게 공헌함과 함께 自由化의 거센 파도 가운데 貴國의 企業이 가일층의 發展을 이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의 스피치를 마치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日本側の 説明에 대한 韓國側質疑

全國經濟人聯合會  
專務理事 申奉植

韓國은 昨年부터 輸入自由化를 그리고 今年부터는 外國人에 對한 投資自由化를 本格化하고 있습니다.

이와 關聯하여 60年代初의 日本經濟와 오늘날의 韓國經濟를 比較할때 産業實態, 政府의 政策, 內外環境與件 等に 있어 어떤點이 같고 어떤點이 다르냐 하는데 많은 關心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觀點에서 몇가지 質問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日本이 貿易自由化를 本格化한 1961年을 前後한 時期에 日本의 貿易收支狀態는 어떠했었느냐 하는 點입니다. 즉 當時 日本의 貿易收支는 黑字基調가 定着되었던것은 아니냐 하는 點입니다.

둘째, 日本이 1961年 輸入自由化를 本格化할때 關稅率調整이 並行되었던 것으로 아는데 平均關稅率이 上向 調整되었는가 아니면 下向 調整되었는가 하는 點입니다.

셋째, 1962年 10월에 88%까지 自由化率이 急速히 進行되다가 그後 90%를 넘어서기까지는 3年餘 以上 걸렸는데 그 理由는 무엇이었던가 하는 點입니다.

네째, 自由化를 앞두고 또는 그 過程에서 民間企業의 大量設備

近代化投資，企業合併，生産統合과 再配置 等 産業構造 乃至 組織의 大規模變革이 있었는데 當時 政府의 政策的 機能 乃至 役割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는 點입니다. 즉 投資財源의 支援，産業再編成을 위한 政府의 役割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는 點입니다.

다섯째，日本은 自由化 過程에서 一種의 集中化 現象이 이루어지고 大型合併이 이루어졌다 하는데 그 當時에 日本의 「獨占禁止에 關한 法律」은 이러한 現象을 어떻게 다루었느냐 하는 點입니다.

여섯째，日本의 自由化 過程에서 中小企業群의 強力한 發展이 國際競爭力 強化의 큰 要因이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中小企業群의 發展은 中小企業의 自力에 依하여 이루어진 것인가，아니면 政府의 強力한 財政・金融的 支援 또는 行政支援에 依한 것이었던가，그리고 政府支援이 크게 作用했다면 支援方法의 重要的 것은 例컨대 어떤 것이었던가 하는 點입니다.

끝으로 日本은 82年 5月以後 폭넓은 市場開放措置를 推進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韓國業界가 日本市場에 接近하기 爲한 方法으로서 무엇을 勸告하실 수 있으시겠는지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感謝하겠습니다.

## 日本の 自由化 政策과 民間의 對應

( 韓國側 質問에 對한 日本側 答辯 I )

日 商 岩 井 (株)  
取締役 社長 植田 三男

質問을 받은 많은 문제점에 對해 제가 統計 資料는 갖고 있지 않으므로, 그 點을 省略하고 答辯하고자 합니다.

먼저 中小企業의 問題가 되겠습니다만,

日本 中小企業의 發展過程은 긴 歷史를 갖고 있습니다.

그간에 政府政策의 適切한 指導, 즉 金融面이라든가 技術面, 그리고 稅制面等 여러가지 面에 있어서 適切하고 指導的인 役割을 했다는 점입니다.

또 大企業으로 부터의 技術的인 支援, 或은 人材의 支援 등 여러가지로 大企業과의 연계 하에 發展해 온 過程도 있습니다.

물론 個個의 企業이 自主적으로 開發하고 努力하여, 優秀한 技術 開發이라든가 優秀한 企業을 經營해 왔다는 여러가지의 factor가 있습니다.

그러한 點에 있어서의 中小企業의 發展이 이루어져 大企業과의 連繫下에서 커다란 피라밋형의 事業部分을 形成해 왔습니다.

이러한 것이 日本 企業의 國際競爭力을 크게 向上시킨 점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貴國의 경우 어떤 形態인지 詳細히는 알수 없지만, 그 點에 對해

中小企業의 發展이 뒤쳐져 있고, 또 育成에 對한 施策이라든가 大企業, 政府로 부터의 支援이 日本과는 多少 다른 點이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特別히 日本의 中小企業發展에 對해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大型 合併에 있어서의 獨禁法과의 關係가 되겠습니다만, 물론 獨禁法과의 關係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가장 代表的으로 이루어졌던 八幡製鐵과 富士製鐵의 合併에 있어서 갖가지의 論議가 있었습니다.

그 경우 어느정도 制約을 concentrating 外로부터 받으면서 그 制約의 範圍 안에서 合併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물론 獨禁法の 違反이라고 하는 問題는 생기지 않았읍니다. 그밖에 大企業合併에 있어서도 같은 말을 할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制約의 範圍內에서 合併事業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韓國企業이 日本에 對한 어프로치 즉 액세스의 問題입니다.

韓國뿐만아니라 歐美의 企業人에게도 共通됩니다만 우선, 日本의 市場을 正確히 把握하여 마아케팅을 잘하는 것이 重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잘해 나아가야 하는가에는 여러가지 方法이 있습니다. 예컨데 여기 계신 赤澤璋一氏가 理事長으로 있는 JETRO의 機能을 충분히 利用해 주시고, 赤澤氏의 써제스트로서 答辯을 대신하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 日本の 自由化 政策과 民間의 對應

( 韓國側 質問에 對한 日本側 答辯Ⅱ )

日本貿易振興會

理事長 赤澤 璋一

植田社長の 指名을 받았기 때문에 植田社長の 答辯에 대해 補充說明을 드리겠습니다.

61 年度에 日本이 貿易自由化를 斷行했을 당시 日本의 國際收支는 대단한 赤字狀態에 있었습니다.

이런 赤字狀態 속에서 自由化를 斷行했습니다만, 물론 政府府內, 產業界에서도 論爭이 격심해서, 自由化를 斷行하는것이 쉽지 않았다는 點도 事實입니다. 단지 그때 政府로서는 可能限 國內產業強化를 위한 政策을 시행한다는 方針을 取하는 한편, 각 產業이 自由化 함으로써 競爭가운데 強化된다고 하는, 말하자면 日本產業의 바이텔리티를 信賴하여 自由化를 斷行했다는 것이 그 當時의 實情이었습니다. 從來, 日本 政府로서는 大企業에 關係서는 물론이지만 中小企業에 對해서는 대단히 세심한 各種支援政策을 取해 왔습니다.

가장 큰 問題는 역시 中小企業이 資本面에서 脆弱하기 때문에 특수한 金融機關을 설치하여 그 金融機關으로 하여금 金融을 支援해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中小企業의 技術向上을 위해서 몇가지 法律을 制定 그 法律에 의거 中小企業 相互間的 技術交流를 容易하게 하고, 또한 大



企業으로 부터의 技術移轉, 技術指導를 強化한다고 하는 方向을 確實히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自由化率이 어느정도까지 올라가다가 약간 停滯하는 傾向을 보였으나, 그것은 오로지 國內事情에 의한 것으로서 日本의 경우에도 몇가지의, 主로 中小企業關聯商品에 충분한 國際競爭力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관점에서, 極히 段階的으로 慎重한 自由化를 斷行해 가지 않을수 없었던것이 그 當時의 實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韓國에도 KOTRA 라고하는 유사기관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JETRO도 1958년 特別法에 의해 설치되었지만, 1960年代는 통틀어 日本의 國際收支는 慢性的인 赤字狀態였기 때문에 當時 JETRO의 役割은 오로지 輸出振興이라는 한가지 面에 한정되어 있었읍니다.

특히 中小企業製品輸出에 關해서는 JETRO가 全面的으로 支援하는, 말하자면 各國의 對外的인 市場調査와 그에관한 國內의 中小企業指導라는 점에 있어 役割을 다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80年代 들어서 아시는 바와같이 日本의 貿易收支黑字가 停滯되는 貿易構成으로 되었으므로, 특히 最近에 저희들은 종래로 부터의 全世界에 걸친 市場調査라는 機能을 여전히 強化해 가면서 重點的으로는 各國으로의 輸入促進業務를 크게 轉換해 왔던 것입니다.

그와 同時에 역시 各國에 對한 産業技術의 協力도 強化해 왔읍니다.

예를들면 專門技術者를 파견하여 工場에서 指導를 한다든가 或은

그 나라의, 發展途上國이 되겠습니다만,

發展途上國의 產業界에 계신분들을 招聘해 各種 세미나를 開催함과 동시에 日本國內 企業을 視察한다든가 그런 企業의 實質的인 現役經營者나 技術者와 간담회를 할수 있는 機會를 만드는 것도 저희들의 任務中の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輸入促進 日本市場에 對한 악세스問題가 되겠습니다만, 여러가지 意味에서 日本의 商品別・地域別 日本國內企業家, 輸入에 關心이 있는 企業, 즉 外國商品을 輸入하고 싶다고하는 企業體의 商工人 名錄을 거의 整備完了한 狀態입니다.

그런 意味에서 저는 東京・大阪 등 大都市에 한하지 않고 北海道・가고시마・오끼나와에 이르기까지 日本國內에서 輸入에 關心을 가진 모든 企業을 地域別・商品別로 망라한 商工人 名錄이 있으므로 만약 日本國內의 어떤곳에 contact 하면 좋을까 하는 質問이 있으면 JETRO로서는 기꺼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形態로 꼭 必要한 商品에 對해서 contact 해 주시면 答辯은 충분히 可能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日本의 市場이란것은 植田社長도 말씀하셨드시 國內인 경우에도 대단히 경합이 치열한 市場이기 때문에, 한가지는 品質・價格問題가 있겠으며, 또 하나는 韓國의 경우에는 日本의 Life cycle 과 대단히 유사함으로 問題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역시 日本의 소비자 或은 소비자의 指向하는 바에 相應하는 商品이 아니면 구체적인 市場參加는 대단히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크게 分類해 말씀드리자면 機械製品・工業製品에 關해서는 가장 큰

問題가 되는것은 品質과 그 製品에 對한 アフター 서비스, 商品供給, 메인テナンス라는 것이 中心이 됩니다.

그리고 消費物資에 關해서는, 現在 日本의 生活物品은, 韓國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最近 10여년간 상당히 國際化하였으므로 國際的인 水準이란 점이 있는 反面에, 역시 日本의 獨特한 生活習慣이 있으므로 여기에 맞췄하는 製品이 아니면 아무리 日本에 가지고 들어 오더라도 좀처럼 팔리지 않는 傾向이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만, 이것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第 11 回 韓日・日韓貿易擴大均衡委員會 合同會議 經過報告

日韓貿易擴大均衡委員會  
委員長・京本善治

日韓貿易擴大均衡委員會委員長으로서 第 11 回 韓日・日韓貿易擴大均衡委員會會議 및 그 뒤의 活動에 대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第 11 回 韓日・日韓貿易擴大均衡委員會會議는 1983 年 11 月 9 日 부터 사흘간 新瀉에서 開催되었습니다.

이會議에는 日本側은 저를 비롯한 16 名, 韓國側에서는 柱鳳赫委員長 以下 20 名이 出席하여

- (1) 韓日兩國 貿易・經濟의 現況
- (2) 韓日兩國 貿易制度의 改善
- (3) 韓日貿易의 增進 및
- (4) 其他 諸問題

등에 대하여 진지하게 協議하고 마지막날에는會議의 協議要旨를 정리 매듭 지었습니다.

(1) 韓日兩國의 貿易・經濟의 現況에 대하여는 雙方的 基調報告를 통하여 自由貿易主義의 維持・發展을 위하여 相互協力하고 兩國間의 貿易擴大均衡을 비롯한 經濟協力の 必要性을 再確認 하였습니다.

(2) 韓日兩國 貿易制度改善에 관하여 韓國側으로 부터

- ① 日本特惠關稅의 擴充

② 韓國關心品目에 대한 關稅철폐 및 引下

③ 規準認定·통관절차등에 있어서 소위 日本의 非關稅障壁  
改善

등에 대한 강력한 要請이 있었읍니다.

이에 대하여 日本側은 이러한 問題에 대한 實情과 최근의 改善狀況을 說明하여 韓國側의 理解를 구함과 함께 韓國側의 要望을 日本政府에 전달할 것을 약속했읍니다.

한편 日本側으로 부터는

① 在韓外國商社에 대한 輸出入業 認可에 대한 諸制約의 철폐·완화

② 在韓外國商社에 대한 認定리베이트에 대한 課稅制度의 改善

③ 實質적인 對日輸入制限措置가 되고 있는 輸入多邊化品目制度의 철폐

등을 要望하고 韓國側의 側面協力을 要請했읍니다.

이러한 日本側要望에 대하여 韓國側은 自由化, 開放政策進進方向에 대한 說明과 함께 이 問題들에 대해 韓國政府에 전달을 약속하는 要旨의 답변이 있었읍니다.

(3) 韓日間 貿易의 增進에 關한 議題에 있어서 韓國側으로 부터

① 日本流通業界와의 定期懇談會 設置

② 日本의 對韓 官民合同 大型 購買使節團의 再派遣

③ 在韓日本關係機關을 통한 韓國商品의 G마크 申請의 實現

④ JETRO의 輸入促進事業에 있어서 韓國을 비롯한 開發途

上國으로 부터의 輸入促進 배려에 대한 提案과 要望이 있었습니다.

日本側은 이러한 韓國側의 提案・要望을 關係機關에 전달하기로 回答했습니다.

이와 關聯하여 韓國側으로부터 日本의 市場開放 措置가 歐美先進國에 偏重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日本側은 이 市場開放措置는 内外정세에 對應하여 大局的인 自由貿易體制強化라는 관점에서 취한 措置임으로 理解를 구했습니다.

日本側으로부터는 日本의 對韓輸出이 韓國의 對外輸出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現況을 說明, 第3國 Plant 輸出에 있어서 韓日協力 推進에 따른 兩國 貿易增進의 重要性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雙方은 韓日플랜트輸出協力會議의 協議를 지켜보며 當委員會 會議는 兩國協力量드 조성에 努力한는데 意見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4) 마지막으로 기타 諸問題에 있어서 실제 輸出入去來에 있어서 서로 支障을 받고 있는 점, 상대방이 모르고 있는 장애등에 대하여 허심탄회한 意見交換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議論의 有意義性에 비추어 앞으로도 이러한 努力을 계속하여 問題의 改善解決에 努力할 것을 確認하였습니다.

이러한 허심탄회한 對話야말로 지금까지 없었던 이번 會議의 特徵이 아닌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다음 第12回 會議는 1984年 가을 적당한 時期에 韓國에

서 열기로 했습니다.

第 11 回 委員會 會議은 이상과 같습니다만, 그뒤의 雙方委員會 活動에 대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會議가 끝난뒤 日本側委員會는 韓國側의 要望을 「第 11 回 韓日・日韓貿易擴大 均衡委員會 會議의 韓國側 對日要望」으로 정리하여 작년 12 月 26 日 政府關係 當局과 關係機關에 提出하여 韓國側 要望 實現을 強力히 要請하였습니다.

다행히 關稅 撤廢・引下問題는 올 4 月 1 日부터 상당한 引下가 實現되며 韓國關心品目 가운데 「게」 「集積回路」등의 關稅가 東京 라운드 베이스와는 별도로 더욱 引下 또는 철폐되기로 되었습니다.

또 特惠關稅에 대해서는 鑛工業品에 관한 실링총규모가 1984會計年度에는 前年度對比 約 50 % 擴大 됨으로 日本의 特惠關稅制度의 最大 受惠國인 韓國으로서는 그 效果가 클것으로 짐작됩니다.

非關稅장벽에 관하여서도 韓國側으로 부터 再三 要請한 電氣用品, 개스器具등 形式認可 節次에서도 올 2 月부터 外國의 檢査데이터 活用이 容認됨으로써 申請절차는 한층改善, 간소화 되었음을 報告드리는 바 입니다.

더욱 G마크 選定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서는 日本産業디자인 振興會의 協力으로 韓國側의 理解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상 報告드린 이외의 韓國側 要望에 대하여서는 그 實現을 위해 계속하여 關係當局 및 機關과 접촉해 갈 작정입니다.

한편 韓國側 委員會는 日本側要望事項을 韓國貿易協會 公文書로 작년 11 月 18 日字로 政府關係 當局에 提出하고 日本側 要望實現

을 強力히 要請하였습니다.

이러한 日本側要望 가운데 在韓外國商社의 輸出入業認可 制約緩화에 대해서는 큰 進展은 없으나 外國人投資企業體의 貿易去來 許用 範圍問題는 外國人投資比率이 50 %未滿企業의 경우 輸出入對象이 自家製品에 局限되었었으나 올중에는 他社製品도 可能토록 對象을 擴大하는등 自由化가 進歩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順次완화 될 것으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또 在韓外國商社에 대한 認定리베트率 問題도 昨年度 去來實績을 근거로 올 안에는 再調整되기로 되었습니다.

덧붙여 韓國의 輸入多邊化品目制度에 대해서는 韓國의 自由化政策 進展에 따라 점차 對象品目を 減小하는 方向으로 檢討되고 있습니다.

이상 韓日・日韓 貿易擴大均衡委員會의 지난 1年間の 活動狀況報告를 말씀드렸습니다.



## 第 9 回 韓日・日韓機械工業協力專門委員會

### 合同會議經過報告

日韓機械工業協力專門委員會

委員長 浦川清人

第 9 回 合同會議의 合意內容과 그 뒤의 經過狀況에 대하여 報告 드리겠습니다.

同 合同會議는 日本側의 19 名과 韓國側 張炳贊委員長 以下 25 名이 參加한 가운데 1983 年 4 月 11 日부터 이틀동안 韓國 濟州道 濟州市에서 開催되었습니다.

會議는 具體的인 討議에 앞서 日・韓雙方의 基調講演이 있었습니다.

韓國側은 「韓國의 外國人投資에 관한 紹介」가 韓國財務部資料로서 紹介되었습니다. 그 內容은 韓國의 經濟政策, 外資政策 全般을 理解하는데 크나큰 參考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日本側으로 부터는 「最近의 日本 機械工業에 대하여」 報告가 있었습니다. 이 報告는 日本機械工業의 現狀과 課題를 中・長期的 觀點에서 說明한 內容으로써 눈부신 成長을 하고 있는 韓國機械工業으로서도 參考가 될 부분이 많아 많은 質疑應答이 交換되었습니다.

계속해서 議題別 討議에 들어가서

첫째 機械工業의 資本・技術協力

둘째 第3國 플랜트 輸出의 協力

세째 韓國機械工業界의 日本視察團 派遣에 관하여

네째 韓國의 세일즈・엔지니어管理者 양성에 대하여

다섯째 其他

등의 테마에 대한 活潑한 討議가 이루어 졌습니다.

먼저 機械工業의 資本・技術協力에 대해서는 電子 및 電機를 除外한 機械工業 全般을 對象으로 하여 合作投資・技術 제휴 韓旋을 위한 窓口을 韓・日 雙方이 設置키로 하고 日本側은 日韓經濟協會에 韓國側은 韓國機械工業振興會가 각각 窓口이 되도록 合意하였습니다.

또 韓國의 機械部品工業을 支援하는 目的의 日本의 機械部品 展示會를 韓國에서 開催하고자 하는 韓國側 希望에 대하여서는 機械部品이 多様多種임으로 韓國側의 希望品目을 리스트・업한뒤 對應을 考慮키로 하였습니다. 두번째 議題인 第3國 플랜트輸出協力에 대해서는

日本側은 日本機械輸出組合, 韓國側은 韓國機械工業振興會가 窓口이 되어 1983年 10月 서울에서 第1回 合同會議를 열기로 하고 앞으로 年1회의 合同會議를 開催키로 合意하였다는 內容의 報告가 있었습니다.

그 뒤 이 合意에 따라 第1回 韓日・日韓 플랜트輸出協力會議가 1983年 10月 19日부터 이틀동안 서울에서 開催 되었습니다.

이 會議에는 日本側은 浦川委員長 以下 22名이, 韓國側은

張炳贊委員長 以下 21 名の 代表가 出席하여 低迷하는 世界플랜트 輸出市場에서의 兩國의 協力方案에 대하여 眞지한 討議가 있었습니다.

이 會議는 兩國의 Plant 輸出의 現狀과 問題點에 대한 發表가 있는 다음, 兩國의 Plant 輸出에 대한 金融・輸出保險 등 制度說明과 兩國의 協力可能分野에 대한 活潑한 意見交換이 이루어졌습니다.

세번째 議題인 韓國機械工業人の 日本視察에 대하여 韓國側은 年 2 回 派遣을 希望, 그 뒤 韓國機械工業振興會 羅昌洙專務理事를 團長으로 하여 12 名の 視察團이 작년 9 月 25 日 來日하여 10 月 4 日까지 關東 및 關西地區의 産業視察, 쓰쿠바(筑波)의 機械技術研究所의 見學등의 日程으로 日本産業 理解에 정력적으로 努力했습니다.

네번째 議題인 韓國 Sales Engineer 管理者 養成 協力問題에 대해서는 目的에 알맞는 制度 및 機關이 日本에는 없다는점과 各 企業單位로서도 機種에 따라서는 對應이 다르다는점 등 어려움이 있으나 세미나의 開催, 專門家の 派遣등에 대해서는 前進的인 方向에서 檢討키로 했습니다.

다섯번째의 기타議題에 있어서

먼저 日本側으로 부터 日本엔지니어링産業의 現況說明과 엔지니어링振興協會가 主催하는 엔지니어링심포지움에의 參加案內 說明이 있었습니다.

韓國側은 여기에 큰 關心을 갖고 심포지움參加를 眞지하게 檢討하기로 했습니다.

그뒤 이 심포지움은 1983 年 11 月에 開催되었으며 韓國에서는 韓國技術用役協會로 부터 日本 엔지니어링産業의 實態理解를 위해 15 名이 이 심포지움에 參加했습니다.

다음 韓國側으로부터 1983 年 10 月 開催豫定の 韓國機械展에 대한 參觀協力 要請이 있었으며 日本側은 적극 協力키로 約束했습니다.

또 日本側은 1983 年 9 月 開催의 化學 Plant Show에 대한 案内説明을 했으며, 韓國側은 同 쇼의 參觀과 포럼에의 參加를 적극 檢討키로 하고 그뒤 9 月の 韓國機械工業 訪日視察團의 滯日 스케줄을 本쇼 參觀에 맞추어 實行했습니다.

이 상으로써 第 9 回 韓日・日韓機械工業協力專門委員會 合同會議 및 그 뒤의 경과에 대하여 報告를 마칩니다.

## 第 4 回 韓日・日韓 經濟協力長期構想研究委員會 合 同 會 議 經 過 報 告

日韓經濟協力長期構想研究委員會  
委員長 秋 田 兼 三

日韓經濟協力長期構想研究委員長으로서 日韓・韓日經濟協力長期構想研究委員會 제 4 회 合同會議 經過를 中心으로 活動狀況을 報告드리겠습니다.

제 4 회 合同會議는 작년 9 月 26 日부터 27 日까지 이틀동안 서울에서 開催되어 日本側은 本人, 秋田이하 16 명이, 韓國側으로부터는 朴 위원장이하 17 名이 出席하였습니다.

먼저 日・韓 双方은 自國經濟의 現狀과 展望에 대한 基調報告를 하였으며, 이어서 日本側의 希望에 따라 韓國財務部의 擔當官이 韓國의 現行 外資導入政策과 이의 改正方向에 대해 자세한 說明을 했습니다.

合同會議에서는

- ・ 太平洋經濟共同体構成을 위한 협력
  - ・ 第 3 國 資源의 共同開發協力
  - ・ 兩國 分業体制의 가능성
  - ・ 복합기술의 共同開發協力
  - ・ 2000 年代의 日韓經濟協調의 자세
- 등 이상의 다섯 議題를 가지고 討議가 進행되었습니다.

太平洋經濟共同体構成을 위한 協力에 대해서는 前回, 즉 제 3 회 합동회의에서 日本側이 제 15 회 피베크 ( PBEC ) 나고야총회의 概要를 報告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韓國側으로부터 1967 年以後 全國經濟人聯合會, 大韓商工會議所 및 貿易界會員들의 PBEC 參加狀況 등에 대한 報告가 있었습니다.

다음, 第 3 國에 있어서의 資源共同開發協力에 대해서는 石油價格의 下落에 따라 에너지資源을 中心으로 한 海外資源開發에 變化가 일어났음을 참작하여 韓國側은 韓國에너지政策의 최근 동향에 대한 說明을, 日本側은 日本의 長期 에너지 需給展望과 에너지 政策의 최근 동향 說明을 하였습니다.

兩國分業体制의 可能性에 대해서는 제 3 회 合同會議 때 韓國側의 說明이 있었습니다만, 이에 대해 日本側에서 OECD의 적극 產業政策調整 ( PAP ) 을 베이스로 한 意見 제시가 있었으며, 國際分業体制에 관련하여 日本의 外資政策의 經驗 說明도 함께 있었습니다.

또 韓國側은 兩國分業体制의 可能性은 長期間에 걸쳐 研究할 必要性이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이 테마를 「 2000 年代의 日韓經濟協力の 자세 」에 吸收시킬 것을 提案하였으며, 日本側도 이에 同意했습니다.

또 금후의 推進方法으로서는 雙方에서 指名된 委員間에 협의하도록 合意를 보았습니다.

「 複合技術의 공동개발 」 문제에 대해서는 제 3 회 合同會議 이후 日韓 機械 번역시스템 開發의 具體化가 進展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관하여서 開發當事者인 富士通株式會社와 韓國科學技術院의 책임자로부터 詳細하게 進展狀況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뒤 작년 10月 29日에는 서울에서 兩者는 정식으로 共同開發契約에 調印하고, 日韓同時에 新聞發表를 하였습니다.

共同研究의 骨子は

(1) 富士通소유의 機械번역시스템 아틀라스원 - ATLAS/I - 을 利用하여 日本語를 韓國語로 옮기는 機械번역시스템을 研究

(2) 研究開發의 범위는 ATLAS/I 의 日韓機械번역用의 文法, 辭書에 의한 言語情報部分과 이의 稼動환경을 서포트하는 프로그램의 共同研究

(3) 기간은 기본적으로 3年을 限度로 한다는 등이며, 예정대로 순조롭게 共同研究가 進行되고 있으며 올 3月 15日 서울에서 第1回 韓日機械번역 共同研究推進委員會를 열어 '84年度の 共同研究開發作業分擔 및 研究日程에 合意한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이 共同開發은 제 15회 日韓・韓日民間合同經濟委員會 會議의 共同聲明에서도 言及된것처럼 日韓間の 技術協力事業으로써 높이 評價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0年代의 日韓經濟協調의 자세」라고 하는 題마는 第3회 합동회의에서 韓國側의 朴大振 委員長이 提案하여 채택된 것입니다.

이 題마와 관련하여 먼저 작년 8月 日本側이 外務省의 後援으로 小池 東大教授 飯田 名古屋大教授 등 著名한 학자를 연사로 하여 서울에서 日本經濟社會에 關한 심포지움 등을 韓國側의 주

최로 개최하였습니다.

合同會議에서는 日本側으로부터 「世界の 未來像」이라고 하는 OECD 報告書 가운데 東아시아를 中心한 長期비전 說明이 있었으며 한걸음 나아가서 日韓經濟關係의 長期展望 등 몇 가지 具體的 研究테마에 대하여 日本의 저명한 學者그룹에 調査委託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韓國側은 그 意義를 높이 評價함과 同時에 보다 포괄적이고 体系的인 공동연구를 제안하였습니다.

兩側이 제안한 문제에 대한 推進方案은 雙方이 指名하는 委員間에 協議토록 합의하였습니다.

또 2000 年代의 日韓經濟協調 문제와 관련하여 지난 3月 29日에는 스기우라(杉浦) 日本長期信用銀行 會長을 團長으로 學者 및 中堅企業 經營者 9名이 서울에서 「日本經濟社會 및 産業」을 주제로 한 심포지움을 韓國側 주최로 개최했습니다.

이 심포지움은 작년 8월에 열었던 심포지움이 대단한 好評을 받았기 때문에 이어서 두번째 개최한 것이지만 이번에도 盛況을 이루었습니다.

次期合同會議는 올 9月 또는 10월에 日本서 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報告를 마칩니다.



## 第2回韓日・日韓中堅中小企業協力專門委員會 合同會議經過報告

日韓中堅中小企業協力專門委員會  
委員長 渡邊禮之

韓日・日韓中堅中小企業協力專門委員會의 작년 活動狀況과 第2回會議에 대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本委員會는 昨年, 發足과 同時에 東京에서 第1回 會議를 개최 하였습니다.

작년 회의에서 協議된 主事項 가운데 먼저 對韓購買調查團 第1陣으로 시모노세끼 水産振興協會의 이시하라(石原昭二) 會長을 團長으로 한 17 명의 水産輸入促進團이 6月21일부터 4日間 韓國을 訪問하여 水産物輸入擴大를 위해 兩國 漁業關係者와 交流를 돈독히 하였습니다.

이어서 8月에는 후쿠오카(福岡) 상공회의소와 西日本 相互銀行이 共同으로 對韓購買 使命을 派遣하였고, 9월부터 10월에 걸쳐 福岡縣 行橋商工會議所, 福岡縣 原町商工會議所, 靜岡縣 濱松商工會議所, 11月에는 靜岡縣 三島商工會議所, 大阪中小企業團體中央會, 山梨縣 貴金屬工藝協同組合이 각각 韓國에 使命을 派遣하였으며, 韓國側으로부터는 染色工業協同組合, 印刷工業協同組合 등으로부터 7件的 技術研修團을 日本에 派遣하여 최근 數年來 볼 수 없었을 만큼 활발한 交流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合作投資를 비롯한 技術協力 斡旋으로서는 작년 10月10日 부터 약 2週間に 걸쳐 官民合同의 韓國投資誘致 調查團을 맞이

하여 大阪，名古屋，東京，札幌 등 각 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특히 최근 도금, 염색, 電子工業分野에서의 技術研修는 이미 양국 中小企業間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技術研修生을 받아 들임에 있어서 現在 政府레벨에서 協議가 이루어지고 있음은 이미 아시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올 3月 23, 24日 이틀동안 日本側으로부터는 本人, 渡邊委員長 이하 7명이, 韓國側은 韓在烈委員長 이하 10명이 參加하여 서울에서 開催했던 제 2회 韓日・日韓中堅中小企業協力專門委員會 合同會議의 경과와 合意內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韓國技能工의 日本企業에서의 研修에 대하여 도금, 염색, 金型, 주단조 분야에서의 기술협력
  2. 對韓購買 視察團 파견에 대하여
  3. 中堅中小企業의 경영관리협력에 대하여
- 등의 議題로 協議가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韓國技能工의 日本企業에서의 研修에 대해서는 現在 政府間에서 研修計劃이 이미 進行中에 있는 도금, 염색, 電子分野를 비롯하여 業種別로 廣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하고 특히 韓國側으로부터 도금, 염색, 金型, 주단조 분야의 現況과 기술협력의 실정을 說明하고 現在 정부베이스에서 추진하고 있는 技能工 研修計劃에 맞추어 民間베이스에서도 協力해 주도록 要請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日本側은 이分野의 關聯機關의 交流強化가 먼저

必要함을 강조함과 동시에 民間베이스의 技術者派遣制度 活用을 소개하였습니다.

對韓購買視察團 파견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어 地方상공회의소 등에 권유키로 하고 韓國産品の 日本展示會 開催가 보다 效果的임으로 이의 實施에 대하여 兩側이 協力키로 하였습니다.

또 韓國側으로부터 日本의 中堅中小企業의 經營관리, 企業發展의 實例, 컴퓨터利用實態와 展望 등의 實情을 파악하고 싶다는 要請이 있었으며, 이에 對하여 日本側에서 中堅中小企業經營 심포지움을 서울에서 開催하여 이러한 情報를 交換하고자 提案, 具體的인 計劃은 兩事務局에서 檢討키로 合意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會議는 내년초 日本에서 開催하기로 하였습니다.

## 産業技術協力에 對한 提案(韓國側)

中小企業振興公團

理事 金 啓 鎬

오늘 韓・日兩國 經濟界 代表 여러분이 參席하신 자리에서 本人이 兩國間의 産業技術 協力方案에 對하여 말씀드릴 機會를 갖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韓國과 日本은 地理的으로 가장 가까운 距離에 位置할 뿐만 아니라 經濟面에서도 두터운 協力關係가 形成되고 있는 이웃나라입니다.

또한 韓・日兩國은 相互共榮이라는 次元에서, 向後에도 兩國間의 協力增進이 이룩되어 나아갈 것으로 期待됩니다.

이러한 可能性과 展望은 지난 '83年 1월에 있었던 兩國頂上會談과 그 後의 政府間 協力協議가 活潑하게 進展되고 있으며 또한 兩國間의 經濟界 代表 여러분들의 協力會議가 자주 開催되고 있는 點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韓・日間의 産業技術 協力の 必要性에 對하여는 兩國頂上會談時 이미 確認된 바 있고 이의 具體的인 協力方案을 模索하기 위한 兩國政府레벨의 韓・日産業技術實務者 會議가 두차례 開催되어 많은 進展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1年의 第13次會議부터 每年 論議되어온 尖端技術 移轉을 위한 協力事業도 相互關心도가 高潮되어 昨年 15回 合同委員會 會議後 4차례의 세미나 및 심포지움이 開催되어 前進의인 協力무드가 助成되고 있으며 韓國技能工의 對日研修派遣 事業과 關

聯하여, 韓國政府가 中小企業振興公團을 同 派遣研修의 周旋機關으로 定하는 등 具體的인 進展을 보고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本人은 그동안 兩國間 産業技術 協力會議등에서 合意되었거나 諒解된 點을 要約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韓・日間 産業技術協力は 基本的으로는 民間의 自律的 判斷에 依해 發展시켜 나가자는데 意見의 一致를 보았으며 아울러 中長期的 觀點에서 兩國經濟關係의 擴大를 圖謀하고 또한 既存의 友好的 協力關係를 加一層 發展시켜 나갈 必要性에 對하여도 意見의 一致를 보았습니다.

둘째, 兩國代表는 韓國의 技能工 對日派遣 研修計劃에 關하여 率直한 意見交換이 있었으며 韓國側이 日本의 民間經濟團體 및 關聯企業體 등을 對象으로 實施하고자 하는 技能工研修計劃에 關한 說明會開催 및 그에 따른 日本의 協力要請에 對하여 日本側은 이러한 努力에 對해 높이 評價한 바 있으며 技能工研修를 맞게 될 民間企業의 確保를 爲해 努力해 나갈 必要性에 대해서도 意見이 合致되었습니다.

셋째, 韓國側은 技能工 對日派遣 研修內容 등 詳細한 資料를 日本側에 提供하며 日本側은 이를 接受協議會를 통해 個別企業에 打診기로 合意하였으며

넷째, 이를 發展시켜 나가기 爲하여 向後 日本側은 接受協議會를 發足, 研修가이드라인의 作成等 諸般措置를 取하며 同 計劃이 早速한 時期에 實施될 수 있도록 相互 努力할 것에 合意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日本政府는 個別民間레벨의 産業技術移轉에 對하여 어떠한 制限 措置도 하고 있지않으며 産業技術移轉 促進을 위한 準備을 하고있음을 밝힌바 있습니다.

以上과 같은 事項들이 兩國政府間에 合意 또는 諒解되었다 하더라도 實際적으로 이를 周旋하고 受容하게 될 日本側の 經濟團體, 研究機關 및 受容企業의 積極적인 協調와 呼應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兩國間的 産業技術移轉은 어려운 課題라 생각됩니다.

이를 위해 韓國側은 지난 2月 第2次 韓・日産業技術 實務者會議後 곧 東京과 大阪에서 同 事業說明會를 가진바 있고 그 反應도 좋았습니다.

또한 韓國技能工의 派遣研修와 別途로 그간 韓・日 兩國間에 論議되어온 尖端技術移轉을 위한 專門委員會 設置問題와 關聯하여 本人은 다음과 같은 提案을 합니다.

昨年부터 實施하여온 相互交流 세미나, 심포지움등의 行事を 계속 擴散 活性化하는 것과 併行하여 相互技術協力이 可能的 分野의 具體적인 把握, 技術協力에 따른 受容態勢 點檢 및 技術提供의 方法等を 事前調査하기 爲하여 業種別 實務級 專門家로 構成된 專門小委員會를 두어 具體적인 分野를 檢討해 나아가도록 提議하는 바입니다. 이 委員會는 現在 本會議 傘下 分科委員會로 追加하는 形式이 아니라 既存專門委員會 傘下에 두고 運營해 나가는 方案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韓日・日韓經濟協會의 兩側 事務局이 專門委員會의 窓口役割을 하면서 同 小委員會의 活動을 支援하여 나아가간다면 큰 成果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韓國과 같은 新興工業國이 工業化 促進을 위하여 先進工業國의 基礎産業技術을 移轉받는 일은 不可避한 現實이며 이러한 手段을 통한 新興工業國의 經濟發展은 産業의 國際的 分業을 보다 効率化 시키므로 先進工業國의 經濟効率도 提高되는 結果를 가져와 結局 兩者의 共同利益을 同時에 追求하는 것으로 理解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에서도 地域적으로 아주 가까운 韓・日兩國이 産業技術의 移轉促進은 매우 時期適切한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난 1月 日本의 經濟審議會 經濟協力小委員會가 發表한 「1980年代의 經濟協力の 展望과 指針」에서 韓國과 같은 中進工業國에 對하여는 資金과 技術兩面에 걸쳐 民間企業간의 協력이 重要하다고 指摘한 바 있고 小島清教授도 「新興工業國의 對應」이라는 論文中에서 이러한 點을 強調하면서 그 좋은 例가 韓日貿易關係라고 示唆한 바도 있습니다.

韓國技能工들이 日本企業에서 産業現場技術을 익히고 練磨할 수 있을때 兩國間の 經濟協力 增進이라는 經濟的 利益 以外에도 日本을 잘 알지 못하는 韓國의 젊은 世代들이 日本을 올바르게 認識하게 되므로 韓日 兩國은 이 世代들에 의해서 새로운 理解와 努力的 增進이 期待되어 經濟外的 効果도 클것으로 豫想됩니다.

感謝합니다.

## 産業技術協力提案에 대한 日本側 答辯(1)

日 立 造 船 (株)  
代表取締役 永田 敬生

日立造船(株)의 永田입니다.

지금 韓國側으로부터 말씀이 계셨던 産業技術協力과 관련하여,  
日本側으로서 技術者 研修計劃에 對해 한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1) 우선 技術研修生の 受容體制 問題입니다.

研修生을 받아들이는데 있어 日本側에서는 政府, 關係政府機關, 民間經濟團體등으로 構成되는 「韓國技術研修生 受容協議會(假稱)」를 설치, 日韓經濟協會를 窓口로해서 研修生을 받아들이도록 各 企業에 勸奨할 豫定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日本の 經濟界로서도, 韓日兩國間的 技術協力 促進趣旨에 발맞추어 이 研修計劃을 實現시키기 위해 可能한데까지 協力코자 합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라도, 그와같은 受容體制를 早速히 정비하는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同時에 이 研修計劃이 원활하고도 效果的으로 實施되기 위해서는 研修分野, 規模, 期間, 方法, 費用負擔등의 여러가지 條件을 놓고 兩國間的 충분한 協議가 이루어질 必要가 있습니다.

이 問題에 關해서는 이미 兩國政府間 實務者會議에서 論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마무리단계에 있어서는, 이 協議會를 통해서 該當受容 民間企業의 意向을 確認하여, 그것을 충분히 反



映코자 합니다.

(2) 다음은 研修生의 姿勢問題입니다.

日本の 技術・技能은 日本的 經營시스템과 不可分の 것이므로 곧바로 海外로의 技術移轉은 결코 容易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研修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技術・技能의 習得만으로 그치지 말고 日本의 工場에서, 日本人과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함으로써, 職場規律이나 勤勞倫理같은것도 體得하여, 韓日兩國間の 相互理解를 深化시킬 수 있도록 努力해 주셨으면 합니다.

(3) 이 技術者 研修計劃에 依據해서, 向後 4年間に 걸쳐 多數의 (韓國側の 要請은 年2回 計 1,200名) 韓國技術者가 日本에서 研修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計劃을 實現시키는데에는 兩國의 政府, 經濟界등 各方面에 걸친 非常한 努力이 必要합니다.

이같은 多大한 努力의 成果가 實際로 活用되어지는것은 말할나위도 없이 韓國의 個別 企業의 經營과 生産의 現場인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研修計劃의 實施와 병행하여, 이 研修를 一時的인 것으로 그치게 하지 말고 그 成果를 韓國의 企業, 生産의 現場으로 波及시키고 定着化시켜 가기위한 努力이 必要할 것입니다.

日本の 經營의 特徵은 現場中心 主義이며, 長期的인 人的資源開發에 그 基礎를 두고 있으므로, 韓國에도 충분히 받아들일수 있는 素地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점, 이들 研修의 成果를 定着化시키기 위한 하나의 有効한 方案으로서 駐韓日系經濟團

體인 서울日本人商工會와 J.V會가 韓國經濟協會와의 協力下에 個  
個의 日系合作企業이 蓄積한 노우하우를 結集하여, 韓國에 맞는 經  
營의 理念, 手法, 例컨대 TQC, 小集團 活動등의 普及發展을 圖謀  
해 가는것도 檢討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마지막으로, 職業訓練分野에서의 海外協力を 促進하기 위해  
지난 1982年 11月에 勞動省의 斡旋으로 設立된 (財) 海外職業訓練  
協會를 紹介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協會의 會長職을 맡고있으나만, 이 協會는 勞動省이  
現在 37億円の 豫算으로 千葉縣幕張에 建設中인 海外職業訓練協力  
센터와의 協調아래, 海外職業訓練에 關한 情報서비스, 컨설팅, 教材  
開發, 指導員養成, 海外訓練生受容등을 主要事業內容으로 하고있습니  
다.

금년 中盤에는 研修中心施設인 200名을 收容할 수 있는 海外  
職業訓練協力센터가 完成되어, 本格的인 事業活動을 開始할 豫定이  
므로, 多方面에 걸쳐 活用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 입니다.

## 産業技術協力 提案에 對한 日本側 答辯(2)

(株) 經濟團體聯合會  
常務理事 三好 正也

金理事님의 提案인 業種別 實務級 專門家로 構成되는 專門小委員會를 設置하면 어떨까하는 提案에 對해 答辯드리겠습니다.

答辯에 들어가기전에 약간 一般論이 되겠습니다만 金理事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韓國關係가 하나의 MODEL이 되는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贊成하는바 입니다.

여기에 言及되어 있는 經濟審議會 經濟協力小委員會 여기에도 제가 間接的이기는 합니다만, 參加했습니다. 그리고 小島先生은 제가 잘 아는 분으로서 SYMPOSIUM等에 같이 參加한 적도 있으며, 여기에 引用되어 있는 論文을 저 자신도 直接 읽어보았으며, 대단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小島先生의 意見에도 贊成하는바 입니다.

이것은 一般論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民間레벨에서의 이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로부터 指摘된 얘기입니다만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자면 民間레벨의 産業技術協力は 역시 個別企業間の 얘기가 中心이 된다는 점입니다.

技術을 팔거나 사는일은 企業經營에 있어서 極히 重要な 問題로서 대부분의 경우, 그런 얘기는 企業機密에 속하며 最終적으로 결정되기 前까지는 發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通例입니다. 이 問題에 對해 政府는 물론아거니와 經濟團體나 이와같은 委員會, 그리고 그 事務局, 協會등이 할 수 있는 役割은 상당히 限定되어 있

읍니다.

즉 霧圍氣造成 , 그리고 主로 政府가 할 수 있는 것으로서는 環境造成, 아까 合田社長으로부터 日本側에서 본 環境造成에 관해 자세하게 여러 가지 意見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러한 環境造成에 관한 ADVICE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한 機能이라고 생각합니다.

以上을 前題로 本 提案에 관해서 저의 意見을 말씀드리자면, 業種別 專門家로 構成되는 專門小委員會를 設置해서 이 원고에 쓰여 있는 바와같은 일을 해나가자는것,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어서, 現時點에서는 必要치 않은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理由로서 以下 세 가지 點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이미 설치되어 있는 몇가지 專門小委員會의 委員長들로부터 자세한 報告가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專門委員會에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問題에 對해 이야기되어 왔으며 向後 더욱 그러한 애기가 強化되어 나갈 展望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問題를 압축해서 얘기를 할 必要가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既存의 專門委員會에서 必要에 따라서 檢討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첫번째 點입니다.

두번째는 業界間의 交流가 몇개의 業界間에서 이미 活潑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業界間의 對話의 場에서 이 問題를 學論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접촉에서 저질로 協力可能한 分野는 어디에 있는가, 受容態勢點檢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만, 그것을 CHECK한다든가, 或은 技術제휴의 方法等에 관해서 意見交換을 한다든가, 그러나 아마

業界에 따라서 極히, 어떤 業界는 대단히 協力的이라든가, 이것도 어떤 理由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對應은 業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이 두번째 點입니다.

세번째 點은, 조금 다른 理由에서 입니다만 專門家라 하더라도, 技術이라는分野는 極히 그分野가 넓고 다기다양하게 걸쳐있습니다. 때문에 아마 韓國側의 立場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小委員會를 設置해서 業種別 專門家を 여기에 내놓게 되면 아마 이런 技術이 必要하다는 業界의 專門家, 그러한 技術에 상당히 정통한 專門家が 그곳에 나올 것으로 생각되나 다만, 그렇다면 그러한 技術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日本側의 專門家は 아마 動員 不可能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經團連에서도 여러 나라와 會議를 갖고 있습니다만, 不可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Generalist 을 모아서 이러한 論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이것은 안됩니다. 오히려 Generalist 의 議論과 專門家の 議論의 中間에 해당하는 얘기라는 것은 既存의 專門委員會에서 이미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提案하신 바와같이 專門小委員會를 새로이 設置한다는 것은 可能性이라는 問題에 있어서는 相互間에 時間과 비용을 浪費하는 結果가 되지는 않을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固定的인 小委員會를 設置하기보다는 既存 專門委員會의 活動을 充實하게 한다든가 或은 業界間的 Contact 를 더

욱더 活潑化 시키는데 당분간은 狀態를 보아 나가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와 關聯해서, 오히려 새로운 小委員會를 만들기 보다는 韓日經濟協會의 事務局, 여기의 日韓經濟協會의 事務局, 最近 事務局의 幹部가 약간 바졌다는 事情이 있었음니다만, 그러나 상당히 增強되어서 活動이 보다 活潑히 될 것이라는 期待를 우리들은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兩側 事務局이 中心이 되어서 그 밖에 여러가지 할 일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前回の 合同會議에서도 話題가 되었음니다만, 各種 세미나, 이 委員會가 中心이 되어 開催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것, 無數의 그 技術세미나가 東京, 大阪 그 밖에 다른 곳에서 開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經營技術도 包含 하드의 技術, 소프트의 技術등의 세미나가 많습니다.

지금 제가 그 리스트를 갖고 있습니다. 또 JETRO 등 기타 여러 機關들이 열심히 실시하고 있는 見本市, 이것도 最近에는 尖端技術에 關聯된 것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見本市에 參加하셔서 또 이러한 見本市의 기회에 說明會라든가 세미나가 開催되므로, 그러한 곳에서 專門家들끼리의 情報交換을 하는 것이 보다 나은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見本市, 세미나에 關한 情報는 兩側 事務局에서 交換해서 會員社에게 전파해주는 方法等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도 또 더 할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저의 發言을 마치겠습니다.

## 産業技術協力 提案의 補充 說明

中小企業振興公團

理 事 金 啓 鎬

技能工 研修生 現場研修가 OJT에 限한다는 日立造船(株) 永田會長  
님의 發言에 同感입니다. OVTA의 事業에 向後 우리쪽 機關으로서  
도 積極的으로 參加하고 싶습니다.

經團連의 三好常務理事께서 말씀하신 內容에 대해 잠깐 Comment  
하면, 일단 이 問題에 關해서는 韓國側에서도 이 會議에 參加하기  
전에도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別個의 委員會로 할  
것인가라든가, 專門家를 모으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등등이 꽤  
거론 되었습니다.

結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너럴리스트로서는 애기가 되지 않을것  
이므로 專門家の 모임으로 해보자로 結論이 지워졌습니다. 그렇지만  
專門家の 모임으로 한다면 만나기가 極히 어려우므로, 우선 범위를  
좁혀서 小委員會를 構成해 보자는 方法을 取하게 된 것입니다.

全業種에 걸친 小委員會는 아니며, 可能的한 分野부터 한걸음 한걸  
음 나아가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린것 입니다.

三好常務의 意見에 對해서는 좀더 숙고한 끝에 차후에 연락드리  
겠습니다.

## 對韓技術協力の 環境整備에 대하여

住友重機工業（株）

取締役社長 合田 茂

日本の 對韓技術協力과 관련하여 기술협력의 환경정비의 觀點에서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제 15 회 合同會議의 共同聲明은 技術협력 促進을 위해 「相互信賴에의 努力」과 「보다 나은 환경 整備」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貴國의 一部에서는 日本은 技術協力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매우 壁이 높다는 批判도 있음을 듣고 있습니다만,저는 日本側 멤버의 一員으로서 日本의 對韓技術협력자세는 결코 소극적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貴國의 技術導入件數를 보면 日本으로부터의 技術導入이 전체의 약 55 %로 壓倒的으로 많은 실적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 대부분 기술협력을 함께하는 外國人の 對韓投資실적에 있어서도 1982 年末현재 이미 日本은 6 億 7 千 萬弗로 貴國의 外國人投資의 52 %를 차지, 2 位인 美國의 3 億 7 千 萬弗를 훨씬 앞지르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貴國이 日本은 技術協力에 대한 壁이 높다고 하는 見解가 있음은 아마도 一部 個別企業이 이 問題에 대한 對應태도에서 받은 印象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個別企業으로서는 당연히 相互 어떤 형태로든 메리트를 구해서 對應할 수 밖에 없는 소위 市場메카니즘이 작용하며 이것은 自由主義 經濟의 原則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20 餘年前 日本의 상태를 회고해 보면, 당시 日本도 美國 또는 유럽으로부터의 技術導入 依存도가 높았으며 따라서 상당히 不利한 제후조건이 따랐습니다. 특히 테리터리등의 제약조건이 심했으며 아직도 一部 그 후유증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自主技術開發努力的 결과 力관계도 바뀌어서 기술도입계약을 解消하거나, 제후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도 對等한 파트너로써 協力관계 또는 크로스 라이선스의 형태로 바꾸는 등 大幅改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實國에서도 時間을 들여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며 힘을 갖게되면 곧 기술도입制約條件의 완화로부터 크로스 라이선스, 技術輸出로 바뀌어 지는것은 自然스런 흐름이라는 사실을 認識하 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앞으로 韓日間의 경제협력을 원활히 하고 더우기 그 成果를 十分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民間베이스의 技術協력이 核心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技術協力を 받는 側으로서의 받아드리는 土壤이 養分 吸收가 쉽고 또 축적되기 쉬운것이 아니면 모처럼의 協力的 成果가 쉽사리 열매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意味에서 土壤정비라고 할까, 즉 기술협력의 환경정비에 대하여 이하의 몇 가지에 대하여 努力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랍니다.

#### 1. 自主技術의 축적과 自主開發力の 강화

첫째, 自主開發力の 강화 및 自主技術의 축적입니다.

先進技術을 자기것으로 消化吸收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의 기술개발력을 갖지 않으면 안되며 이 基盤위에서 스스로의 기술을 연마하여 順次로 高度化해 가는 努力이 必要하다고 하겠습니다.

日本에서는 官民의 協力이 自主技術開發에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美國으로부터 日本産業政策 비판의 對象으로도 舉論되게 되었으나, 저희들로서는 이러한 官民協力は 開發促進에 대단히 效果的인 手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貴國에 있어서도 이를 본받아 加一層 努力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昨今 비약적인 進歩를 이룩한 日本의 半導體分野에 있어서도 1970 年の 1K 비트의 마케트웨어는 거의 제로였으나 15 年동안의 노력結果, 오늘날에 와서는 美國과 對等 또는 이를 능가하기에 이르러 經濟마찰의 一因이 되고있는 정도입니다.

貴國도 이러한 點 충분히 認識하여 이미 一步一步 前進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重化學工業分野에서 상당히 높은 自主技術을 축적하고 있음도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더욱 최근 政府主導의 國產研究로써 半導體, 컴퓨터, 精密化學,

機械工業高度化 등의 研究테마에 대하여 84年度 220億원의 豫算조치를 취하여 技術開發政策을 推進하고 있음과 더욱 今後의 움직임으로써 新技術開發投資促進法 제정추진, 技術開發特別基金設置 구상등은 믿음직스러운 것입니다.

한편 귀국의 民間企業에서도 최근 研究所 설치가 늘어 이미 100개所를 넘었다고 듣고 있으며, 各社의 共同研究推進을 위한 研究組合도 電子, 自動車, 정보산업 등의 分野에서 14組合이 設立되는등 活勃한 活動이 계속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가지 努力에 의한 自主開發力の 강화, 自主技術의 速적이 實績히 實現될 것으로 크게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를 實現하기 위해서는 企業의 積極적인 研究 投資와 이를 支援하는 政府의 政策이 步調를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民間企業의 研究開發投資의 對賣出額比는 貴國의 경우 1% 이하로 1978年 당시 美國, 西獨의 2.9%, 1982年 日本의 2.8%와 비교하여 상당히 낮은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점 加一層의 努力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또 모처럼 새로운 法制와 귀중한 國家豫算, 開發投資가 열매맺을 수 있는 세심한 配慮와 努力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 2. 人材의 育成과 活用

두번째는 技術협력을 받아드리는 측의 人材에 대한 것입니다.

원래 人力의 量과 質的인 向上은 政治, 經濟, 文化등 여러면에서 發展의 基本要因이기도 하지만, 한나라의 技術水準을 급속히

높여가기 위해서는 必要한 人材確保가 重要한 것입니다.

貴國의 경우 韓國産業經濟技術研究院의 統計에 의하면 人口 1,000 명에 대한 研究員의 數는 0.5 명으로 日本의 2.7, 美國의 2.9, 西獨의 2 명과 비교해서 지금부터라고 하는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大學, 研究機關에서는 教育을 통하여 集中的인 人材育成을 도모함이 重要한데, 이點 韓國科學技術院이 本年度 중점시책으로써 特別學部課程을 설치하여 電子, 機械등의 高度의 英才教育을 추진, 또 海外研究員의 파견등을 실시키로 한것은 참으로 믿음직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또 貴國의 제 5 차 5 개년계획 修正指針에 우수한 技術人力の 확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만 貴國은 세계적으로도 教育열심의 나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이러한 諸施策의 구체적인 進展과 그 成果를 期待하고 있습니다.

다음 技能水準의 向上에 대해서도 貴國은 每年 國際기능올림픽에서 종합우승을 계속하는등 참으로 우수한 기능자가 늘어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더욱今年度부터 具體化되고 있는 日本에서의 技能者 研修成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수한 기술자, 기능공이 기술협력의 諸施策에 따라 習得하는 귀중한 先進技術・技能을 效果的으로 活用하는 것이 緊要합니다.

그러나 예를들어 日本企業이 貴國의 기술자 또는 技能工에 技術指導를 하더라도 이것이 그사람 한사람만의 習得으로 끝나버려

주위에 전파·보급되지 않고 있다고 흔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企業의 기술자·기능공의 定着率이 낮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의 會社에서도 지금까지 꽤 많은 數의 기술자·기능공을 韓國企業으로부터 받아들여 設計, 製造現場에서의 교육·훈련을 해왔읍니다만 數年이 지나고 보면 그 企業에는 이러한 교육·훈련을 받은 기술자·기능공이 거의 남아있지 않는 實例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貴國에서는 一般的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만, 이러한 風潮속에서는 기술협력의 效率面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風潮는 一朝一夕에 시정될 수 없지만, 적어도 民間企業에서는 人的投資라는 觀點에서도 기술자·기능공에 대한 評價處遇의 重視, 社內技術·기능의 組織的 活用과 承繼發展推進을 考慮해 줄것과 함께 定着率을 높이기 위해 企業에 대한 로알터를 促進하는 것과 같은 끈기있는 교육과 施策을 계속하면 어느정도 效果를 볼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 3. 投資環境의 整備

세번째는 投資環境의 정비입니다.

貴國은 1980 年이래 단계적으로 資本自由化 정책이 취해 지고 있으며, 더우기 今年 7 월부터 시행하는 外資導入法 改定에 의해 技術導入 계약이 認可制에서 申告制로 되고 또 投資元本の 回收에 대해서도 規制가 완화되는 등 韓日技術協力을 추진해 가는 관점에서도 환영할 일이라 하겠읍니다.

앞으로도 一貫해서 開放政策이 계속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다만, 1980年 이후의 각종 규제완화에도 불구하고 進出日本企業의 철수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음은 政策으로써의 自由化의 大綱과 實務面에서의 對應이 반드시 連動되어 있지 않다는 點도 一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外資導入이나 기술도입계약의 具體的 認可條件이 關係官廳의 擔當部門間 折衝에 의해 確定시키기 위해 個別案件마다 조각조각이 되어 버린다는가 하는 고충을 들음도 적지 않습니다.

또는 一般的으로 貴國이 國產化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은 당연한 것이지만 國產可能部品과 材料의 認定이 너무도 機械的이어서 品質・코스트面에서 實情에 맞지 않은 경우도 가끔있어 進出企業이 必要部품을 輸入코자해도 輸入許可를 얻지못해 어려움을 겪는 케이스가 있는등 기술협력에 따른 合作會社나 進出企業의 發展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도 일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기술협력의 열매를 맺게하는 觀點에서 본다면 역시 改善의 必要가 있다고 하겠읍니다.

소위 투자환경의 정비라고 하는 意味에서 施策實施面에서 충분한 考慮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소위 소프트라고 할까 디자인이나 시스템, 노하우에 대한 評價에 대한 것입니다.

페이턴트는 勿論 이러한 소프트는 연구자・專門家 또는 企業이 끊임없는 努力끝에 이룩한 貴重한 無形財産인 것입니다. 이러한 無形の 貴重한 財産에 대해 저희들은 서로 社會的 評價를 높이

는 努力을 계속하여 그 評價를 認定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技術協力에 있어서도 이러한 點을 빼버리면 좀처럼  
원활한 推進이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상 몇 가지 점에 대해 솔직한 意見を 말씀드렸음니다만 혹시  
귀에 거슬렸던 점도 많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활한 기  
술협력의 실현과 협력의 成果를 極大化 하기 위해 貴國側의 改  
善努力을 부탁드립니다.

기술협력은 相互信賴에 의해 비로소 원활히 推進되는 것입니다.  
相互信賴에의 努力을 거듭하여 기술협력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貴國에 있어서도 환경정비에 대해 가일층의 努力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 技術協力の 環境整備에 관하여

( 答 辯 )

韓國綜合技術開發公社  
社 長 白 文

韓・日民間베이스 技術協力の 圓滑한 推進과 그 成果를 舉揚하기 위한 住友重機工業(株)의 合田茂社長님의 말씀에 우선 感謝의 뜻을 表하면서, 自主技術開發力の 蓄積, 人的資源 및 周邊技術의 育成 및 技術移轉, 投資環境의 整備等에 있어서의 우리側の 現況 및 向後方向等에 關해 말씀드리고져 합니다.

먼저 自主技術開發 努力現況을 보면, '83年度 主要企業의 賣出額 對比 研究開發費 投資比率은 1.11%로서 '81, '82年度에 비해 크게 增加되었으며 第5次 經濟社會發展5個年計劃의 最終年度인 1986年度는 2.03%로 展望되고 있어, 政府의 '86年 目標인 GNP對 研究開發費 比率은 2%를 上廻하고 있습니다. (表1. 主要企業의 技術開發 投資推移 參照)

그리고 企業附設研究所 增加現況을 살펴보면, 最近의 技術革新을 통한 產業高度화와 國際競爭力強化로 第2의 經濟跳躍을 期한다는 時代的 要請과 政府의 積極적인 支援下에 企業의 技術開發意慾이 크게 鼓吹됨으로써 技術振興을 爲한 政策的 配慮와 企業附設研究所 設立이 急増하고 있습니다.

'79年末 總 43個였던 企業附設研究所가 '82年度에는 40%以上の 높은 伸張을 보임으로써, '85個에 이르렀고, '83년에는 129個로 前年對比



무리 51.8 %의 伸張을 보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全體的인 研究開發費의 年度別 推移를 보면, '79年度 以後 最近 4年間의 研究開發費 增加率은 平均 32.5 %로서, 특히 '82년에는 前年對比 56.1 %나 大幅 增加했으며, 研究員의 數字도 '82年度の 경우 前年對比 37.3 %의 增加勢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政府에서는 5次計劃의 最終年度인 '86년까지 研究開發費 投資를 GNP의 2 % 水準으로까지 上昇시킬 計劃으로 있으며, 이의 達成을 위해 갖가지 政策支援과 INCENTIVE를 積極的으로 供與하고 있습니다.

政府의 技術開發支援年度에는 稅制上的 支援, 金融上的 支援, 企業附設研究所 및 産業技術研究組合에 대한 支援 등으로 크게 大別됩니다.

稅制上的 支援으로서는 技術 및 人力開發費, 研究施設投資에 對한 稅額을 控除해 주고 있으며, 新技術企業化 事業等에 대한 投資稅額 控除 및 特別減價償却, 外國人技術者에 對한 所得稅免除等を 들 수 있습니다.

金融面을 보면, 韓國技術開發(株)를 設立, 運營中에 있으며, 韓國産業銀行의 技術開發資金, 中小企業銀行의 技術開發資金, 韓國輸出入銀行에 의한 技術提供資金外에도, 特別基金에 의한 技術開發關聯資金, 一般金融, 機關의 中小企業技術開發資金 등을 통해 多樣的 方式으로 資金을 支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企業附設研究所 및 産業技術研究組合에 대해서도 研究所員

의 兵役特惠, 研究所用 不動産에 대한 地方稅 免除等 多様な 特惠가 賦與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人的資源 및 周邊技術育成問題에 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82年末 現在, 우리나라의 研究關係從事者는 46,390名으로 他先進諸國에 비해 큰 格差를 보이고는 있으나, 最近 들어서 每年 크게 增加하고 있습니다. (表4 研究員 數의 年度別 推移 參照)

또한 合田 社長님께서指摘해 주셨던, 習得한 技術의 周邊普及과 部品下請工場에 대한 母企業의 支援等の 問題는 저희들로서도 그 必要性 緊急性을 충분히 認識하고 있는 事項입니다.

政府에서 最近 部品工業의 育成을 主要政策課題로 내세워 많은 努力을 기울임에 따라 民間業界에서도 母企業(Primary Company)과 下請企業(Secondary Company)간의 協力關係가 政府의 施策에 발맞춰 顯格하게 改善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最近의 特記할 만한 事項으로는, '81年경부터 電子業界를 中心으로한 主要産業分野에서 始作된 母企業과 關係部品 供給業體間の 努力雰圍氣가 高潮됨에 따라, 確固한 專門系列化가 점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母企業의 技術支援이 活潑해졌으며, 部品業體의 地位도 크게 向上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推勢로 미루어 보아 母企業과 下請企業간의 協力關係는 向後 더욱 擴大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技術移轉, 投資環境의 整備에 對한 우리의 現況에 관해 잠깐 言及하겠습니다.

韓國政府는 外資導入法體系를 우리의 開放經濟政策과의 一貫性を 維持하고, 現在의 過度한 規制와 복잡한 節次等으로 因한, 外國投資家 및 國民의 對外去來上の 不便을 解消시킬 目的으로, 昨年 外資導入法の 大副修正을 斷行한바 있습니다.

그 主要改編內容은, 外國人投資에 있어서 投資可能業種 告示方式인 現在의 POSITIVE SYSTEM을 NEGATIVE SYSTEM으로 轉換했으며, 投資節次가 大幅 簡素化 되었습니다. 즉, 該當要件을 갖춘 外國人投資의 경우에는 關係部處의 照會와 委員會의 審議없이 즉시 認可토록 한 點입니다. 그리고 技術導入의 自由化로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오늘날 技術導入은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技術革新의 重要한 手段이 되고 있으며 특히 開發途上國에서는 經濟成長을 가속화 시키고 工業立國을 促進시키기 爲해 技術導入의 절대적 重要性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先進技術의 導入을 활발히 推進해 왔으며 또한 技術導入成果도 상당히 거두었습니다. 政府에서는 外國先進技術의 導入을 더욱 促進하기 爲하여 앞으로 技術導入의 認可制를 申告制로 轉換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듯 民間企業의 意慾的인 技術開發努力, 政府當局의 이에 대한 大幅的인 支援 및 各種 外資技術導入環境整備가 活潑한 展開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先進國水準에 건주어 볼때, 아직도 크게 미흡한 점이 있으며, 이 때문에 인접 先發 技術大國인 日本의 側面支援이 더욱 큰 意味와 重要性을 갖게 되는것 입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日本의 對韓技術協力이 우리의 工業化에 寄與한 바는 크며, 同時に 産業發展段階에 있어서 앞서있는 日本經濟成長에도 크게 PLUS가 된 點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점에 비추어 先進國 特히 技術大國의 經濟人 여러분께서 高級技術分野의 對韓協力에 向後 보다 積極的으로 協力해 주실것을 期待합니다.

自主技術開發과 開放體制를 指向하는 우리들의 環境整備努力은 계속 될 것임을 감히 약속드리며 여러분의 傾聽에 감사드립니다.  
감 사 합 니 다.

〈表 1〉

主要企業의 技術開發投資 推移

(單位：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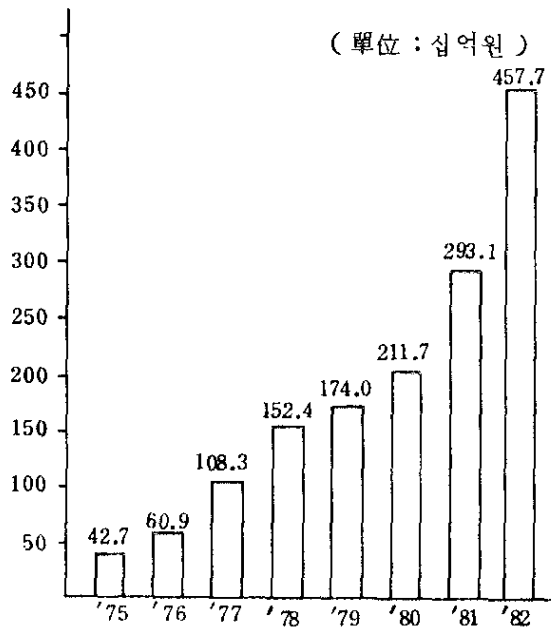
| 年 度<br>區 分             | 1981  | 1982            | 1983            | 1984            | 1985            | 1986            |
|------------------------|-------|-----------------|-----------------|-----------------|-----------------|-----------------|
| R & D 投資 / 賣出額         | 0.66  | 0.71            | 1.11            | 1.77            | 1.79            | 2.03            |
| 技術開發投資增加率<br>(技術開發投資額) | (803) | 33.0<br>(1,068) | 56.6<br>(1,672) | 69.4<br>(2,832) | 17.7<br>(3,334) | 18.1<br>(3,937) |

資料：韓國產業技術振興協會

註) 技術開發投資增加率과 技術開發投資額은 1社當 平均임.

〈表 2〉

研究開發費의 年度別 推移



資料：科學技術處

〈表 3〉

## 研究開發活動 總括

(單位：百萬圓)

| 區 分                 | '82       | '81       | 增 減     | 增 減<br>率 (%) |
|---------------------|-----------|-----------|---------|--------------|
| A . 研 究 開 發 費       | 457,688   | 293,131   | 164,557 | 56.1         |
| 政 府 負 擔             | 188,941   | 127,906   | 61,035  | 47.7         |
| 民 間 負 擔             | 268,747   | 165,225   | 103,522 | 62.7         |
| 政 府 : 民 間           | 41:59     | 44:56     |         |              |
| B . G N P ( 10 億圓 ) | 48,088.26 | 42,397.12 |         |              |
| A / B (%)           | 0.95      | 0.69      |         |              |
| C . 研 究 員           | 28,488    | 20,718    | 7,730   | 37.3         |

資料：科學技術處

註：國防關係 研究開發費 不包含

〈表 4〉

## 研究員數の 年度別 推移

(單位：名)

| 組職別 \ 年度別 | '77    | '78    | '79    | '80    | '81    | '82    |
|-----------|--------|--------|--------|--------|--------|--------|
| 總 計       | 12,771 | 14,749 | 15,711 | 18,434 | 20,718 | 28,448 |
| 研 究 機 關   | 4,039  | 4,724  | 4,255  | 4,598  | 5,065  | 6,129  |
| • 國 公 立   | 2,506  | 2,658  | 1,847  | 2,190  | 2,159  | 2,775  |
| • 非營利法人   | 1,533  | 2,066  | 2,409  | 2,408  | 2,906  | 3,354  |
| 大 學       | 4,836  | 5,721  | 7,051  | 8,695  | 8,488  | 12,360 |
| 企 業 體     | 3,896  | 5,304  | 4,405  | 5,141  | 7,165  | 9,959  |

資料：科學技術處

## 交易 擴大 均衡에 관한 提案

三益樂器製造(株)  
社長 李 孝 益

오늘 韓・日兩國 財界代表가 參席한 가운데 兩國間 交易의 擴大 均衡方案에 대해 말씀드릴 機會를 갖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익히 알고계신 바와같이, 第2次 石油波動을 계기로 해서 停滯된 世界經濟가 '83년에 들어 美國의 內需回復, 原油價格의 引下等으로 先進國經濟는 回復으로 轉換되었습니다.

그러나, 先進諸國이 自國產業保護와 失業增加防止를 위해 開途國商品에 대해 各種 輸入規制를 加함으로써, 開途國으로의 回復擴散을 阻害하고 있습니다.

昨年 12月 發表된 日本 通產省의 '83年版 經濟協力 白書는, 우선 先進國 經濟의 回復이 開途國의 經濟發展으로 이어지는 메카니즘을 回復하는 것이 急先務라고 強調하고, 이를 위해 先進諸國은 첫째, 開途國 經濟를 配慮한 經濟運用을 할것.

둘째, 保護貿易主義를 排除하고 開途國으로부터의 輸入을 늘리도록 할것 등을 強調한 것은 隣接開途國으로서 마음 든든한바 있습니다.

그間, 韓日間 交易은, 1965年 國交 正常化 以後 順調롭게 擴大되어 왔읍니다만, 最近에는 오히려 停滯 및 縮小傾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去年的 경우 景氣의 全般的인 回復勢에도 不拘하고, 交易規模는 '81 年度 水準에 못미치는 96 億 달러에 머물렀습니다.

兩國間の 貿易不均衡 또한, '80 年度 以後 保合勢 내지는 減少傾向마저 보였으나, 去年的 경우 韓國은 對日 輸入 增大로 對日 貿易赤字는 全體 貿易赤字의 146 %에 達하였습니다.

韓日 兩國의 貿易 不均衡은, 韓國의 輸出構造上 不可避한 點이 없지 않으며, 또 반드시 두 나라 사이의 交易이 均衡을 이루어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一方的인 貿易赤字만 持續되고 있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雙方的 努力에 의거 韓國의 對日 輸出額은 상당히 늘어날 可能性이 있으므로 그 改善方向과 우리側의 要望事項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日本은 世界 굴지의 貿易大國으로서 世界 貿易의 健全한 發展을 위해 세 차례에 걸쳐서 輸入開放措置를 斷行했으며, 또한 昨年 10 月 21 日 字 綜合經濟對策에서는 追加的인 輸入開放措置를 發表하는 등, 歐美諸國과 比較해도 별로 손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內容을 살펴보면, 關稅의 撤廢나 關稅率 引下의 對象品目들은 거의 大部分이 特惠關稅適用 對象品目들이어서 結果的으로 는 歐美의 競爭力만 強化시켜 그間 GSP의 Merit를 살려 輸出해 온 開途國에게는 오히려 MINUS 要因이 되고 있음을 지적코자 합니다.

그리고, 日本의 市場開放措置는 歐美의 關心 品目과 國際貿易上 自



國의 比較 優位 品目에만 偏重된 감이 있고, 韓國 等 開途國의 關心品目에는 여전히 高率의 關稅를 부과하고 있는 實情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다음으로 日本의 GSP 制度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周知하시는 바와같이, 韓國은 그동안 貴國에서 供與받은 GSP의 덕택으로 對日 輸出에 많은 도움을 받아왔습니다.

參考로 말씀드리면, 韓國의 對日 輸出中 GSP를 適用 받는 比率은 지난 '82 年度의 경우, 37.4 %에 達해 貴國의 GSP 供與對象國中 韓國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것이 곧 韓國의 輸出增大에 크게 寄與하고 있는 點, 또한 이 GSP란 것이 韓國뿐만 아니라 모든 開途國에 골고루 그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는 點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韓日 兩國間의 그간의 一方的인 貿易不均衡, 特히 昨年の 경우 對日 赤字가 28 億 달러나 되어 韓國의 全體 貿易赤字의 146 %나 된다는 點을 감안할때, 最近 日本에서 取한 制限的인 措置, 즉 1/2 條項의 1/3 條項으로의 變更 等에는 커나란 失望을 느끼지 않을수 없습니다.

따라서 貴國의 關稅 및 GSP 運營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要望코자 합니다.

첫째, 開途國 關心品目에 重點을 둔 「第4次 市場開放策」을 早速히 강구하여 주시고,

둘째, 我國 關心品目에 대해 그 性質에 따라 關稅의 引下, 撤廢

및 GSP에의 추가 등을 거듭 要望합니다.

세제, 特惠 限度를 最小限 日本의 總 輸入額의 10% 水準으로 擴大해 주시고, 1/3 SP條項의 삭제를 要望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輸入事前許可制, 철저한 輸入檢査 및 복잡한 各種 基準 等도 大幅的으로 緩和하여 주실것을 要望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問題 및 要望 事項은 이미 오래 前부터 指摘, 要望드린 事項이나 그 改善의 進展은 여전히 미미한 狀態입니다.

勿論, 이와같은 韓國側의 要望事項은 基本的으로 國家的인 次元에서 擧論되어야만 解決이 可能하다고 생각됩니다만, 本 合同會議에 걸고 있는 兩國民의 期待에 부응하고, 本 會議가 單純한 年例行事에 지나지 않는다는 一部 批判的인 見解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雙方이 相互 理解와 協力の 基本 精神으로 努力해 나가야 할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4,15回 會議에서 合意를 본 바 있는 對韓 地域單位 購買사절단 파견에 관해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日本代表 여러분의 協助를 期待하는 바 입니다.

지난 '80年 7月 이 자리에 계신 植田三夫 日商岩井 社長님을 團長으로한 對韓購買促進 使命은 購買 成果 못지않게 兩國 國民이 보다 친숙해지고, 理解할 수 있는 큰 契機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今年은 日本 政府의 積極的인 指導下에 JETRO가 各種 輸入促進事業을 計劃하고 있는 만큼, 「'84年度 서울國際貿易博覽會」(SITRA '84) 開催期間인 今年 9月中에 꼭 派遣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積極的인 協調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對韓購買使節團의 派遣에

대해서는 大企業 보다도, 그동안 比較的 韓國과는 交流가 疎遠했던 地方都市의 수퍼체인, 中堅 中小企業을 中心으로 한 訪問의 派韓이 오히려 効果的일 것으로 생각되므로 可能한限 各 地方 單位로, 業種別로 構成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SITRA '84 期間中 購買促進使節團의 派韓은 日本 地方 商工人들로 하여금 韓國商品을 直接 접하고 韓國 商工人들과 交流를 가질 수 있는 좋은 機會가 될것을 確言하면서 以上으로 提案을 마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韓 日 貿 易 現 況

### 1. 部門別 對日 輸出入

(單位：千弗)

| 區 分     | '82 年 (1 ~ 12) |           |        | '83 年 (1 ~ 12) |           |        |
|---------|----------------|-----------|--------|----------------|-----------|--------|
|         | 輸 出            | 輸 入       | 比 率    | 輸 出            | 輸 入       | 比 率    |
| 合 計     | 3,314,000      | 5,305,000 | 1:1.60 | 3,358,000      | 6,238,000 | 1:1.86 |
| 農 水 產 品 | 683,000        | 69,000    | 1:0.10 | 717,000        | 73,000    | 1:0.10 |
| 化 學 品   | 188,000        | 1,286,000 | 1:6.84 | 176,000        | 1,406,000 | 1:7.97 |
| 織 維     | 975,000        | 349,000   | 1:0.36 | 722,000        | 366,000   | 1:0.51 |
| 鐵鋼・金屬   | 586,000        | 841,000   | 1:1.44 | 559,000        | 998,000   | 1:1.79 |
| 機 械     | 36,000         | 2,499,000 | 1:69.4 | 389,000        | 3,163,000 | 1:8.13 |
| 雜 貨     | 211,000        | 90,000    | 1:0.43 | 182,000        | 104,000   | 1:0.57 |

### 2. 對日 貿易收支 現況

(單位：千弗)

| 區 分 \ 年 度 | '66 年    | '76 年      | '82 年      | '83 年      |
|-----------|----------|------------|------------|------------|
| 貿 易 規 模   | 360,000  | 4,900,000  | 8,619,000  | 9,596,000  |
| 對 日 輸 出   | 66,000   | 1,816,000  | 3,314,000  | 3,358,000  |
| 對 日 輸 入   | 294,000  | 3,099,000  | 5,305,000  | 6,238,000  |
| 貿 易 收 支   | △228,000 | △1,297,000 | △1,990,000 | △2,880,000 |
| 貿易赤字累計    | 349,000  | 7,785,000  | 24,027,000 | 26,907,000 |
| 輸出入 比率    | 1:4.5    | 1:1.7      | 1:1.60     | 1:1.86     |

### 3. 韓國對 總 貿易量

(單位：千弗)

| 年 度 \ 區 分 | 輸 出        | 輸 入        | 貿易收支       | 備 考 |
|-----------|------------|------------|------------|-----|
| 1981      | 20,993,000 | 26,132,000 | △5,139,000 |     |
| 1982      | 21,602,000 | 24,250,000 | △2,719,000 |     |
| 1983      | 24,223,000 | 26,192,000 | △1,969,000 |     |

# 對日 主要輸出品目 現況 (1983.12月 現在)

(單位：千弗)

| 區 分      | 1982(1~12) | 1983(1~12) | 前年對比增加率 |
|----------|------------|------------|---------|
| 動物・酪農品   | 12,839     | 11,678     | - 9.0   |
| 遠洋漁獲物    | 156,277    | 138,350    | - 11.5  |
| 活鮮魚      | 136,546    | 139,159    | 1.9     |
| 冷凍水產物    | 173,119    | 180,027    | 3.8     |
| 海藻類      | 47,681     | 48,404     | 1.5     |
| 原皮・革製品   | 18,548     | 15,292     | - 17.5  |
| 窯業製品     | 13,989     | 16,630     | 18.9    |
| 石材・石製品   | 70,278     | 73,141     | 4.1     |
| 油類製品     | 92,064     | 433,594    | 371.0   |
| 化工藥品     | 72,236     | 69,756     | - 3.4   |
| 合成樹脂物質製品 | 74,271     | 62,758     | - 15.5  |
| 鐵鋼板      | 454,332    | 391,559    | - 13.8  |
| 銅・銅製品    | 19,630     | 36,334     | 85.0    |
| 機械類      | 35,893     | 41,889     | 16.7    |
| 電氣機器・製品  | 20,370     | 28,276     | 38.8    |
| 電子製品     | 213,694    | 245,371    | 2.8     |
| 船舶       | 66,654     | 33,318     | - 50.0  |
| 纖維系類     | 211,041    | 133,062    | - 36.9  |
| 織物類      | 188,439    | 170,485    | - 9.5   |
| 衣類       | 532,959    | 387,890    | - 27.2  |
| 靴類       | 103,065    | 80,638     | - 21.8  |
| 其他       | 600,519    | 619,920    | 3.2     |
| 合 計      | 3,314,444  | 3,357,530  | 1.3     |

對日 主要輸入品目 現況 (1983.12 月 現在)

(單位：千弗)

| 區 分            | 1982(1~12) | 1983(1~12) | 前年度對比增加率 |
|----------------|------------|------------|----------|
| 農 水 產 品        | 68,777     | 72,780     | 5.8      |
| TELEPHTHALIC 酸 | 50,013     | 46,498     | - 7.0    |
| CARROLACTAM    | 56,017     | 55,788     | - 0.4    |
| 有 機 合 成 染 料    | 36,478     | 42,785     | 17.3     |
| 合 成 RUBBER     | 55,317     | 61,075     | 10.4     |
| 加 工 皮 革        | 157,120    | 163,550    | 4.1      |
| 人 造 織 維 類      | 175,306    | 161,436    | - 12.5   |
| 鐵鋼金屬工業原料同製品    | 841,360    | 997,967    | 18.6     |
| 熱電子管・冷陰極管・光電管  | 178,049    | 285,706    | - 60.0   |
| 內 燃 機 關        | 170,861    | 155,980    | - 8.7    |
| P U M P 類      | 69,083     | 75,589     | 9.4      |
| 織 機 類          | 35,538     | 25,218     | - 29.0   |
| 金 屬 壓 延 機      | 20,905     | 15,340     | - 26.6   |
| 金 屬 加 工 機 械    | 36,060     | 112,785    | 212.8    |
| V A L V E 類    | 38,832     | 50,076     | 29.0     |
| 合 金 鋼・高 炭 素 鋼  | 203,844    | 220,471    | 8.0      |
| 發 電 機          | 20,629     | 16,361     | - 20.7   |
| 電氣回路・制御機器      | 132,083    | 193,877    | 46.8     |
| 無 線 通 信 機 器    | 104,983    | 129,939    | 23.8     |
| 錄音機・音聲再生機      | 60,268     | 110,815    | 83.9     |
| 時 計 部 品        | 69,681     | 77,007     | 10.5     |
| 自 動 車 部 品      | 79,876     | 116,184    | 45.5     |
| 船 舶            | 197,113    | 127,214    | - 35.4   |
| 雜 製 品          | 90,421     | 103,519    | 14.5     |
| 其 他            | 2,356,631  | 2,820,947  | 19.7     |
| 合 計            | 5,305,195  | 6,238,407  | 17.6     |

# 1) 特惠關稅適用追加要望品目(75 個)

|    | CCCN No.  | 品 目                               | 現行關稅率(1983) |     |
|----|-----------|-----------------------------------|-------------|-----|
|    |           |                                   | 實行%         | 特惠% |
| 1  | 03.01-223 | 방어 ( 살아있는것, 生鮮, 冷蔵 )              | 10          | -   |
| 2  | 03.01-226 | 고등어 및 정어리 ( 살아있는것, 生鮮, 冷蔵 )       | 10          | -   |
| 3  | 03.01-230 | 청어 ( 冷凍 )                         | 7.5         | -   |
| 4  | 03.01-231 | 대구 ( 冷凍 )                         | 7.5         | -   |
| 5  | 03.01-233 | 전갱어 ( 冷凍 )                        | 10          | -   |
| 6  | 03.01-235 | 고등어 및 정어리 ( 冷凍 )                  | 10          | -   |
| 7  | 03.01-237 | 대구알 ( 冷凍 )                        | 7.5         | -   |
| 8  | 03.01-242 | 기타魚類 ( 살아있는 것 )                   | 5           | -   |
| 9  | 03.01-253 | 삼치 ( 生鮮, 冷蔵 )                     | 5           | -   |
| 10 | 03.01-260 | 복어 ( 生鮮, 冷蔵 )                     | 5           | -   |
| 11 | 03.01-261 | 기타의 魚類 ( 生鮮, 冷蔵 )                 | 5           | -   |
| 12 | 03.01-262 | 다랑어 ( Skip - JACK ) ( 冷凍 )        | 5           | -   |
| 13 | 03.01-263 | 가다랑어 ( Albacore ) ( 冷凍 )          | 5           | -   |
| 14 | 03.01-264 | 황다랑어 ( Yellowfin TUNA ) ( 冷凍 )    | 5           | -   |
| 15 | 03.01-266 | 눈다랑어 ( Big - eye TUNA )<br>( 冷凍 ) | 5           | -   |
| 16 | 03.01-268 | 황새치 ( Swordfish ) ( 冷凍 )          | 5           | -   |

|    | CCCN No.  | 品 目                                   | 現行關稅率(1983) |     |
|----|-----------|---------------------------------------|-------------|-----|
|    |           |                                       | 實行%         | 特惠% |
| 17 | 03.01-271 | 연어 및 송어                               | 5           |     |
| 18 | 03.01-272 | 삼치 (冷凍)                               | 5           |     |
| 19 | 03.01-275 | 도미 (冷凍)                               | 3.8         |     |
| 20 | 03.01-276 | 상어 (冷凍)                               | 4.1         |     |
| 21 | 03.01-278 | 복어 (冷凍)                               | 5           |     |
| 22 | 03.01-279 | 기타의 魚類 (冷凍)                           | 3.8         |     |
| 23 | 03.01-282 | 참치 필레 (Fillets) (冷凍)                  | 5           |     |
| 24 | 03.01-289 | 기타의 필레 (Fillets) (冷凍)                 | 5           |     |
| 25 | 03.02-120 | 대구알 (鹽藏, 鹽水절임, 乾燥)                    | 10.3        |     |
| 26 | 03.02-139 | 청어알 (鹽藏, 鹽水절임, 乾燥)                    | 12          |     |
| 27 | 03.03-111 | 새우 (살아있는 것)                           | 3.4         |     |
| 28 | 03.03-119 | 기타의 새우 (生鮮, 冷蔵, 冷凍)                   | 3.4         |     |
| 29 | 03.03-211 | 게 (살아있는것, 生鮮, 冷蔵, 冷凍)                 | 7.5         |     |
| 30 | 03.03-212 | 물오징어 (살아있는것, 生鮮, 冷蔵, 冷凍)              | 6.9         |     |
| 31 | 03.03-215 | 백합 (살아있는것, 生鮮, 冷凍)                    | 5           |     |
| 32 | 03.03-216 | 具柱 (살아있는것, 生鮮, 冷凍)                    | 10          |     |
| 33 | 03.03-219 | 기타의 甲殼類 및 軟體動物<br>(살아있는것, 生鮮, 冷蔵, 冷凍) | 10          |     |
| 34 | 07.01-320 | 마늘 (生鮮, 冷凍)                           | 5           |     |



|    | CCCN No.  | 品 目   | 現行關稅率(1983) |     |
|----|-----------|---|-------------|-----|
|    |           |   | 實行%         | 特惠% |
| 35 | 07.01-920 | 송이버섯 (生鮮, 冷蔵)                               | 5           | -   |
| 36 | 07.02-090 | 冷凍野菜 (기타의 것)                                | 10          | -   |
| 37 | 07.03-090 | 野菜 (一時的으로 貯藏한 것) (기타의 것)                    | 15          | -   |
| 38 | 07.04-020 | 표고버섯 (乾燥한 것)                                | 15          | -   |
| 39 | 08.10-090 | 기타의 冷凍果實 (無糖의 것)                            | 20          | -   |
| 40 | 12.07-972 | 白 參   | 5           | -   |
| 41 | 12.08-332 | 미 역   | 15          | -   |
| 42 | 12.08-339 | 食用의 海草 (기타)                                 | 15          | -   |
| 43 | 13.03-810 | 細寒天   | 160円/kg     | -   |
| 44 | 13.03-890 | 寒 天 (기타)                                    | 160円/kg     | -   |
| 45 | 14.05-590 | 植物性生産品 (기타)                                 | 10          | -   |
| 46 | 15.07-310 | 菜 種 油                                       | 17円/kg      | -   |
| 47 | 16.04-249 | 魚調製品 (기타)                                   | 12          | -   |
| 48 | 16.05-239 | 오징어調製品 (기타)                                 | 15          | -   |
| 49 | 27.10-108 | 揮發油 (石油化學製品用)                               | 125円/kl     | -   |
| 50 | 27.10-122 | 燈油 (제트엔진燃料用)                                | 1,010円/kl   | -   |
| 51 | 27.10-147 | 重油 (15度에서의 比重이 0.9037以下) (기타)               | 3,930円/kl   | -   |
| 52 | 42.03-190 | 衣類 및 同附屬品 (革製의 것으로서 金屬, 貴石, 산호등 사용한 것) (기타) | 20          | -   |

|    | CCCN No.         | 品 目                                    | 現行關稅率 (1983) |      |
|----|------------------|--|--------------|------|
|    |                  |  | 實行 %         | 特惠 % |
| 53 | 42.03-210        | 장갑 (革製의 것으로서 運動用)<br>(기타)              | 10           | -    |
| 54 | 42.03-221        | 野球用 장갑 (革製)                            | 12.5         | -    |
| 55 | 42.03-229        | 運動用 장갑 (기타)                            | 12.5         | -    |
| 56 | 42.03-230        | 衣類 (革製, 콤포지션레저製)                       | 12.5         | -    |
| 57 | 42.02-010        | 羊 또는 山羊의 毛皮                            | 15           | -    |
| 58 | 42.03-011        | 毛皮製의 衣類 · 部分品 · 同附屬品<br>(羊 또는 山羊毛皮의 것) | 20           | -    |
| 59 | 43.03-012        | 毛皮製의 衣類 · 部分品 · 同附屬品<br>(토끼毛皮의 것)      | 20           | -    |
| 60 | 44.15-193        | 合板 (두께 3 ~ 6 mm) (기타)                  | 20           | -    |
| 61 | 50.02-221<br>222 | 生絲 (21 中 2 A 格, 기타)                    | 7.5          | -    |
| 62 | 50.02-223        | 生絲 (27 中 및 28 中)                       | 7.5          | -    |
| 63 | 50.04-000        | 絹 絲                                    | 7.5          | -    |
| 64 | 50.09-141        | 絹織物 (幅 45 cm 以下の 紋織의 것)<br>(기타)        | 10           | -    |
| 65 | 50.09-142        | 絹織物 (幅 45 cm 以下の 紋加工한<br>것)            | 10           | -    |
| 66 | 50.09-149        | 絹織物 (幅 45 cm 以下) (기타)                  | 10           | -    |
| 67 | 50.09-169        | 絹織物 (幅 45 cm 넘는 기타의 것)                 | 10           | -    |

|    | CCCN No          | 品 目                                       | 現行關稅率(1983) |     |
|----|------------------|---|-------------|-----|
|    |                  |   | 實行%         | 特惠% |
| 68 | 55.09-321        | 綿織物(綿重量 85 %未滿)                           | 8.4         | -   |
| 69 | 55.09-413        | 綿織物(綿重量 85 %以下의 포프린 또는 4.4% +1.2%中 높은 稅率) | 5.6 %       | -   |
| 70 | 55.09-416<br>419 | 綿織物(綿重量 85 %以上의 朱子 및 프린트 한것)              | "           | -   |
| 71 | 55.09-432<br>443 | 綿織物(프린트 및 포프린)                            | "           | -   |
| 72 | 55.09-449        | 綿織物(綿重量 85 %以上)(기타)                       | "           | -   |
| 73 | 64.01-021        | 長靴(본바닥이 고무製 또는 人造 프라스틱製로 윗部分이 고무製의 것)     | 10          | -   |
| 74 | 64.01-029        | 長靴(본바닥 및 위를 고무 또는 人造프라스틱으로 만든것)(기타)       | 10          | -   |
| 75 | 64.01-039        | 短靴(본바닥 및 위를 고무 또는 人造프라스틱으로 만든것)(기타)       | 10          | -   |

## 2) 特惠關稅率引下要望品目 ( 97 個 )

1984. 3.31 現在

|    | CCCN No.  | 品 目                                     | 現行關稅率(1983) |      |
|----|-----------|---|-------------|------|
|    |           |   | 實行%         | 特惠%  |
| 1  | 03.03-213 | 문어 (살아있는것, 生鮮, 冷凍)                      | 10          | 5    |
| 2  | 04.07-110 | 성게                                      | 10          | 7.5  |
| 3  | 07.04-090 | 乾燥野菜                                    | 15          | 10   |
| 4  | 12.08-331 | 팥                                       | 15          | 10   |
| 5  | 16.05-299 | 甲穀類 및 軟體動物調製品 (기타)                      | 12          | 9    |
| 6  | 42.02-211 | 革製핸드백 (기타)                              | 10          | 5    |
| 7  | 42.02-219 | 트렁크, 골프백, 工具케이스 (革製, 콤포지션레저製) (기타)      | 12.5        | 6.25 |
| 8  | 42.02-221 | 핸드백 (織物製) (기타)                          | 10          | 5    |
| 9  | 42.02-231 | 旅行用具 및 化粧具케이스 (織物製) (기타)                | 10          | 5    |
| 10 | 42.02-291 | 골프백, 工具케이스類 (기타)                        | 10          | 5    |
| 11 | 44.05-400 | 라왕 (製材)                                 | 10          | 5    |
| 12 | 51.04-127 | 合成纖維 長纖維織物 (나ylon 纖維의 重量이 全體의 85 % 以上)  | 8           | 4    |
| 13 | 51.04-131 | 合纖長纖維織物 (폴리에스테르 纖維의 重量이 85 % 以上, 染色한 것) | 8           | 4    |
| 14 | 51.04-133 | 合纖長纖維織物 (폴리에스테르 纖維의 重量이 85 % 以上의 기타의 것) | 8           | 4    |

|    | CCCN No.  | 品 目                                    | 現 行 關 稅 率 (1983) |       |
|----|-----------|--|------------------|-------|
|    |           |  | 實 行 %            | 特 惠 % |
| 15 | 51.04-144 | 合纖長纖維織物 ( 나이론의 重量이 85 % 以上의 기타의 것 )    | 10               | 5     |
| 16 | 51.04-152 | 아세테이트 長纖維織物 ( 기타 )                     | 10               | 5     |
| 17 | 56.07-143 | 合纖短纖維織物 ( 폴리에스텐 50% ~ 85 )             | 10               | 5     |
| 18 | 58.05-090 | 細幅織物 ( 기타 )                            | 8                | 4     |
| 19 | 58.10-030 | 자수布 ( 合成纖維製 )                          | 22.4             | 11.2  |
| 20 | 58.10-090 | 자수布 ( Motif 포함한 기타의 것 )                | 22.4             | 11.2  |
| 21 | 60.02-019 | 장갑 ( 編製 ) ( 기타 )                       | 8                | 4     |
| 22 | 60.02-021 | 장갑 ( 綿製 )                              | 11.2             | 5.6   |
| 23 | 60.02-029 | 장갑 ( 기타 )                              | 8                | 4     |
| 24 | 60.03-120 | 양말類 ( 合纖製 )                            | 10               | 5     |
| 25 | 60.03-210 | 양말類 ( 綿製 )                             | 11.2             | 5.6   |
| 26 | 60.03-220 | 양말類 ( 羊毛製 )                            | 8                | 4     |
| 27 | 60.04-131 | 파자마등 잠옷 ( 자수 및 레이스 사용한 것 ) ( 綿製 )      | 11.2             | 5.6   |
| 28 | 60.04-192 | 기타의 內衣 ( 메리야스 編製 ) ( 綿製로서 자수, 레이스한 것 ) | 11.2             | 5.6   |
| 29 | 60.04-193 | 기타의 內衣 ( 合纖製의 男子用 )                    | 11.2             | 5.6   |

|    | CCCN No.  | 品 目                            | 現行關稅率(1983) |     |
|----|-----------|--------------------------------|-------------|-----|
|    |           |                                | 實行%         | 特惠% |
| 30 | 60.04-194 | 기타의 內衣 (合纖製의 女子 및 乳幼兒用)        | 11.2        | 5.6 |
| 31 | 60.04-221 | 男子用의 셔츠 (메리야스製)<br>(綿製의 기타의 것) | 11.2        | 5.6 |
| 32 | 60.04-222 | 男子用 셔츠 (合纖製)                   | 11.2        | 5.6 |
| 33 | 60.04-293 | 기타의 男子用 內衣 (綿製)                | 11.2        | 5.6 |
| 34 | 60.04-294 | 기타의 女子・幼兒用 內衣 (綿製)             | 11.2        | 5.6 |
| 35 | 60.05-111 | 웨터類 (羊毛製)                      | 16.8        | 8.4 |
| 36 | 60.05-112 | 웨터類 (綿製)                       | 16.8        | 8.4 |
| 37 | 60.05-113 | 웨터類 (合纖製)                      | 16.8        | 8.4 |
| 38 | 60.05-121 | 女子 및 幼兒用드레스, 스커트,<br>슈츠 (羊毛製)  | 16.8        | 8.4 |
| 39 | 60.05-122 | 女子 및 幼兒用드레스, 스커트,<br>슈츠 (綿製)   | 16.8        | 8.4 |
| 40 | 60.05-123 | 女子 및 幼兒用드레스, 스커트,<br>슈츠 (合纖製)  | 16.8        | 8.4 |
| 41 | 60.05-142 | 바지, 반바지類 (合纖製)                 | 16.8        | 8.4 |
| 42 | 60.05-149 | 바지, 반바지類 (기타의 것)               | 16.8        | 8.4 |
| 43 | 60.05-152 | 아우터・셔츠 (綿製)                    | 16.8        | 8.4 |
| 44 | 60.05-153 | 아우터・셔츠 (合纖製)                   | 16.8        | 8.4 |
| 45 | 60.05-161 | 기타의 外衣類 (羊毛製)                  | 16.8        | 8.4 |

|     | CCCN No.  | 品 目  | 現行關稅率(1983) |     |
|-----|-----------|--|-------------|-----|
|     |           |  | 實行%         | 特惠% |
| 4 6 | 60.05-162 | 기타의 外衣類 (綿製)                                 | 16.8        | 8.4 |
| 4 7 | 60.05-163 | 기타의 外衣類 (合成纖維製)                              | 16.8        | 8.4 |
| 4 8 | 60.05-190 | 編物製品 (자수, 레이스) (기타)                          | 16.8        | 8.4 |
| 4 9 | 60.05-211 | 웨터類 (羊毛製의 기타의 것)                             | 14          | 7   |
| 5 0 | 60.05-212 | 웨터類 (綿製의 기타의 것)                              | 14          | 7   |
| 5 1 | 60.05-213 | 웨터類 (合成纖維製의 기타의 것)                           | 14          | 7   |
| 5 2 | 60.05.223 | 女子用 및 乳幼兒用드레스, 스커트, 슈츠 (合成纖維製의 기타의 것)        | 14          | 7   |
| 5 3 | 60.05-242 | 바자 · 반바지 (合纖製의 기타의 것)                        | 14          | 7   |
| 5 4 | 60.05-252 | 아우터 · 셔츠 (綿製의 기타의 것)                         | 14          | 7   |
| 5 5 | 60.05-253 | 아우터 · 셔츠 (合纖製의 기타의 것)                        | 14          | 7   |
| 5 6 | 60.05-261 | 其他의 外衣類 (메리야스編製) 羊毛製의 기타의 것)                 | 14          | 7   |
| 5 7 | 60.05-263 | 기타의 外衣類 (메리야스編製) 合纖製의 기타의 것)                 | 14          | 7   |
| 5 8 | 61.01-219 | 男子用外衣類 (第 59.08, 59.09, 59.12 號 該當絨物로 製造한 것) | 14          | 7   |

|    | CCCN No.  | 品 目                                 | 現行關稅率(1983) |     |
|----|-----------|-------------------------------------|-------------|-----|
|    |           |                                     | 實行%         | 特惠% |
| 59 | 61.01-222 | 男子用의 오바코트(人造纖維製의 것)                 | 14          | 7   |
| 60 | 61.01-229 | 男子用의 오바코트(기타의 것)                    | 14          | 7   |
| 61 | 61.01-231 | 男子用의 슈츠(羊毛製)                        | 14          | 7   |
| 62 | 61.01-232 | 男子用의 슈츠(綿製)                         | 14          | 7   |
| 63 | 61.01-233 | 男子用의 슈츠(人造纖維製의 것)                   | 14          | 7   |
| 64 | 61.01-241 | 男子用의 바지, 반바지(羊毛製)                   | 14          | 7   |
| 65 | 61.01-242 | 男子用의 바지, 반바지(綿製)                    | 14          | 7   |
| 66 | 61.01-243 | 男子用의 바지, 반바지(人造纖維製)                 | 14          | 7   |
| 67 | 61.01-251 | 男子用의 자켓트類(羊毛製)                      | 14          | 7   |
| 68 | 61.01-252 | 男子用의 자켓트類(綿製)                       | 14          | 7   |
| 69 | 61.01-253 | 男子用의 자켓트類(人造纖維製)                    | 14          | 7   |
| 70 | 61.01-292 | 男子用의 外衣類(綿製의 기타의 것)                 | 14          | 7   |
| 71 | 61.01-293 | 男子用의 外衣類                            | 14          | 7   |
| 72 | 61.02-213 | 女子用 및 幼兒用오바코트, 자켓트(人造纖維製)(자수, 레이스製) | 14          | 7   |
| 73 | 61.02-231 | 블라우스(綿製)(자수, 레이스製)                  | 14          | 7   |



|    | CCCN No.  | 品 目  | 現行關稅率(1983) |     |
|----|-----------|--|-------------|-----|
|    |           |  | 實行%         | 特惠% |
| 74 | 61.02-232 | 블라우스(人造纖維)(자수, 레이스製)                       | 14          | 7   |
| 75 | 61.02-236 | 女子用・乳幼兒用外衣類(人造纖維製)(자수, 레이스製)               | 14          | 7   |
| 76 | 61.02-249 | 女子用・乳幼兒用外衣類(第 59.09, 59.12 號該當 織物製의 기타의 것) | 14          | 7   |
| 77 | 61.02-251 | 女子用・幼兒用오바코트 및 자켓트(羊毛製의 기타의 것)              | 14          | 7   |
| 78 | 61.02-252 | 女子用・幼兒用의 오바코트 및 자켓트(綿製의 기타의 것)             | 14          | 7   |
| 79 | 61.02-253 | 女子用・幼兒用오바코트 및 자켓트(人造纖維製의 기타의 것)            | 14          | 7   |
| 80 | 61.02-263 | 女子用・幼兒用드레스(人造纖維製의 기타의 것)                   | 14          | 7   |
| 81 | 61.02-267 | 스커트(人造纖維製의 기타의 것)                          | 14          | 7   |
| 82 | 61.02-271 | 블라우스(綿製의 기타의 것)                            | 14          | 7   |
| 83 | 61.02-272 | 블라우스(人造纖維製의 기타의 것)                         | 14          | 7   |
| 84 | 61.02-275 | 女子用・幼兒用의 바지 및 반바지(綿製의 기타의 것)               | 14          | 7   |

|    | CCCN No   | 品 目                                      | 現行 關稅率(1983) |       |
|----|-----------|--|--------------|-------|
|    |           |  | 實 行 %        | 特 惠 % |
| 85 | 61.02-276 | 女子用・幼兒用의 바지 및 반바지 (人造纖維製의 기타의 것)         | 14           | 7     |
| 86 | 61.02-282 | 女子用・乳幼兒用外衣類 (綿製의 기타의 것)                  | 14           | 7     |
| 87 | 61.03-283 | 女子用・乳幼兒用外衣類 (人造纖維製의 기타의 것)               | 14           | 7     |
| 88 | 61.03-110 | 男子用의 셔츠 (綿製)                             | 11.2         | 5.6   |
| 89 | 61.03-120 | 男子用의 셔츠 (合成纖維製)                          | 11.2         | 5.6   |
| 90 | 61.03-190 | 男子用의 셔츠 (기타의 것)                          | 11.2         | 5.6   |
| 91 | 61.05-221 | 손수건 (綿製의 기타의 것)                          | 8.4          | 4.2   |
| 92 | 64.02-222 | 캠버스・슈즈 (본바닥이 콤포지션 래저 고무製, 人造프라스틱製의 것)    | 10           | 5     |
| 93 | 64.02-229 | 신발 (본바닥이 콤포지션 革製, 고무 또는 人造프라스틱製) (기타의 것) | 10           | 5     |
| 94 | 97.02-000 | 人形 및 同部分品                                | 6.6          | 3.3   |
| 95 | 97.03-010 | 模型 및 玩具 (紡織用 纖維의 織物製)                    | 6.6          | 3.3   |
| 96 | 97.03-030 | 模型 및 玩具 (人造프라스틱製) (기타)                   | 6.6          | 3.3   |
| 97 | 97.03-090 | 娛樂用의 模型 및 玩具 및 同部分品과 附屬品 (기타)            | 5.6          | 2.8   |

### 3) 對日關稅撤廢 및 引下要望品目

1984.3.31 現在

|    | CCCN No   | 品 目                            | 現行關稅率 (1983) |       |
|----|-----------|--------------------------------|--------------|-------|
|    |           |                                | 實 行 %        | 特 惠 % |
| 1  | 03.01-223 | 방어 ( 살아있는것, 生鮮, 冷蔵 )           | 10           | -     |
| 2  | 03.01-226 | 고등어 및 정어리 ( 살아있는것, 生鮮, 冷蔵 )    | 10           | -     |
| 3  | 03.01-233 | 전갱어 ( 冷凍의 것 )                  | 10           | -     |
| 4  | 03.01-235 | 고등어 및 정어리 ( 冷凍의 것 )            | 10           | -     |
| 5  | 03.01-237 | 대구알 ( 冷凍의 것 )                  | 7.5          | -     |
| 6  | 03.01-242 | 기타魚類 ( 살아있는 것 )                | 5            | -     |
| 7  | 03.01-253 | 삼치 ( 生鮮, 冷蔵 )                  | 5            | -     |
| 8  | 03.01-261 | 기타의 魚類 ( 生鮮, 冷蔵 )              | 5            | -     |
| 9  | 03.01-262 | 다랑어 ( Skip-JACK ) ( 冷凍 )       | 5            | -     |
| 10 | 03.01-263 | 가다랑어 ( Albacore ) ( 冷凍 )       | 5            | -     |
| 11 | 03.01-264 | 황다랑어 ( Yellowfin TUNA ) ( 冷凍 ) | 5            | -     |
| 12 | 03.01-266 | 눈다랑어 ( Big-eye TUNA ) ( 冷凍 )   | 5            | -     |
| 13 | 03.01-268 | 황새치 ( Swordfish ) ( 冷凍 )       | 5            | -     |
| 14 | 03.01-271 | 연어 및 송어                        | 5            | -     |
| 15 | 03.01-275 | 도미 ( 冷凍 )                      | 3.8          | -     |
| 16 | 03.01-278 | 복어 ( 冷凍 )                      | 5            | -     |
| 17 | 03.01-279 | 기타의 魚類 ( 冷凍 )                  | 3.8          | -     |

|    | CCCN No.  | 品 目                                     | 現行關稅率 (1983) |      |
|----|-----------|---|--------------|------|
|    |           |   | 實行 %         | 特惠 % |
| 18 | 03.01-282 | 참치 필레 ( Fillets ) ( 冷凍 )                | 5            | -    |
| 19 | 03.01-289 | 기타의 필레 ( Fillets ) ( 冷凍 )               | 5            | -    |
| 20 | 03.02-120 | 대구알 ( 鹽藏, 鹽水 절임, 乾燥 )                   | 10.3         | -    |
| 21 | 03.02-139 | 청어알 ( 鹽藏, 鹽水 절임, 乾燥 )                   | 12           | -    |
| 22 | 03.03-111 | 새우 ( 살아있는것 )                            | 3.4          | -    |
| 23 | 03.03-119 | 기타의 새우 ( 生鮮, 冷蔵, 冷凍 )                   | 3.4          | -    |
| 24 | 03.03-212 | 물오징어 ( 살아있는것, 生鮮, 冷蔵, 冷凍 )              | 6.9          | -    |
| 25 | 03.03-213 | 문어 ( 살아있는것, 生鮮, 冷凍 )                    | 10           | 5    |
| 26 | 03.03-216 | 具 桂 ( 살아있는것, 生鮮, 冷凍 )                   | 10           | -    |
| 27 | 03.03-219 | 기타의 甲殼類 및 軟體動物<br>( 살아있는것, 生鮮, 冷蔵, 冷凍 ) | 10           | -    |
| 28 | 04.07-110 | 성 계                                     | 10           | 7.5  |
| 29 | 05.15-800 | 動物性 生產品 ( 기타의 것 )                       | 2.5          | Free |
| 30 | 07.01-320 | 마늘 ( 生鮮, 冷蔵 )                           | 5            | -    |
| 31 | 07.01-920 | 송이버섯 ( 生鮮, 冷蔵 )                         | 5            | -    |
| 32 | 07.03-090 | 野菜 ( 一時的으로 貯藏한것 ) ( 기타의 것 )             | 15           | -    |
| 33 | 08.10-090 | 기타의 冷凍果實 ( 無糖의 것 )                      | 20           | -    |
| 34 | 12.07-972 | 白 蔘                                     | 5            | -    |

|    | CCCN No.  | 品 目                        | 現行關稅率 (1983) |      |
|----|-----------|----------------------------|--------------|------|
|    |           |                            | 實行 %         | 特惠 % |
| 35 | 12.07-990 | 植物 및 部分品 (香料, 醫療, 殺虫, 殺菌用) | 5            | Free |
| 36 | 12.08-331 | 투스                         | 15           | 10   |
| 37 | 12.08-332 | 미 역                        | 15           | -    |
| 38 | 14.05-121 | 海草類 (乾燥한 것)                | 5            | Free |
|    | 129       |                            |              |      |
| 39 | 14.05-590 | 植物性 生産品 (기타의 것)            | 10           |      |
| 40 | 16.04-249 | 魚調製品 (기타의 것)               | 12           | -    |
| 41 | 16.05-239 | 오징어調製品 (기타의 것)             | 15           | -    |
| 42 | 16.05-299 | 甲殼類 및 軟體動物調製品 (기타의 것)      | 12           | 9    |
| 43 | 27.10-179 | 潤滑油 (기타의 것)                | 12           | -    |
| 44 | 28.19-100 | 酸化亞鉛                       | 7.7          | Free |
| 45 | 28.25-090 | 酸化티타늄 (기타의 것)              | 6            | Free |
| 46 | 28.47-290 | 金屬酸鹽 (기타의 것)               | 5.3          | Free |
| 47 | 29.01-333 | 파라키사렌 (精製한 것)              | 2            | Free |
| 48 | 29.04-110 | Methyl alcohol             | 5.3          | Free |
| 49 | 29.06-110 | 石炭酸 (精製한 것)                | 6.6          | Free |
| 50 | 29.15-510 | 無水마레이酸                     | 6.6          | Free |
| 51 | 29.15-520 | 후타르酸 Dioctyl               | 6.6          | Free |
| 52 | 29.22-590 | Amine 官能化合物 (기타의 것)        | 7.1          | Free |

|    | CCCN No.         | 品 目                            | 現行關稅率 (1983) |       |
|----|------------------|--------------------------------|--------------|-------|
|    |                  |                                | 實 行 %        | 特 惠 % |
| 53 | 29.35-990        | 複素環式化合物 및 Nucleic 酸<br>(기타의 것) | 8            | Free  |
| 54 | 29.36-000        | Sulphonamides                  | 6.6          | Free  |
| 55 | 29.44-110        | 페니실린                           |              |       |
| 56 | 30.03-319        | 醫藥品 (小賣用) (기타의 것)              | 7.1          | Free  |
| 57 | 32.05-312        | 直接染料                           | 7.9          | Free  |
| 58 | 35.04-390        | 단백質系物質 및 同誘導體 (기타의<br>것)       | 10.4         | Free  |
| 59 | 35.07-200        | 酵素 (기타의 것)                     | 6.6          | Free  |
| 60 | 38.19-990        | 化學品 및 同調製品 (기타의 것)             | 6            | Free  |
| 61 | 39.01-126        | 에폭시 樹脂 (液狀, 페이스트狀)             | 6.6          | Free  |
| 62 | 39.01-622        | 폴리에스텔 (기타의 것)                  | 9            | Free  |
| 63 | 39.02-232        | 發泡性 폴리스치렌                      | 6.6          | Free  |
| 64 | 39.02-239        | 폴리스치렌 (기타의 것)                  | 14           | Free  |
| 65 | 39.02-241        | 鹽化비닐樹脂                         | 6.6          | Free  |
| 66 | 39.02-643<br>644 | 鹽化비닐 樹脂 (板狀, 타일狀)              | 7.5          | Free  |
| 67 | 39.07-411        | 運搬用과 包裝用的 容器 및 栓, 뚜<br>껍類      | 10.1         | Free  |
| 68 | 39.07-415        | 衣類 및 衣類附屬品                     | 10.1         | Free  |
| 69 | 39.07-419        | 第 39.01 號 ~ 2 號의 製品 (기타의 것)    | 10.1         | Free  |

|    | CCCN No   | 品 目   | 現行關稅率 (1983) |      |
|----|-----------|---|--------------|------|
|    |           |   | 實行 %         | 特惠 % |
| 70 | 40.11-213 | 고무製の 新品의 空氣타이어 및 同<br>케이스 (自轉車用)                    | 4.9          | Free |
| 71 | 40.11-221 | 고무製の 인너튜브 (自轉車用의 것)<br>(기타의 것)                      | 4.9          | Free |
| 72 | 42.02-211 | 革製핸드백 (기타의 것)                                       | 10           | 5    |
| 73 | 42.02-219 | 트렁크, 골프백, 工具케이스 (革製,<br>컴포지션레저製) (기타)               | 12.5         | 6.25 |
| 74 | 42.02-221 | 핸드백 (織物製) (기타의 것)                                   | 10           | 5    |
| 75 | 42.02-291 | 골프백, 工具케이스類 (기타의 것)                                 | 10           | 5    |
| 76 | 42.03-190 | 衣類 및 同附屬品 (革製の 것으로서<br>金屬, 寶石, 산호등 사용한것)<br>(기타의 것) | 20           | -    |
| 77 | 42.03-210 | 장갑 (革製の 것으로서 運動用)<br>(기타의 것)                        | 10           | -    |
| 78 | 42.03-230 | 衣類 (革製, 컴포지션레저製)                                    | 12.5         | -    |
| 79 | 43.03-011 | 毛皮製の 衣類・部分品・同附屬品<br>(羊 또는 山羊毛皮의 것)                  | 20           | -    |
| 80 | 43.03-012 | 毛皮製の 衣類・部分品・同附屬品<br>(토끼毛皮의 것)                       | 20           | -    |
| 81 | 43.03-019 | 毛皮製の 衣類・部分品・同附屬品<br>(기타의 것)                         | 20           | Free |

|    | CCCN No   | 品 目  | 現行關稅率 (1983) |      |
|----|-----------|--|--------------|------|
|    |           |  | 實行 %         | 特惠 % |
| 82 | 44.15-193 | 合板 ( 두께 3 ~ 6 mm ) ( 기타의 것 )                               | 20           | -    |
| 83 | 44.24-010 | 割箸   | 7.4          | Free |
| 84 | 44.27-220 | 照明具, 家具 ( 第 94 類 除外 ), 裝飾用 細工品, 身邊用 裝飾品 ( 木製의 것 )          | 4            | Free |
| 85 | 48.01-231 | 크라프트·라이너 ( 1 m <sup>2</sup> 의 重量이 30 g ~ 300 g 의 것 )       | 9.3          | Free |
| 86 | 48.01-239 | 包裝用紙 ( 1 m <sup>2</sup> 의 重量이 30 g ~ 300 g 의 것 ) ( 기타의 것 ) | 10.8         | Free |
| 87 | 50.02-221 | 生絲 ( 21 中 2 A 格, 기타의 것 )                                   | 7.5          | -    |
| 88 | 50.02-222 | 生絲 ( 27 中 및 28 中의 것 )                                      | 7.5          | -    |
| 89 | 50.04-000 | 絹 絲  | 7.5          | -    |
| 90 | 50.09-141 | 絹織物 ( 幅 45 cm 以下의 絞織의 것 ) ( 기타의 것 )                        | 10           | -    |
| 91 | 50.09-142 | 絹織物 ( 幅 45 cm 以下의 絞加工한 것 )                                 | 10           | -    |
| 92 | 50.09-149 | 絹織物 ( 幅 45 cm 以下 ) ( 기타의 것 )                               | 10           | -    |
| 93 | 50.09-169 | 絹織物 ( 幅 45 cm 넘는 기타의 것 )                                   | 10           | -    |
| 94 | 51.04-131 | 合纖長纖維織物 ( 폴리에스테일 纖維의 重量이 85 % 以上, 染色한 것 )                  | 8            | 4    |
| 95 | 51.04-133 | 合纖長纖維織物 ( 폴리에스테일 纖維의 重量이 85 % 以上의 기타의 것 )                  | 8            | 4    |



|     | CCCN No.                              | 品 目                                    | 現行關稅率 (1983)                        |      |
|-----|---------------------------------------|--|-------------------------------------|------|
|     |                                       |  | 實行 %                                | 特惠 % |
| 96  | 51.04-144                             | 合纖長纖維織物 ( 나이론의 重量이 85 % 以上の 기타의 것 )    | 10                                  | 5    |
| 97  | 53.06-110<br>211<br>219               | 紡毛 메리야스絲                               | 4                                   | Free |
| 98  | 53.06-220                             | 紡毛絲 ( 기타의 것 )                          | 4                                   | Free |
| 99  | 54.03-010                             | 亞麻絲                                    | 12                                  | Free |
| 100 | 55.05-130<br>221<br>231<br>241<br>251 | 綿絲類                                    | 2.8 ~<br>8.4                        | Free |
| 101 | 55.09-416<br>419                      | 綿織物 ( 綿重量 85 % 以上の 朱子 및 프린트한 것 )       | 5.6% 또는<br>4.4% +<br>1.52圓中<br>은 稅率 | -    |
| 102 | 55.09-432<br>443                      | 綿織物 ( 프린트 및 포프린 )                      | //                                  | -    |
| 103 | 56.01-110                             | 나이론短纖維                                 | 10                                  | Free |
| 104 | 56.05-113                             | 合成纖維의 紡績絲 ( 폴리아크로니트<br>릴 85 % 以上 )     | 10                                  | Free |
| 105 | 56.05-119                             | 合纖紡績絲 ( 폴리프로필렌, 폴리鹽化<br>비나리덴 85 % 以上 ) | 10                                  | Free |
| 106 | 56.07-143                             | 合纖短纖維織物 ( 폴리에스텐 50 %<br>~ 85 % )       | 10                                  | 5    |
| 107 | 58.03-090                             | 고브랑織物, 프란다스織物 ( 기타 )                   | 11.1                                | Free |

|     | CCCN No.         | 品 目                                   | 現行關稅率 (1983) |      |
|-----|------------------|---------------------------------------|--------------|------|
|     |                  |                                       | 實行 %         | 特惠 % |
| 108 | 58.04-211<br>219 | 파일織物 (綿製)                             | 5.6          | Free |
| 109 | 58.05-090        | 細幅織物 (기타의 것)                          | 8            | 4    |
| 110 | 58.10-030        | 자수布 (合成纖維製)                           | 22.4         | 11.2 |
| 111 | 58.10-090        | 자수布 (Motif 포함한 기타의 것)                 | 22.4         | 11.2 |
| 112 | 59.08-000        | 紡織用 纖維의 織物類 (셀룰로즈 및<br>人造프라스틱 塗布한 것)  | 5.5          | Free |
| 113 | 60.02-019        | 장갑 (編製) (기타의 것)                       | 8            | 4    |
| 114 | 60.02-021        | 장갑 (綿製)                               | 11.2         | 5.6  |
| 115 | 60.02-029        | 장갑 (기타의 것)                            | 8            | 4    |
| 116 | 60.03-120        | 양말類 (合纖製)                             | 10           | 5    |
| 117 | 60.03-210        | 양말類 (綿製)                              | 11.2         | 5.6  |
| 118 | 60.04-131        | 파자마등 잠옷 (자수 및 레이스 使用<br>한 것) (綿製)     | 11.2         | 5.6  |
| 119 | 60.04-192        | 기타의 內衣 (메리야스 編製)<br>(綿製로서 자수, 레이스한 것) | 11.2         | 5.6  |
| 120 | 60.03-193        | 기타의 內衣 (合纖製의 男子用)                     | 11.2         | 5.6  |
| 121 | 60.04-194        | 기타의 內衣 (合纖製의 女子 및 乳<br>幼兒用)           | 11.2         | 5.6  |
| 122 | 60.04-221        | 男子用的 셔츠 (메리야스製)<br>(綿製의 기타의 것)        | 11.2         | 5.6  |

|     | CCCN No.  | 品 目                                 | 現行關稅率 (1983) |      |
|-----|-----------|-------------------------------------|--------------|------|
|     |           |                                     | 實行 %         | 特惠 % |
| 123 | 60.04-293 | 기 타의 男子用 內衣 (綿製)                    | 11.2         | 5.6  |
| 124 | 60.04-294 | 기 타의 女子・幼兒用 內衣 (綿製)                 | 11.2         | 5.6  |
| 125 | 60.05-111 | 웨 터類 (羊毛製)                          | 16.8         | 8.4  |
| 126 | 60.05-112 | 웨 터類 (綿製)                           | 16.8         | 8.4  |
| 127 | 60.05-113 | 웨 터類 (合纖製)                          | 16.8         | 8.4  |
| 128 | 60.05-142 | 바 지, 반바 지類 (合纖製)                    | 16.8         | 8.4  |
| 129 | 60.05-149 | 바 지, 반바 지類 (기 타의 것)                 | 16.8         | 8.4  |
| 130 | 60.05-152 | 아우 터・샤쓰 (綿製)                        | 16.8         | 8.4  |
| 131 | 60.05-153 | 아우 터・샤쓰 (合纖製)                       | 16.8         | 8.4  |
| 132 | 60.05-161 | 기 타의 外衣類 (羊毛製)                      | 16.8         | 8.4  |
| 133 | 60.05-162 | 기 타의 外衣類 (綿製)                       | 16.8         | 8.4  |
| 134 | 60.05-163 | 기 타의 外衣類 (合成纖維製)                    | 16.8         | 8.4  |
| 135 | 60.05-211 | 웨 터類 (羊毛製의 기 타의 것)                  | 14           | 7    |
| 136 | 60.05-213 | 웨 터類 (合成纖維製의 기 타의 것)                | 14           | 7    |
| 137 | 60.05-252 | 아우 터・셔츠 (綿製의 기 타의 것)                | 14           | 7    |
| 138 | 60.05-253 | 아우 터・셔츠 (合纖製의 기 타의 것)               | 14           | 7    |
| 139 | 60.05-261 | 기 타의 外衣類 (메 리야스編製)<br>(羊毛製의 기 타의 것) | 14           | 7    |
| 140 | 60.05-263 | 기 타의 外衣類 (메 리야스編製)<br>(合纖製의 기 타의 것) | 14           | 7    |

|     | CCCN No   | 品 目  | 現行關稅率 (1983) |      |
|-----|-----------|--|--------------|------|
|     |           |  | 實行 %         | 特惠 % |
| 141 | 61.01-219 | 男子用外衣類 ( 第 59.08, 59.09, 59.12 號 해당 織物로 製造한것 ) | 14           | 7    |
| 142 | 61.01-222 | 男子用의 오바코트 ( 人造纖維製의 것 )                         | 14           | 7    |
| 143 | 61.01-231 | 男子用의 슈츠 ( 羊毛製 )                                | 14           | 7    |
| 144 | 61.01-232 | 男子用의 슈츠 ( 綿製 )                                 | 14           | 7    |
| 145 | 61.01-233 | 男子用의 슈츠 ( 人造纖維製의 것 )                           | 14           | 7    |
| 146 | 61.01-243 | 男子用의 바지, 반바지 ( 人造纖維製 )                         | 14           | 7    |
| 147 | 61.01-251 | 男子用의 자켓트類 ( 羊毛製 )                              | 14           | 7    |
| 148 | 61.01-252 | 男子用의 자켓트類 ( 綿製 )                               | 14           | 7    |
| 149 | 61.01-253 | 男子用의 자켓트類 ( 人造纖維製 )                            | 14           | 7    |
| 150 | 61.01-292 | 男子用의 外衣類 ( 綿製의 기타의 것 )                         | 14           | 7    |
| 151 | 61.01-293 | 男子用의 外衣類                                       | 14           | 7    |
| 152 | 61.02-213 | 女子用 및 幼兒用오바코트, 자켓트 ( 人造纖維製 ) ( 자수, 레이스製 )      | 14           | 7    |
| 153 | 61.02-232 | 블라우스 ( 人造纖維 ) ( 자수, 레이스製 )                     | 14           | 7    |
| 154 | 61.02-236 | 女子用・乳幼兒用外衣類 ( 人造纖維製 ) ( 자수, 레이스製 )             | 14           | 7    |
| 155 | 61.02-249 | 女子用・乳幼兒用外衣類 ( 第 59.09, 59.12 號 해당 織物製의 기타의 것 ) | 14           | 7    |

|     | CCCN No.  | 品 目                               | 現行關稅率 (1983) |      |
|-----|-----------|-----------------------------------|--------------|------|
|     |           |                                   | 實行 %         | 特惠 % |
| 156 | 61.02-252 | 女子用・幼兒用의 오바코트 및 자켓트 (綿製의 기타의 것)   | 14           | 7    |
| 157 | 61.02-253 | 女子用・幼兒用 오바코트 및 자켓트 (人造纖維製의 기타의 것) | 14           | 7    |
| 158 | 61.02-272 | 블라우스 (人造纖維製의 기타의 것)               | 14           | 7    |
| 159 | 61.02-276 | 女子用・幼兒用의 바지 및 반바지 (人造纖維製의 기타의 것)  | 14           | 7    |
| 160 | 61.02-283 | 女子用・乳兒用外衣類 (人造纖維製의 기타의 것)         | 14           | 7    |
| 161 | 61.03-110 | 男子用 셔츠 (綿製)                       | 11.2         | 5.6  |
| 162 | 61.03-120 | 男子用의 셔츠 (合成纖維製)                   | 11.2         | 5.6  |
| 163 | 61.03-190 | 男子用의 셔츠 (기타의 것)                   | 11.2         | 5.6  |
| 164 | 61.05-221 | 손수건 (綿製의 기타의 것)                   | 8.4          | 4.2  |
| 165 | 61.09-110 | 브래지어 (자수, 레이스製)                   | 11.2         | Free |
| 166 | 61.09-190 | 콜세트類 (자수, 레이스製의 기타의 것)            | 11.2         | Free |
| 167 | 61.09-210 | 브래지어 (기타의 것)                      | 10.3         | Free |
| 168 | 61.09-290 | 콜세트類 (기타의 것)                      | 10.3         | Free |
| 169 | 61.11-219 | 衣類附屬品 (자수, 레이스製의 기타의 것)           | 11.2         | Free |

|     | CCCN No.  | 品 目                                      | 現行關稅率 (1983) |      |
|-----|-----------|--|--------------|------|
|     |           |  | 實行 %         | 特惠 % |
| 170 | 61.11-222 | 衣類用벨트 (기타의 것)                            | 11.2         | Free |
| 171 | 61.11-229 | 衣類附屬品 (기타의 것)                            | 11.2         | Free |
| 172 | 62.05-090 | 紡織用纖維의 기타製品 (기타의 것)                      | 7.4          | Free |
| 173 | 64.01-021 | 長靴 (본바닥이 고무製 또는 人造프라스틱製로 윗部分이 고무製의 것)    | 10           | -    |
| 174 | 64.01-029 | 長靴 (본바닥 및 위를 고무 또는 人造프라스틱으로 만든것) (기타의 것) | 10           | -    |
| 175 | 64.01-039 | 短靴 (본바닥 및 위를 고무 또는 人造프라스틱으로 만든것) (기타의 것) | 10           | -    |
| 176 | 64.02-222 | 캠버스·슈즈 (본바닥이 콤포지션레저 고무製, 人造프라스틱製의 것)     | 10           | 5    |
| 177 | 64.02-229 | 신발 (본바닥이 콤포지션革製, 고무 또는 人造프라스틱製) (기타의 것)  | 10           | 5    |
| 178 | 64.05-100 | 신발部分品 (革製의 것 및 毛皮使用한 것)                  | 10           | Free |
| 179 | 64.05-290 | 신발部分品 (기타의 것)                            | 5.4          | Free |
| 180 | 65.05-010 | 編物製의 帽子 (헤어·넛트除外)                        | 9.2          | Free |
| 181 | 65.05-020 | 레이스, felt 기타의 織物類로 만든 帽子 (헤어·넛트除外)       | 9.2          | Free |
| 182 | 66.01-091 | 우산 (組立式의 것)                              | 8            | Free |

|     | CCCN No.  | 品 目                                  | 現行關稅率(1983) |      |
|-----|-----------|--------------------------------------|-------------|------|
|     |           |                                      | 實行%         | 特惠%  |
| 183 | 66.02-099 | 우산 (기타의 것)                           | 8           | Free |
| 184 | 67.04-090 | 가발, 수염類 (기타의 것)                      | 6           | Free |
| 185 | 69.07-000 | 鋪裝用品 및 爐用, 壁用 타일                     | 3.5         | Free |
| 186 | 70.03-200 | 유리의 球 및 棒, 管 (기타의 것)                 | 3.5         | Free |
| 187 | 70.06-091 | 연마板 유리 (無色) (두께 4 mm 以下の 것)          | 7.4         | Free |
| 188 | 70.10-000 | 유리製의 병, 이와 유사한 容器 (輸送用・包裝用) 및 유리製 栓類 | 5.3         | Free |
| 189 | 71.02-229 | 貴石 및 半貴石 (製品除外) (기타의 것)              | 3.5         | Free |
| 190 | 71.12-010 | 身邊細貨類 및 同部分品 (銀製, 白金製)               | 11.4        | Free |
| 191 | 71.16-212 | 목걸이, 브로치, 펜 단트 (卑金屬製) (기타의 것)        | 8.3         | Free |
| 192 | 73.01-190 | 銑鐵 (기타의 것)                           | 3.8         | Free |
| 193 | 73.07-230 | 鐵鋼의 Billets                          | 4.6         | Free |
| 194 | 73.08-000 | 鐵鋼의 코일 (再壓延用의 것)                     | 4.9         | Free |
| 195 | 73.10-220 | Wire rod (기타의 것)                     | 4.9         | Free |
| 196 | 73.13-211 | 鐵鋼의 板 (壓延한 것) (두께 3 mm 以下の 것)        | 4.9         | Free |

|     | CCCN No.  | 品 目                             | 現行關稅率 (1983) |      |
|-----|-----------|---------------------------------|--------------|------|
|     |           |                                 | 實行 %         | 特惠 % |
| 197 | 73.13-221 | 鐵鋼의 板 (壓延한것) ( 4.75 mm ~ 6 mm ) | 4.9          | Free |
| 198 | 73.13-222 | 鐵鋼의 板 (壓延한것) ( 3 mm ~ 4.75 mm ) | 4.9          | Free |
| 199 | 73.13-231 | 鐵鋼의 板 (壓延한것) ( 6 mm 以上 )        | 4.9          | Free |
| 200 | 73.14-100 | 鐵鋼의 線 ( Clad 및 도금한것 )           | 5.3          | Free |
| 201 | 73.20-090 | 鐵鋼製의 管용이음쇠                      | 5.3          | Free |
| 202 | 73.40-990 | 鐵鋼製品 (기타의 것)                    | 5.9          | Free |
| 203 | 74.04-200 | 黃銅 또는 靑銅의 板 및 帶                 | 8.3          | Free |
| 204 | 74.18-210 | 銅製의 家庭用品 및 同部分品 (기타)            | 6.2          | Free |
| 205 | 74.19-219 | 銅製品 (貴金屬도금한 것) (기타의 것)          | 6.6          | Free |
| 206 | 74.19-222 | 銅製의 체인 및 체인部分品 (기타)             | 6.6          | Free |
| 207 | 76.15-100 | 家庭用品 및 同部分品 (알루미늄製)             | 6.2          | Free |
| 208 | 84.48-200 | 旋盤 (第 84.45 號해당)의 部分品 (기타의 것)   | 4.9          | Free |
| 209 | 84.55-221 | 電子式計算機械 電子式自動데이터處理機 및 同部分品      | 4.9          | Free |
| 210 | 84.61-031 | 鐵鋼 또는 銅製의 部分品 (貴金屬使用 않은것)       | 4.5          | Free |
| 211 | 84.21-012 | 噴射用, 撒布用 또는 噴霧用的 機器 (기타의 것)     | 4.9          | Free |



|     | CCCN No.  | 品 目                                      | 現行關稅率(1983) |      |
|-----|-----------|--|-------------|------|
|     |           |  | 實行 %        | 特惠 % |
| 212 | 84.34-200 | 活字, 紙型(製版用으로 調製한것 포함)                    | 4.9         | Free |
| 213 | 84.41-124 | Overeding, Sewing 미싱                     | 6           | -    |
| 214 | 85.13-210 | 有線電信機器의 部分品                              | 3.6         | Free |
| 215 | 85.15-510 | 無線通信機器, 라디오放送用, T.V用 送受信機器, T.V 카메라의 部分品 | 4.2         | Free |
| 216 | 85.17-000 | 電氣式的 벨, 사이렌, 表示盤, 盜難 警報器, 火災警報器          | 4.9         | Free |
| 217 | 85.18-021 | 蓄電器(可變式的 것)(기타)                          | 4.9         | Free |
| 218 | 85.18-029 | 蓄電器(기타의 것)                               | 4.9         | Free |
| 219 | 85.19-250 | 電氣回路의 開閉用機器 및 同部分 品(기타의 것)               | 4.5         | Free |
| 220 | 85.19-270 | 電氣回路의 接續用機器 및 同部分 品                      | 4.5         | Free |
| 221 | 85.19-291 | 可變式抵抗器                                   | 4.5         | Free |
| 222 | 85.20-190 | 필라멘트電球(기타의 것)                            | 4.9         | Free |
| 223 | 85.21-292 | 실리콘다이오드(기타의 것)                           | 4.2         | Free |
| 224 | 85.21-293 | 發光다이오드(기타의 것)                            | 7.6         | Free |
| 225 | 85.21-295 | 실리콘트랜지스터(기타의 것)                          | 4.2         | Free |
| 226 | 85.21-330 | 光電池                                      | 4.3         | Free |

|     | CCCN No.  | 品 目  | 現行關稅率 (1983) |      |
|-----|-----------|--|--------------|------|
|     |           |  | 實行 %         | 特惠 % |
| 227 | 85.21-340 | 壓電氣結晶素子  | 4.9          | Free |
| 228 | 85.23-320 | 電氣絶緣한 線, 케이블, 棒, 帶 (人<br>造프라스틱으로 被覆한 것) (기타)         | 8.1          | Free |
| 229 | 90.11-010 | 顯微鏡 및 回折機器 (電子式 또는<br>陽子式)                           | 4.9          | Free |
| 230 | 90.17-990 | 醫療用機器 및 同部分品・附屬品<br>(기타의 것)                          | 4.9          | Free |
| 231 | 91.06-000 | 타임스위치 (時計用무브먼트 또는<br>同期電動機 있는것)                      | 6            | Free |
| 232 | 92.12-321 | 錄音用테이프 (기타의 것)                                       | 4.2          | Free |
| 233 | 92.12-329 | 記錄用테이프, 線, 시트 (기타)                                   | 3.6          | Free |
| 234 | 92.13-200 | 錄音機, 音聲再生機, T.V의 映像<br>또는 音聲의 磁氣式的 記錄機 및<br>部分品 (기타) | 4.9          | Free |
| 235 | 94.01-320 | 의자部分品 (기타의 것)  | 6            | Free |
| 236 | 94.03-311 | 木製家具 (기타의 것)   | 6            | Free |
| 237 | 94.03-312 | 木製家具의 部分品 (기타의 것)                                    | 6            | Free |
| 238 | 94.04-100 | 寢具類  | 8.1          | Free |
| 239 | 97.03-010 | 模型 및 완구 (紡織用 纖維의 織<br>物製의 것)                         | 6.6          | 3.3  |
| 240 | 97.03-090 | 娛樂用的 模型 및 玩具 및 同部<br>分品과 附屬品 (기타의 것)                 | 5.6          | 2.8  |

|     | CCCN No.  | 品 目                   | 現行關稅率(1983) |      |
|-----|-----------|-----------------------|-------------|------|
|     |           |                       | 實行 %        | 特惠 % |
| 241 | 97.06-391 | 運動用볼 ( 기타의 것 )        | 6           | Free |
| 242 | 97.06-399 | 運動用具 및 同部分品 ( 기타 )    | 6           | Free |
| 243 | 97.07-090 | 낚시바늘등 기타의 낚시用具 및 同部分品 | 6           | Free |

#### 4) 對日輸出上 隘路의 改善要望事項

| 規制形態      | 品 目      | 規 制 現 況  | 改 善 要 望  |
|-----------|----------|--|--|
| 差別待遇      | 鐵 鋼 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公共機關에서 發注하는 日本政府의 品質證明書を 添附하는 것이 認定되어 야만 許可</li> <li>○ JIS規格을 獲得하였더라 도 各省에서 自體方針에 依據 自國產만 使用할 것을 强要</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自國產만 使用하는 것을 奨勵하고 市場開放</li> </ul>                       |
| 까다로운 規格承認 | 電子・電氣 製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電子・電氣製品을 輸入하려면 型式承認을  받아야 하나, 이미 받은 Maker의 製品이라도 輸入商이 다를 경우(선풍기의 경우) 또는 사소한 製品內容의 差異가 있을 경우에도 再次 型式承認을  받아야 함.</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속한 形式承認要請 및 사소한 品目內容의 差異가 있을 경우에는 別途 檢査 면제</li> </ul> |
| 까다로운 通關手續 | 레인코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纖維含有量에 따라 關稅率이 달리 適用됨으로 纖維含有量에 對한 檢査</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纖維含有量有無基準 適用을 緩和</li> </ul>                             |

| 規制形態                      | 品 目   | 規 制 現 況  | 改 善 要 望   |
|---------------------------|-------|--|---|
|                           |       | 가 極히 까다롭고 長期<br>間 所要되어 通關이 遲<br>延됨   |   |
|                           | 醫療器機  | ○ 의료기기의 샘플通關時<br>厚生省 確認藥師 또는<br>醫師免許所持者が 許可하<br>여야만 됨으로 本去來<br>以前에 規制되는 事例가<br>있음. | ○ 주사기등 간<br>단한 의료기<br>기는 我國輸<br>出檢査소의<br>確認만으로<br>許容        |
|                           | 쓰 무 기 | ○ 원단 끝에 자수로 韓國<br>表示를 해야만 通關許容<br>※ 生産工程의 번거러움과<br>製織能率低下를 通한<br>間接的 規制手段          | ○ 원단 한쪽<br>끝에만 表示<br>토록 要望                                  |
| 不利한<br>品目分類<br>및 關稅<br>評價 | 스포츠靴  | ○ 스포츠靴의 경우 가죽이<br>Upper 部分에 一部分 포<br>함되어있어도 革靴로 分類,<br>IQ品目에 依한 數量規制               | ○ 美・EC 등에서<br>는 스포츠靴<br>로 分類하고<br>있음을 감안<br>IQ에서 適用<br>排除要望 |

| 規制形態      | 品 目     | 規 制 現 況   | 改 善 要 望                             |
|-----------|---------|---|-------------------------------------|
|           | 인삼類     | ○ 인삼類를 健康食品으로 認定치 않고 藥品類로 認定 通關이 거부되는 事例가 있음.   | ○ 인삼製品은 日本에서도 저명한 食品 이므로 健康 食品으로 認定 |
|           | 가죽製品    | ○ 가죽製品의 갈라를 Fur 로한 경우 가죽製品稅率 14.6 %보다 높은 20 % 關稅 부과   | ○ Fur 가 全體 製品中 比重 에 따라 關 稅賦課 要望     |
| 不必要한 書類徵求 | 낙시대 部品等 | ○ 日本產部品을 使用한 낙시대輸出時 原資材輸入免狀의 要請( GSP 品目으로 GSP 書類에 日本產原資材의 使用이 明示되어 있음)<br>○ 日本產 Colar Guide 및 Casting Rod Handle이 附着된 것만 通關許容 | ○ GSP 申請 樣式으로 代替<br><br>○ 通關의 間素化   |

## 交易擴大均衡提案에 대한 日本側答辯(1)

丸 紅 (株)  
專務取締役 西尾 知

丸紅(株)의 西尾입니다.

貿易擴大均衡에 관한 三益樂器製造(株) 李孝益社長님의 提案을  
흥미깊게 敬청했습니다.

방금 日綿(株)의 野村專務로부터 日本의 市場開放의 全般的인  
問題에 관해서, 答辯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韓國側의 提案가운데서,  
關稅와 特惠關稅에 關해서 答辯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關稅에 관해서 基本的으로 理解를 바라고 싶은 點은, 東京  
라운드 引下完了時點(1987年)에서 日本의 平均關稅率은 3%가 되  
어, EC의 5%, 美國의 4%와 比較해보더라도 가장 낮으며, 어느  
意味에서는 關稅率引下の 限度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  
습니다.

이미 아시고 계실것으로 생각합니다만, 日本은 一連의 市場開放措  
置의 一環으로서 ①1982年度에는 東京라운드 合意時에 83, 84兩  
年度에 實施기로 되어 있었던 1653品目の 關稅率引下를 2年 앞  
당겨서 實施하였고, ②다음 83年度에는, 東京라운드와는 別途로 111  
個品目の 關稅撤廢, 212個品目の 關稅率引下를 自主적으로 實施했읍  
니다. 이에 더하여 ③今年 4月부터는, 44個品目の 自主적인 關稅  
撤廢 또는 引下를 實施함과 同時에, 東京라운드에서의 關稅率引下  
(農產物除外) 合意에 따라 來년에 實施기로 되어 있었던 關稅率

引下를 1年 앞당겨서 實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一連의 關稅引下措置는, 韓國에게도 어느 程度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開發途上國의 關心品目에 重點을 두는 市場開放이라는 點은, 아까의 野村씨와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理解가 가며 韓國의 關心品目(특히 纖維製品 等)이 반드시 충분히 關稅引下의 惠澤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點도 알고 있습니다.

특히, 關心이 깊은 것은, 特惠關稅制度問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먼저, 日本의 特惠限度를 最小限 總輸入額의 10%水準까지 해달라는 말씀입니다만, 1982年度の 일본의 總輸入에 차지하는 水準은 4%強으로서 主要先進國에 비해 보아도 손색이 없으며, 이제 까지도 日本은 特惠關稅制度의 擴充을 推進해 왔습니다만, 今年 즉 1984年度부터는 特惠關稅실링 規模가 前年度에 비해 55% 擴大되었기 때문에, 供與水準도 어느 程度 上昇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今年度부터 「1/2 限度措置」가 「1/3 限度措置」로 改定되어, 從前부터의 韓國側 期待에 도움을 주지 못한 點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改定은, 李社長님의 發言가운데도 있었듯이, 特惠메리트의 均霑化를 期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실링規模가 55% 擴大된데다가, 「1/3 限度」水準이 1983年度の 실링規模의 「1/2」水準을 下廻하지 않도록 하는 措置가 취해져 있기때문에, 韓國의 特惠受益은 前年度以上으로 有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3 限度措置」가 모든 品目に 적용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同措置가 적용되는



것 가운데에도, 그 상당수는 彈力的인 運用이 이루어지고 있기때문에, 이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의 說明으로, 우리나라의 關稅 및 特惠關稅制度에 관해서 理解를 해주신다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韓國의 關心品目 等은 日韓貿易擴大均衡委員會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韓國側 提案事項은 우리들의 關心事項이기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정부에 요청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韓國은 最近의 눈부신 經濟發展에 따라 產業構造도 서서히 變化하여, 그야말로 NICS의 中心的인 地位를 構築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輸出品目도 纖維와 雜貨등으로부터 重化學工業, 機械電子製品等으로 그 重點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狀況下에서, 長期的인 觀點에서 關稅等の 問題를 把握하여, 國際的인 分業下에서의 韓國의 立場도 考慮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 交易擴大均衡提案에 대한 日本側答辯(2)

NICHIMEN (株)

専務取締役 野村 喜久雄

日綿(株)의 野村입니다.

방금 三益樂器製造(株) 李孝益社長님의 提案가운데, 開發途上國을 中心으로 하는 소위 第4次 市場開放問題 및 輸入檢査 等 非關稅 障壁問題에 對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日本の 市場開放에 관해서는 午前中에 日商岩井(株)의 植田社長 으로부터, 1960年代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推移에 관한 說明 이 있었으며, 방금 李社長님의 提案속에도 “日本の 市場開放이 歐美에 比較해서 손색이 없다”라고 하는 理解깊은 發言이 계셨기 때문에 市場開放의 具體적인 措置에 대한 說明은 省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日本の 市場開放措置는 조금도 差別的인 것이 아니고, 全世界에 대해 똑같이 開放된 措置라는 點은 이미 알고 계시는 바 와 같습니다. 이 結果로 招來되는 開發途上國의 相對的 不利益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特惠制度의 活用이 가장 有効하다고 생각합니다.

關稅 및 特惠에 관해서는 나중에 얘기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여하간에 開發途上國을 中心으로 하는 第4次 市場開放措置를 강구 해달라는 提案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政府當局에 傳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輸入檢査를 비롯한 非關稅障壁에 관해서 答辯드리겠습니다.

이미 아시고 계신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昨年 5 月 基準 認證 制度에 關한 17 個 法을 一括改定, 同年 8 月부터 施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①外國 메이커로부터의 直接申請 및 證明書取得이 可能하게 되었고, 이와함께 ②檢査方式에 있어서도 國內 메이커에 대한 取扱과 外國메이커에 대한 取扱이 實質적으로 同等하게 되었습니다.

즉, 規格 및 基準의 國際化, 外國檢査데이터의 導入 등이 實施되어서, 輸入檢査節次가 大幅적으로 簡略化 되었으므로, 韓國側에서 指摘하신 點은 이미 相當히 實現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運用을 지켜보아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具體적으로 支障을 招來하는 事例가 생겼을 경우에는 市場開放問題 苦情處理推進本部, 通稱 OTO(OFFICE OF TRADE OMBUDSMAN)라고 하는 機關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活用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OTO에 대한 크레임申請은 代理人이나 匿名으로도 可能하다는 點을 附言해 둡니다.

## 交易擴大均衡提案에 대한 日本側 答辯(3)

東京商工會議所中小企業委員會  
委員長 渡 邊 禮 之

日・韓中堅・中小企業協力專門委員會의 渡邊입니다.

방금 李社長님의 提案의 마지막부분인 大韓購買使節團의 派遣, 즉 中堅・中小企業을 中心으로한 日本의 對韓購買使節團의 派遣에 對해서는 제가 午前에 韓・日中堅・中小企業協力專門委員會 合同會議 經過報告에서 말씀드린대로 去年에 이어 日本의 地方商工會議所 等に 折衡해 나가려고 합니다.

또하나의 方法으로서 韓國產品의 日本各地에서의 展示會開催가 보다 效果的이라고 생각되므로 그 실시에 관해서도 協力해 나가고 싶습니다.

더우기 금년 9월 서울國際貿易博覽會를 念頭に 두고서 계속적인 努力을 하고 싶습니다.

以上입니다.

## 交易擴大均衡提案에 대한 日本側 答辯(4)

日 本 貿 易 振 興 會  
理 事 長 赤 澤 璋 一

저는 두가지에 대해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지금 JETRO로서도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輸入促進을 위해 여러가지로 解諒해서 積極的으로 해나가고 있음  
니다.

그 하나의 方法으로서 저는 조금전 商工會議所側으로부터도 말씀  
이 계셨습니다만, LOCAL TO LOCAL 이라는것을 좀 더 積極的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調査에 따르면, 全世界에서 日本의 都道府縣과 Sister City 혹  
은 Sister State 關係를 맺고 있는곳은 400수십개로서 아마 韓  
國의 都市와 日本의 都市 사이에도 그러한 關係가 몇개는 있으  
리라 여겨집니다.

그런 Sister City 關係라는것이 過去에는 主로 文化交流나 親善  
交流였지만 向後에는 過去의 親善關係를 토대로 좀 더 相互間의  
地域產品을 거래시키는 그러한 分野로 主力하고 싶으며 現實的으  
로 그것을 어떤 方法으로 하면 좋을까 하는것입니다.

일전에도 官界의 都・道・府・縣의 혹은 都市의 분들을 모시고,  
姉妹都市關係 輸入促進세미나를 JETRO 本部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모이셨던 100명남짓의 地方長들도 이 세미나에는 대단한 熱意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같은 것도 있었으므로 韓國側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에  
꼭 協力을 부탁드립니다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금년 가을에 열리는 SITRA 84 입니다.

日本側의 出展에 對해서는 JETRO가 現在 綜合하고 있습니다만,  
最近 저희들이 받은 報告에 의하면 작년보다도 더욱 열심히 應  
募者가 많다고 합니다.

꼭, SITRA 84가 成功하길 바라며, 日本側에서도 可能限 協力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조금전에 SITRA 開催에 맞추어, 日本의 地方單位 中小企業을 包  
含하는 中小企業을 中心으로한 밋선을 派遣해 달라는 希望이 있  
었습니다.

약 4년전에 저도 밋선의 부단장으로서 참석하여 2주간정도 버  
스를 타고 韓國全域을 누빈 經驗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準備不足  
이라는 점이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상당한 성과를 올렸다고 생  
각합니다. 그러므로, 상당한 期間을 두고 충분한 事前準備를 해나  
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비즈니스로서, 단지 調査를 한다든가 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韓國側의 여망에 부응해서 어떤 형태로 準備하는  
게 좋을까, 그리고 準備의 主體를 어디로 할것인가 하는것을 생  
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4년전 밋선에서는 政府派遣이라는 形態였지만, 이번 밋선의 경우  
도 通産省이 主體가 되지 않으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힘들지않

나 여겨 집니다.

要望事項에 관해서는 충분히 말씀들었기 때문에 官界와 충분히  
상의해서 積極的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在韓 日本商社등의 스테이 터스 및 課稅 問題에 대하여 (提案)

伊藤忠商事株式會社  
取締役 副社長 鐵屋一夫

伊藤忠商事의 鐵屋입니다.

昨年 韓日貿易은 往復 94 億弗, 前年對比 15.7 % 增으로 1979 年에 이어 史上 두번째 規模를 記錄했습니다.

貴國과의 貿易에 關係하는 人으로서 대단히 반가운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兩國貿易의 增進과 關聯하여 在韓日本商社등의 스테이 터스 및 課稅問題등에 대하여 日本側의 要望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입니다.

두문제 모두 이 會議에서 매번 協力과 理解를 부탁드립니다. 오랜 懸案임은 여러분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 1. 스테이 터스 問題에 대하여

1981 年 7 月 貴國의 貿易去來法 施行令 改正으로 在韓外國企業도 부분적인 輸出入業務를 認定받게 되었습니다.

이는 큰 進展이며, 朴泰俊會長을 비롯한 韓國側 委員여러분의 支援과 배려의 結果로 日本側일동은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①輸入業에 關하여는 855 業種品目中, 8 業種品目밖에 認定되지 않고 있는것.



② 自社내지 持株比率 30 % 이상의 系列會社製品에 限定하고 있는 것.

③ 在庫販賣여야 하는 점.

④ 輸出業만의 申請은 안되는 점 등 各種 制限이 여전히 따르고 있어 自由로운 輸出入業이 認定되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貴國의 綜合商社는 日本에서 저희들과 다른 없는 自由로운 營業活動이 認定되고 있습니다.

또 歐美諸國뿐 아니라 아시아 主要國에서도 外國企業의 輸出入業務가 認定되고 있음이 實情입니다.

저희 在韓日本商社가 오퍼商이라는 限定된 資格으로 日本과의 貿易뿐 아니라 第3國 輸出에도 可能的 限 努力을 거듭하고 있음은 理解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日本商社의 活動力, 네트워크를 한층 더 적극적으로 活用할 수 있는 方策을 檢討해 주신다면 貴國企業과의 協力에 의한 貴國輸出擴大에 반드시 公헌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各種制限의 완화, 탄력적인 運用이 될수 있도록 계속해서 韓國側委員 여러분의 理解와 格別한 協力を 부탁드립니다.

## 2. 課稅問題에 대하여

在韓日本商社의 出資關係에 있는 關聯會社간의 去來에 適用되는 標準手數料, 소위 認定口錢率이 크게 問題가 되어 있음은 여

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本件에 대해서도 '80年1月 및 '82年4月 認定口錢率 適用의 輕減措置가 취해져 약간이긴 하지만 改善된 것은 韓國側委員 여러분의 支援의 덕택으로 깊게 감사의 뜻을 올립니다.

저희 들로서도 貴國의 法律에 의해 支店을 開設하여 오피商으로 活動하고 있는 이상 公正하고도 合理的인 課稅에 대하여 하등의 異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在韓支店이 실제로 받는 口錢額과는 關係가 없는, 稅務當局이 獨自로 認定하는 口錢率에 의해 口錢所得이 算定되고 있어 이는 不合理라고 말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日本商社の 口錢이 상당히 低額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도 認定口錢率로 課稅되고 있기때문에 대부분의 去來가 赤字를 나타내고 있는 實情입니다.

또 昨年は 在韓日本企業의 日本人任職員에 대한 所得稅 査定 또는 外國製品 廣告費에 대한 關稅의 소급課稅 등 韓國 國稅當局의 엄한 課稅로 一部問題化 되었습니다.

이러한 問題에 대해서도 公平하고 合理的인 課稅에는 異議가 없습니다만, 課稅의 基準을 公表하여 事전에 納稅者の 理解와 協力を 얻는 것이 원활한 稅務行政의 基本이 아닌가고 생각합니다.

昨年 6月の 韓日貿易會議 및 10月末의 投資環境實務者會議에서도 日本政府로부터 貴國政府에 本件에 대해 가일층의 改善이 要望되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저희 들도 實態에 따른 合理的인 課稅가 이루어지도록 貴國關係

當局에 改善要請을 계속할 것입니다만 韓國委員 여러분의 적극적인 支援과 理解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 輸入多邊化政策 改善에 대하여 (提案)

住友商社株式會社  
專務取締役 永峰貞吉

1. 最近 貴國政府가 (對外的으로) 공표한 輸入自由化 政策을 살펴 보면 (서울올림픽이 開催되는) 1988년에는 昨年末 現在の 輸入自由化率 80.3%를 실로 95%를 넘는 水準으로 높이는 참으로 意慾的인 것으로 같은 貿易立國을 뜻하는 日本의 貿易의 일익을 맡고있는 저희들이 깊이 感服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前回の 合同會議과 그외 兩國民間間的 여러會議에서 거듭 이야기 되고 있는것입니다만 모처럼 결단을 내려 自由化에 의해 國際去來 擴大促進을 기하고 있음으로 貴國의 輸入先多邊化政策에 대해서도 가능한한 빠른 時期에 再檢討가 되도록 貴國政府에 強力히 부탁드립니다.

이 政策의 취지가 特定國에 對한 差別을 의도하고 있는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現實에 있어서는 兩國의 貿易增進을 막고있음은 否定하기 어려운 사실에 있음으로 障害를 하나씩 하나씩 除去하여 兩國의 長期的인 共榮을 기하는 本會議의 目的에 비추어 여러분의 각별한 配慮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 貿 易 增 進 ( 答 弁 )

株 元 伸 實 業

社 長 朴 魯 聖

### 1. 在韓商社 STATUS 와 韓國의 輸入多邊化에 關하여

在韓商社 STATUS 에 對해서는 그동안 貴國의 要望事項等이 反映되어 '81 年 7 月의 貿易去來法 施行令改正에 의한 輸出入業의 許容等, 그 STATUS 가 점차 向上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今年 3 月 韓國政府는 對外 貿易의 自由化 趨勢를 勘案 外國人에 對한 貿易業 許容範圍를 점진적으로 擴大키로하고 우선 外國人投資企業體中 外國人 投資比率이 50 % 未滿인 業體에 對해 外國人投資導入法에 의해 投資許可를 받은 範圍內에서 自家生産이 아닌 他社製品에 對한 輸出入業도 許容토록 示達한바 있습니다.

우리 韓國의 貿易業體가 一部 大企業을 除外하고는 零細하여 外國企業과 外等한 立場에서 競爭해 나갈수 있는 能力이 결여되어 있어, 現在로서는 外國人에 對한 大幅的인 緩化가 어려운 立場이나,

國內經濟의 開放化 추세 國內貿易業界의 成長等 諸般與件을 考慮하면서, 漸進的으로 緩化되어 나갈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韓國의 輸入多邊化 問題에 對해 말씀드리겠습니다.

韓國의 輸入多邊化政策은 周知하시는 바와같이 對外貿易에 있어서 互惠主義 原則下에서 地域別 貿易收支의 均衡을 維持하면서 同時에 交易의 持續的인 擴大發展을 위해 採擇한 政策으로서, 韓國의 慢性

的인 貿易不均衡을 改善키 爲해서는 不可避한 措置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韓國政府는 계속 輸入自由化를 推進中에 있으며, 今年의 경우 去年의 80.3%에서 84.7%로 擴大되고 있으며 오는 '88년까지는 95.2%로 先進國水準에 이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輸入先 多邊化 品目역시 昨年('82.7.1 ~ '83.6.30)의 210個品目에서 今年('83.7.1 ~ '84.6.30)에는 174個 品目으로 漸次減少 추세에 있습니다.

貿易逆調國 立場인 우리의 이러한 改善努力에 대하여 日本側 여러분의 깊은 理解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本件과 關聯한 日本側의 要望事項은 可能한한 그 要望이 達成될 수 있도록 努力하겠습니다만, 關係機關에 說得力있게 說明할 수 있게끔, 日本側 여러분께서도 兩國間 貿易增進을 위한 우리들의 提案이 解決될 수 있도록 적극 協力해 주실것을 要望하는 바입니다.

## 2. 日本企業에 對한 課稅에 關하여

在韓 日本商社의 「Offer」手數料(認定口錢率) 問題는 周知하 시는 바와같이 本合同會議의 建議等이 反映되어, 이미 두차례에 걸친 大幅引下 措置가 있었습니다.

關係當局의 說明에 의하면 現行料率은 실제거래 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만큼 무리한 수치가 아니나,

보다 合理的인 課稅를 爲해서 研究 檢討를 계속중에 있으며, 우선 1次的으로 '83年度 去來實績分을 토대로 向後 基本料率을 調整할 豫定으로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在韓 日本企業 日本人 任職員の 所得稅에 대한 日本側 要望事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外國人納稅者の 納稅義務는 所得稅法에 依해 發生하며, 所得稅法 減免條項에 의거 外資導入法에 의한 投資企業이나 技術導入業體에 勤務하는 外國人任職員에 대한 所得稅 課稅는 登錄日 또는 技術導入認可日로부터 5年間 免稅토록 하고 있으며, 5年經過後에는 正常課稅를 實施함은 周知하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韓・日 租稅協約의 規定에 의하여, 勤勞者の 納稅義務는 勤勞提供地(遂行地)에서 發生하는것이며, 따라서 韓國內에서 勤務하는 日本人 任職員들은 韓國에서 納稅義務가 있습니다.

앞으로, 免稅期間이 경과된 企業에 종사하는 任職員들은 甲種 勤勞所得과 乙種勤勞 所得에 對해서 성실하게 自진신고 納付할 것을 韓國政府側은 促求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申告納付하는 外國人에 對해서는 稅務調査등의 간섭은 없을것 이라고 합니다.

또한 今年에도 例年과 같이 所得稅 報告納付(所得稅確定申告期間 '84.5.1 ~ 5.31)를 위한 弘報를 위해 이미 '84.2月末頃에 投資企業을 對象으로 한 弘報活動을 實施했으며, 納稅者の 便宜와 理解를 圖謀하기 위해서 오는 5月중 案内文, 案内冊字, 기타 申告에 必要한 書式等を 送付할 豫定으로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外國製品의 廣告費에 對한 關稅賦課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輸入物品에 대한 關稅課標를 定하는 方法에는 現在 두가지의 國際協定에 있으며, 그것은 周知하시는 바와같이 브뤼셀評價協定과 新評價協定이 있습니다.

貴國은 '81年1月1日을 期하여 新評價協定으로 變更 施行하고 있으며, 韓國의 경우는 現在 브뤼셀 評價協定을 施行하고 있으나, 新評價協定 調印時 '86年1月1日부터 施行키로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關係當局에 의하면 同 日程을 앞당겨서 '84年7月1日 부터 新評價協定の 一部를 施行할 豫定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現在 輸入物品에 대한 韓國의 關稅課標査定基準이나 原則은 '81年1月1日 以前의 貴國方式과 同一하며, 關稅賦課(소급課稅)에 대한 韓國 關係當局의 基本立場에 대해서는 1984年2月 發行 韓國關稅廳의 資料를 日韓經濟協會에 傳達하겠으니 參考하시기 바랍니다.

以上으로 貿易增進에 대한 日本側 要望事項에 대한 答弁으로 같 음하며, 本 事項들은 政府所管事項이므로, 歸國後 이를 關係機關들과 協議 必要한 部分에 대해서는 政府當局에 傳達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海運協力에 대하여 (提案)

日本船主協會  
常務理事 三上良造

國際海運問題에 대하여 日本海運業界의 意見・希望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지금 韓國海運業界가 全力을 기울이고 있는 企業集約問題에 대하여 한 말씀 올리고자 합니다.

現在 世界의 海運業界는 未曾有의 不況으로 極히 困難한 狀況에 있습니다만, 이러한 情勢속에 海運業界의 合理化・活性化를 위하여 企業集約이라는 大事業을 決斷・實行에 옮긴 貴國政府와 關係者들의 英斷과 열의에 대하여 저희들은 깊은 敬意를 表하고 있습니다.

저희 日本 海運業界도 꼭 20年前에 같은 企業集約을 하였기 때문에 이번 貴國의 措置로 兩國海運業界는 公同의 경험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貴國의 集約體制가 완성되면 兩國海運業界의 相互協力이 더욱 緊密해 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委員會에서 이미 누차 거론된 것과 같이) 貴國은 第5次5個年 計劃의 一環으로 貿易自由化 政策을 더욱 推進할 方針으로 있습니다만, 貿易自由化는 말할 것도 없이 國際經濟 擴大發展을 위한 重要的 施策의 하나임으로 이러한 貴國의 政策은 海運業界로서도 크게 歡迎할 일이라 하겠습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要望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自由化 政策이 貴

國의 國際海運業界에도 例外없이 適用되는 것입니다.

具體적으로 말씀드리면 現在 韓國輸出貨物을 外國船에 싣기 위해서는 貴國의 海運振興法에 의해 원칙적으로 웨이버, 즉 貴國政府의 許可取得이 義務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제도를 철폐하여 外國船이 自由競爭에 의해 韓國輸出貨物을 싣을 수 있도록 措置를 부탁드립니다.

本件에 대해서는 이미 本 委員會에서 과거 몇 차례에 걸쳐 특히 韓國／美國貨物 積取에 대하여 理解를 호소하여 왔습니다만, 이 웨이버制度가 실제로 適用되고 있는 것은 日本船社 이외 極히 한정된 나라만이 라는 실정을 덧붙여, 貴國內에서도 最近 本 制度의 폐지가 檢討되고 있다고 듣고 있음으로 이 機會에 저희들의 要望에 대하여 거듭 유의해 주실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저희들의 要望에 대하여 꼭 本 委員會의 배려를 얻을 수 있도록 거듭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傾聽하여 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海運協力要請에 對한 韓國側答辯

大韓海運 (株)  
社長 李 孟 基

### 1. 海 運 集 約

日本은 20 年前 海運業界의 集約, 再編成이 實現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韓國은 現在 當時의 日本보다 不利한 條件下에서 海運業界의 再建과 育成을 爲한 合理化가 推進되고 있어 많은 難點이 豫想되고 있습니다.

韓國海運業界가 健全한 狀態로 集約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經驗한 바 있는 여러분의 많은 聲援을 期待하는 바입니다.

### 2. 貿易自由化, 海運自由化

國際貿易의 擴大發展을 爲해 貿易自由化 및 海運自由化는 不可缺의 要素임은 再言이 不要합니다. 이제 거우 中進國圈에 들어 서려는 韓國으로서는 아직도 脆弱狀態에 있는 國內產業基盤을 造成하여 自由友邦諸國에 貢獻하도록 全力을 傾注하고 있는바 先進友邦諸國의 雅量있는 支援과 協助가 要望됩니다.

그러나 昨今の 世界的 不況으로 先進諸國에서도 여러가지로 非直接的인 保護貿易의 措置를 取하고 있으며 한편 海運의 自由 또한 UNCTAD 等 世界共通의 場에서 이를 制限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은 周知의 事實입니다.

이러한 狀況下에서도 韓國은 友邦諸國의 要請을 받아드려 貿易自由化와 海運自由化의 原則에 副應하는 方向으로 政策을 樹立漸進的으로 遂行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3. WAIVER 問題

이 問題에 對해서는 基本的으로는 韓日間의 貿易逆調의 是正과 關聯하여 積取問題도 考慮되어야 하며 特히 UNCTAD의 定期船同盟憲章條約이 發効되어 이미 韓國은 이를 批准하였고 日本도 早晚間 批准할 것이므로 同 條約範圍內에서 政府間에 原則이 合意되면 施行을 爲한 具體的 協議는 兩國 船主協會가 中心이 되어 現在의 輸送狀況을 尊重하고 年次的 漸進的 方法으로 目標 積取量에 達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합니다. 特히 韓國海運業界는 日淺하고 經驗不足에다 未曾有의 世界的 不況下에서 前述한바 集約化로 再出發이 不可避한 實情에 있음을 十分理解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가지 脆弱性を 免치 못하는 韓國海運의 發展을 爲해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經濟大國인 日本이 보다 많은 雅量과 깊은 配慮 그리고 友情어린 協調를 아끼지 말기를 懇切히 바라마지 않습니다.

## 國交正常化 20 周年行事準備委員會構成提案

(社) 韓 日 經 濟 協 會  
常勤副會長 崔 周 善

韓國과 日本이 1965 年에 國交를 正常化한 以後, 兩國 經濟人은 懇談會 및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등을 通해 20 年 가 까이 經濟協力, 產業技術協力, 貿易增進등을 위해 많은 分野에서 至大한 成果를 이루었다고 봅니다.

이제 來年이면 國交正常化 滿 20 周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에 그 間의 成果를 記念하고 앞으로의 協力を 한층 더 緊密히 하기 위하여 韓日・日韓經濟協會間에 記念行事準備委員會를 構成, 兩國經濟人이 할 수 있는 行事を 選定케 하고 그에 隨伴되는 諸般問題를 協議케 하도록 提案합니다.

## 國交正常化 20 周年 行事準備委員會 構成 提案에 對한 日本側 答辯

小野田 CEMENT(株)

取締役社長 大島 健司

지금의 提案은 그 趣旨가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日本側에서는 이미 官民合同의 「日韓國交正常化 20 周年 紀念 行事에 關한 懇談會」라는 것이 發足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經濟人도 參與하고 있으므로 이 懇談會와도 協議를 거친 後, 合同委員會 會議로서의 行事에 어울리는 것을 實施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爲해 可能的 빨리 日本側에서 協議를 마친뒤 連絡을 드리 고자하니 이 點 惠諒하시기 바랍니다.

## 共 同 聲 明

第 16 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會議는 1984 年 4 月 5 일부터 7 일까지 日本國 京都에서 開催되었다. 韓國側에서는 朴泰俊 韓日經濟委員會 委員長을 團長으로 하는 63 名이, 日本側에서는 日高輝 日韓經濟委員會委員長을 團長으로 하는 88 名の 代表團이 參加하였다.

이번 會議에서는 韓日國交正常化以來 20 年間の 實績을 바탕으로, 民間의 經濟・文化 各面에 걸친 交流, 誠意있는 相互協力 및 國民的 基盤위에 先 相互理解를 加一層 促進시켜야 한다는데 認識을 같이 하였다.

또한 不斷한 努力에 의한 韓日共榮을 위한 經濟協力關係를 構築하는 것이, 東아시아의 安定 나아가서는 世界의 經濟活性化와 平和에 寄與한다는 點에서 意見이 一致하였다.

1. 兩側團長の 人事말에 이어, 日本側은 「情報化社會의 進展과 日韓經濟協力」에 關해서 講演, 뉴미디어의 登場 等 情報化社會의 進行에 따라 소프트웨어 分野의 韓日協力の 可能性이 多大하다는 點을 強調하였다. 韓國側은 「韓日經濟交流의 原點」에 關해서 講演, 戰後世代가 人口의 70 %에 이르고 있는 오늘날, 韓日經濟協力の 方法도 젊은 世代가 理解할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하며, 또 自主的인 技術水準을 提高할 것과, 이를 위해서는 兩國間의 젊은 研究者 등의 人的 交流를 크게 活潑化시키고자 한다고 말하였다.

2. 全體會議에서는 우선 韓日兩國의 自由化政策에 對한 說明이 있었다. 日本側은 60年代 以後의 日本經濟의 自由化過程에 있어서, 特히 民間의 積極的인 設備投資, 企業合併 등 經營體質의 強化를 包含한 自助努力에 의해서 困難을 克服하고, 오히려 自由化를 成長의 原動力으로 삼았다는 經驗을 說明하였다. 한편 韓國側은 政府當局으로부터 自由化政策을 包含한 第5次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이 安定成長基調의 定着과 國際收支의 改善을 指向하여 修正되었다는 趣旨의 說明이 있었다.

3. 다음의 4個專門委員會의 合同會議報告가 있었고 모두 異議 없이 採擇되었다.

- (1) 第11回 韓日・日韓貿易擴大均衡委員會 合同會議
- (2) 第9回 韓日・日韓機械工業協力專門委員會 合同會議
- (3) 第4回 韓日・日韓經濟協力長期構想研究委員會 合同會議
- (4) 第2回 韓日・日韓中堅・中小企業協力專門委員會 合同會議

4. 日本의 對韓技術協力에 對해, 韓國側은 今年부터 시작되는 政府레벨의 技能工 研修에 있어서 民間企業의 積極的인 協力を 要請하고, 또한 民間레벨의 技術協力支援을 強化하는 目的으로 既存 專門委員會 아래에 業種別 專門家로 構成되는 小委員會의 設置를 提案하였다.

日本側은 技術協力の 成果를 거두기 위해 韓國側의 自主開發力의 強化, 人材의 育成, 投資環境의 整備 등 더一層의



配慮를 要請하였다.

이에 對해 韓國側은 現在 이를 위한 努力을 傾注하고 있는 實情을 說明하였다. 兩側은 具體적인 技術協力促進의 方法으로서 다음 各項에 合意하였다.

- (1) 政府레벨의 技能工研修制度의 實効를 거두기 위해 日本의 民間企業, 特히 日韓經濟委員會 會員各社는 積極적으로 韓國技能工을 받아들이는데 協力한다.
- (2) 專門小委員會 設置에 對해서는 當分間 既存의 專門委員會의 技術協力面에서의 活動強化, 業界交流의 活潑化, 韓日經濟協會 및 日韓經濟協會를 窓口로 하는 技術세미나의 擴充, 各種 심포지움, 見本市 등에 關한 情報交換 등에 의해서 實質적인 技術協力の 前進을 圖謀한다.

5. 兩國間의 貿易擴大均衡에 있어서 韓國側은, 對日輸出増大를 위해 發展途上國의 關心品目에 重點을 둔 새로운 市場開放策의 早期實施, 韓國의 關心品目에 對한 關稅引下 내지 撤廢, 特惠關稅制度의 더한層의 擴充 및 地方의 中堅·中小企業으로 構成되는 對韓購買使節團의 派遣 등을 要請하였다.

이에 對해 日本側은 市場開放策에 있어서 韓國側 要請의 趣旨를 政府에 傳達할 것을 約束함과 아울러, 日本의 市場開放과 關稅, 特惠關稅制度에 있어서는 이미 主要 先進國에 비해 손색이 없는 水準에 達하고 있는點을 說明하였다.  
아울러 基準認證 等 輸入과 關聯된 問題에 있어서는 「市

場開放問題 苦情處理推進本部」(O.T.O)를 活用하여 달라는 助言이 있었다.

6. 韓國側의 強力한 要望인 對韓購買使節團 派遣에 있어서 日本側은 日本의 關係當局을 비롯하여 地方商工會議所 等に 對하여 積極的인 協力을 要請함과 同時에, 서울國際貿易博覽會(SITRA '84)의 開催를 契機로 購買使節團의 派遣이 實現될 수 있도록 努力할 것을 約束하였다.

그리고 韓日間의 姊妹都市活動을 從來의 文化面에서의 交流만에 그치지 않고, 地方產品의 交易에 까지 擴大시키도록 相互協力해 갈것에 合意하였다.

7. 한편, 貿易增進의 觀點에서 日本側으로부터 在韓日本商社 等の 스테이터스, 오파商에 對한 標準手數料率課稅, 在韓企業의 日本人 任職員에 對한 所得稅 査定, 外國製品의 廣告費에 對한 關稅 課稅問題 등의 改善 및 輸入先多邊化制度의 撤廢에 對한 要請이 있었다.

韓國側은 이러한 問題들이 漸進的으로 緩和 내지 改善되어 가고 있음을 說明하고, 加一層의 改善이 이루어지도록 韓國政府에 傳達하기로 約束하였다.

8. 海運協力에 關해, 日本側으로부터 韓國海運振興法施行令에 따른 웨이버制度를 撤廢하여 自由化政策이 海運에도 適用될수 있도록 要望하였다. 韓國側은 韓國海運業의 競爭力이 아직도

充分하지 못하다는趣旨를說明하고日本側의理解를求하였다.

9. 韓國側으로부터國交正常化滿20周年記念行事準備委員會를韓日・日韓兩經濟協會內에設置하자는提案이있었고,日本側은官民協同으로이미發足된記念行事懇談會와調整한然後에早速하고도前向的인姿勢로檢討할것을約束하였다.
10. 兩國經濟交流및相互理解의基盤이되는教育・文化交流의一環으로서서로보다많은留學生을交換할것을兩國의政府에建議하는데合意하였다.
11. 다음會議는來年봄大韓民國에서開催하는데合議하였다.

1984年4月7日

韓國代表團團長 朴泰俊

日本代表團團長 日高輝

## 閉 會 辭

韓 日 經 濟 委 員 會  
委員長 朴 泰 俊

古代 韓日文化가 共存하는 由緒깊은 古都 京都에서 지난 五日  
부터 三日間에 걸쳐, 韓日兩國의 民間經濟界를 代表하는 여러분들  
이 한자리에 모여 眞摯한 雰圍氣속에서 서로의 關心事를 놓고  
協議한 끝에 오늘 깊이있고 알찬 內容의 共同聲明을 採擇하고,  
第十六回, 韓日・日韓民間合同經濟委員會會議를 마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合同委員會會議에서 보여주신 兩側代表團  
여러분의, 誠意와 意慾에 다시한번 感謝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會議은 오늘로서 閉幕됩니다만, 오늘 우리 서로가 採擇한  
課題를 持續적이고도 꾸준한 共同努力을 通해, 例年에 비해 加一  
層의 結實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 懇曲히 附託드리는 바입  
니다.

開會때도 말씀드렸읍니다만, 韓日兩國은 鞏固한 紐帶와 協力을  
通하여, 우리 두나라는 勿論이고, 窮極의으로는, 世界의 繁榮과 人  
類의 幸福에 이바지하지 않으면 아니될 共通의 課題와 運命을 지  
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例年에 恒常 論議된 兩國間의 懸案問題는 勿論이지만, 긴  
眼目的 韓日關係의 發展과 定立을 爲해 根源이 되는 教育・文化의 을

바른 理解와 促進을 爲해 留學交流를 增大시키고자한 努力 등은  
今般 會議의 性格을 特徵지우는 重要한 內容이라 思料됩니다.

또한, 回數를 거듭할수록, 各 專門委員會의 活動內容이, 대 단히  
充實해 지고 相互間의 問題點을 正確히 分析하고 理解하여 解決해  
나가겠다고 하는 眞摯性에 對해 致賀를 드리고 싶으며, 또한 感  
謝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특히 今般 會議를 成功裡에 마치게 하계끔 事前에 잘 計劃하  
시고 한치의 蹉跎없이 훌륭하게 會議를 進行해 주시고, 또한 저희  
韓國代表團에 對한 親切하고도 適切한 案内를 하여 주신, 日本側  
團長님 以下, 事務陣에 對해 깊이 感謝를 드립니다.

一九八五年 韓國에서 만날때 까지 여러분의 健康과 여러분의 企  
業이 더욱, 隆盛하시기를 빌며, 惜別의 情을 나눌까 합니다.

대단히 感謝했습니다.

“日本の皆様，本当に有難う御座居ます”

“さようなら”

## 閉 會 辭

日韓經濟委員會

委員長 日高 輝

朴泰俊團長을 비롯한 韓國代表團 및 그리고 日本代表團 여러분, 엇그제부터 이곳 日本의 古都이며, 특히 韓國과 깊은 關係가있는 京都땅에서 16 회째를 맞은 合同委員會 會議을 主催國으로써 開催했던 바, 방금 채택된대로 至極히 充實한 內容, 게다가 例年에 없던 幅넓은 視野에서 論議를 다한 結果, 이렇듯 成果가 풍부한 共同聲明이 發表될 수 있게 되는데 대해, 감개무량함을 느끼며,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討議에 임해 주셨던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깊은 感謝의 뜻을表하는 바입니다.

엇그제 閉會式에서 林田 京都府知事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 京都는 오랜 전통과 새로운 것을 일찍 받아들인 獨特한 氣風을 지닌 곳으로 산업에 있어서도 千數百年동안 갈고 닦아온 工藝品이 이어져오고 있는 한편, 최첨단의 일렉트로닉스, 新素材등 世界最高水準을 자랑하는 產業이 發展되어있어 實로 傳統과 新風이 混然一體가 되어 숨쉬고 있는 곳입니다.

이같은 장소에서 이번의 가장 重要한 테마인 産業技術協力 및 貿易擴大均衡을 도모하기 위한 具體的 方案이 檢討되어졌음니다만, 이들과 關聯하여 相互理解라는 兩國交流의 原點인, 오래되었으면서도 항상 새로운 問題가 提起되었다는 점이 이번 會議의 하나의 커

다란 意義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은 國交正常化 20 周年을 맞습니다만, 本合同委員會 會議로서도 意義가 있는 行事を 企劃해서 實施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번 會議의 論點이 基本姿勢의 하나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意味에서 今後 雙方이 모두 共同聖明에 存在하는 여러面에서도 깊은 配慮를 하여 兩委員會의 앞으로의 活動에 加一層의 努力을 繼續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3 日間에 걸친 會議에서 眞摯한 討論을 해 주셔서 이와같은 成果를 거둔 것에 對해 主催國의 議長을 맡았던 저로서 더할 나위없는 榮光이라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며 感謝의 뜻을 거듭 表함과 同時에 來年 貴國에서 다시 健康한 모습을 뵈게 되기를 祈願하며, 閉會人事를 하는 바입니다.

感謝합니다.